언론사: 한겨레-2-202.txt

제목: 김상조 “20년 시민운동, 칼날 위 살아”…다운계약서 등은 ‘사과’  
날짜: 20170602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02192811001  
ID: 01101001.20170602192811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기업을 상대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항상 칼날 위에 선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살았다. 외부와 이해관계에서 얽히면 제 자신이나 (몸담고 있던) 시민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왔다.”<br/><br/>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특혜와 비리 추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배우자의 강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살아오면서 (그런 식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배우자는 지금껏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br/><br/> 야당 의원들은 공정위와 관련한 정책 질의 대신 서울 청담동 아파트 특혜 매입, 대치동 은마아파트 투기용 위장전입, 논문 표절, 강연료 수입 탈세, 배우자 취업 특혜 등 5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후보자가 ‘경제 검찰’인 공정위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20건에 가까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br/><br/>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1999년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송구스럽다. 하지만 연구윤리가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br/><br/> 이를 제외한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청담동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해 “<span class='quot0'>청담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에 불과하고 그늘진 1층으로 미분양인 것을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계약했다</span>”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제기한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1'>영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배우자의 암 발병 사실을 발견해 강남 모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이사한 것도 병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span>”고 부인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span class='quot2'>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 2000년대 중반은 재건축 광풍이 불었던 시기</span>”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br/><br/> 김 후보자는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배우자의 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3'>2013년 처음 지원했을 때는 다른 경쟁자가 없었고, 한해 전인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영어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선발된 것으로 안다</span>”고 밝혔다. 또 “2017년 재선발은 배우자가 그만두기로 하고 이미 퇴직금까지 받았으나, 학교의 요청으로 계속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배우자의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선발기준인 901점 이상에 미달했는데도 선발됐고, 2017년 다시 선발할 때도 학교에서 자격조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br/><br/>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2000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span class='quot4'><산업노동연구>에 논문을 싣기 전에 애초 연구용역을 줬던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논문 게재도 <산업노동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span>”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의 윤리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고 사과한 뒤 “2008년 연구논문 윤리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강연료 신고 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span class='quot5'>매년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왔다</span>”고 해명했다.<br/><br/>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pan class='quot6'>김선동 의원이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는 2013~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간이고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까지 시행됐는데,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해온)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span>”고 반박했다. 또 “일부 야당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며 “김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정부 위원을 맡지 않고, 기업은 물론 학교의 연구비도 받지 않아온 ‘3무 경력’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깨끗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br/><br/>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

언론사: 한겨레-2-203.txt

제목: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암 사망자 등 3명 산재 신청  
날짜: 20170602  
기자: 정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02174817002  
ID: 01101001.20170602174817002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반도체 조립 전문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일하다가 암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br/><br/>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신아무개(당시 44)씨는 1996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입사해 19년 동안 몰드공정의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금속노조는 “<span class='quot0'>몰드공정은 반도체 보호를 위해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를 고온으로 녹여 반도체를 감싸주는 공정으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정아무개(당시 50)씨는 1984년 입사해 금선연결 공정에서 약 2년동안 근무했다. 금속노조는 “<span class='quot0'>칩 접착공정에서 사용하는 에폭시, 폴리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span>”고 주장했다. 1994년 입사한 성아무개(45)씨도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r/><br/> 하지만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등 3명은 이들이 일하던 공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정보를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1'>산재 적용을 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들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유기화학용제의 종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금속노조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1991년 엠코테크놀로지 부평공장에서 김아무개(당시 27)씨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뒤 암과 백혈병 등으로 20명이 숨졌다. 하지만 2015년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1명만 여성 노동자의 야간교대 근무 등을 이유로 산재로 인정됐다. 금속노조 쪽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엘지디스플레이처럼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조사를 통해 직업성 질환 사망자 보상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계 자본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서울 성수동·부평·송도·광주에 공장을 뒀다가 지난 3월 성수동 공장이 문을 닫아 3개 공장에서 5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br/><b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

언론사: 한겨레-2-204.txt

제목: 김상조 “은마아파트 이사는 부인 암치료 목적”  
날짜: 20170602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02135905001  
ID: 01101001.2017060213590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은마아파트 거주를 둘러싼 부동산투기용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배우자의 암치료 목적이라며 부인했다.<br/><br/> 김상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투기용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span class='quot0'>영국에서 안식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배우자의 암발병 사실을 발견해 강남 모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강남으로 이사한 것도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제가 강남의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산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안타깝다</span>”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span class='quot1'>아파트 관리비 납부기록을 보면 당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부인의 암치료라는 사생활까지 대중 앞에서 공개하면서, 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br/><br/> 이에 앞서 김성원 의원은 “<span class='quot2'>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5대 공직배제 기준에 해당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은 안해봤느냐</span>”면서 “<span class='quot2'>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 2000년대 중반은 재건축 광풍이 불었던 시기</span>”라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span class='quot0'>김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도 같은 집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느냐</span>”고도 따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1'>장인과 장모는 손주들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 장기체류해 국내에 없었고, 은마아파트에는 주소만 옳겨놓고 있었다</span>”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

언론사: 한겨레-2-205.txt

제목: “연극전문공간 지키려 했던 ‘혼신의 1인9역’ 지금도 생생”  
날짜: 20170529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9223819001  
ID: 01101001.20170529223819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짬】 ‘창단 33돌’ 공연 부산 극단새벽 변현주씨<br/><br/> “선배~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새달 1일부터 개막하는 1인 연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의 주인공을 맡은 부산 극단새벽의 배우 변현주(47·사진)씨는 “존경하는 선배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선배가 내 연기를 지켜보고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씨는 “10년 전 돌아가신 선배가 <어머니 날 낳으시고…>를 연기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선배가 함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br/><br/> <br/><br/> 1일 ‘어머니 날 낳으시고…’ 개막 ‘43살 요절’ 윤명숙 단원 10주기 “선배도 하늘에서 응원해주겠죠”<br/><br/> <br/><br/> 1984년 ‘민주화 열망’ 모아 창단 정부·자본 벗어난 ‘독립문화’ 표방 내년 ‘효로인디아트홀’ 개관 목표<br/><br/> <어머니 날 낳으시고…>는 변씨의 선배였던 배우 윤명숙씨가 1996년 처음 연기했다. 윤씨는 홀로 무대에 올라 9명의 등장인물을 연기했다. 중간에 무대 뒤로 사라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겉옷을 갈아입거나 소품을 바꿔가며 9명을 동시에 연기했다. 1명의 배우가 9명의 대사를 하는 1인 9역의 연극을 본 국제연극평가단은 그해 12월 윤씨한테 ‘올해의 좋은 연극상’을 수여했다. 1997년 공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1인 연극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br/><br/> 윤씨는 아시아문예센터 설립과 연극전문 소극장 마련을 위해 2000~2001년에도 <어머니 날 낳으시고…>를 공연하는 등 20여년 동안 지역연극 부흥에 앞장섰다. 2005년 그가 육아휴직을 떠나면서 96년 입단한 후배 변씨가 <어머니 날 낳으시고…>의 주인공 바통을 이어받았다. 변씨는 윤씨가 2007년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시작하자 선배의 쾌유를 빌며 무대에 다시 올라 혼신의 힘을 다해 1인 9역을 연기했다. 연기를 하면서 선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br/><br/> “당시 공연이 장기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중간중간 선배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선배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면서 엄지를 들어 보이셨어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이지요. 벌써 10년이 됐네요.”<br/><br/> 변씨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그해 결국 운명했다. 향년 43, 요절이었다. 단원들은 윤씨가 <어머니 날 낳으시고…>를 공연했던 무대에 고인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렀다. 상업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예술을 추구했던 윤씨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br/><br/> 극단새벽은 84년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40여명이 창단했다. 국비나 시비 같은 정부 지원이나 거대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문화’를 내걸었다. 촌철살인의 대사로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뒤에는 노동자·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작품을 많이 올렸다.<br/><br/> 하지만 그동안 독립 극단은 거대한 파도를 여러차례 넘어야 했다. 관객 감소로 갈수록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임대료가 치솟아 10여차례 건물을 옮겨 다니며 소극장을 운영하다 2012년 5월 끝내 상설 공연장을 접어야 했다. 단원들은 전문 극장을 빌려 공연을 이어갔으나 임대료 부담이 여전했다. 지난해부터 25억원을 들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2번 출구 근처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독립연극전문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이름은 ‘효로인디아트홀’로 지었다. 효로(아침이슬)는 고 윤명숙씨의 호다.<br/><br/> 효로인디아트홀은 올 3월 완공하기로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내년으로 미뤘다. 대신 관객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지난 4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 2번 출구 앞에 소극장을 마련했다. 단원과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br/><br/> 7월1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저녁 8시와 토요일 오후 5시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 2번 출구 앞의 극단새벽 민락동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영란과 정란)의 회고를 통해 아들을 얻지 못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 간 어머니의 거친 삶과 70년대 달동네 사람들과 철거민, 80년대 노동자들의 삶을 여성의 시각에서 그려낸다.<br/><br/> 윤씨를 떠나보낸 지 10년 만이다. 극단새벽 관계자는 “상설 독립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윤명숙 배우의 뜻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예술이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1)245-5919.<br/><br/> 부산/김광수 기자 kskim

언론사: 한겨레-2-206.txt

제목: 엘지디스플레이 “업무연관성 관계없이 암·특이질병 치료 지원”  
날짜: 20170528  
기자: 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8125808001  
ID: 01101001.20170528125808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엘지(LG)디스플레이가 사업장에서 일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중에 암이나 특이질병 발병 사례가 있는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br/><br/> 엘지디스플레이는 28일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를 만들어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중에 암이나 특이질병 발병 사례가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발생하는 질병 뿐만 아니라 회사가 설립된 1998년 11월 이후 근무했던 직원 가운데 발생했던 특이질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br/><br/> 이를 위해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운영 형식의 ‘LG디스플레이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를 설립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엘지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100억원의 재련을 마련해 향후 10년 동안 운영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재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br/><br/> 국내 기업 가운데 산업보건위원회를 만든 사례는 일부 몇 곳만 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2014년 <한겨레>의 직업병 단독 보도 뒤 에스케이하이닉스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만들어 1년여간 작업환경 측정과 화학물질 관리실태 평가, 역학조사 등을 벌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쪽에 포괄적 지원·보상안과 127개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 개선안을 제안해 하이닉스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는 '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들어 1년이 넘게 활동 중이다. <br/><br/> 엘지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동안 한국산업보건학회에 맡겨 파주와 구미 사업장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종합검진 및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등의 복리후생 제도까지 정밀현장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작업환경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 수준임을 확인했고, 복리후생 제도는 우수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엘지디스플레이는 전했다. <br/><br/> 이방수 엘지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부사장)은 “<span class='quot0'>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획기적인 선진 산업보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br/><br/> 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2-207.txt

제목: [세상 읽기] ‘의료 난민’을 막으려면 / 김창엽  
날짜: 2017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4184822001  
ID: 01101001.201705241848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br/><br/> 며칠 전 친구 어머니가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며칠 출근도 못 하고 환자를 돌본다더니, 한참만에 만난 자리에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울상이다. 대학병원에 열이틀을 입원했는데, 진료비가 1천만원 남짓, 그중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나 된단다.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할 참이면 이게 무슨 보험이냐, 건강‘보장’ 제도가 왜 이 모양이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br/><br/> 서민이 갑자기 400만원 마련하기가 그리 쉽나, 건강보험이 진료비 할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당연하다 싶다. 늘 다니는 외래나 가벼운 입원이야 큰 문제가 아니라지만, 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일상에 결정적으로 개입한다. 갑자기 큰 병이나 사고가 나면 빚을 져야 하고, 자칫 가계 파탄이나 ‘빈곤화’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른바 ‘메디컬 푸어’!<br/><br/>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을 ‘재난적 의료비’라 일컫는데, 병원비가 부채, 가계 파탄, 빈곤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재난이 되지 말라고, ‘안전망’ 노릇을 하라고 만든 사회제도가 건강보험이지만 현실은 엉성하다. 그 친구는 저축이 좀 있는데다 형제들까지 나서서 ‘가족 복지’로 보완했으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오죽하면 정부와 건강보험 당국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해야 할까.<br/><br/> 기왕 말이 나왔으니, 건강보험공단이 전하는 이 사업의 내용을 대신 홍보한다.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질환 기준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비수술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화상이며,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입원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의료급여·차상위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 및 항암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50%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br/><br/> 나도 해당할까 한번 따져 보시라. 이 또한 부분적인 추가 안전망에 지나지 않는다. 저소득층, 일부 질환, 소득 대비 과다한 지출이라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정도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은 빠져나간다. 재난적 의료비는 짐작보다 많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했다. 대부분은 ‘각자도생’으로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br/><br/> 저성장과 고용불안의 시대, 그 무엇보다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건강보험을 크게 개혁해야 한다면 이것부터 손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침 새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데다, 다른 대선 후보의 공약도 비슷했다. 적어도 정치적 동력은 충분한 셈이다. 구체적 개혁 방안은 백가쟁명이지만, 나는 본인부담을 크게 낮추어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br/><br/> 상투적이지만, 모든 개혁은 쉽지 않다는 말을 보탠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쓸 것인가. 본인부담을 낮추려 건강보험 재정을 바꾸는 일은 여럿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재정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지금이 그나마 적기라는 점이다.<br/><br/> 큰 방향은 분명하다. 각자 돈을 내는 민간보험과 개인 부담을 건강보험 ‘공동구매’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보험료로 내던 돈을 건강보험료로 돌리고, 개인 부담도 ‘모아서’ 전체가 같이 쓰는 쪽으로 바꾸자는 뜻. 건강보험이 건강보험다워지는 것. 새 정부가 주도자와 거간꾼 노릇을 해주기 바란다.

언론사: 한겨레-2-208.txt

제목: ‘최장수 제임스 본드’ 영국 배우 로저 무어 별세  
날짜: 20170523  
기자: 박민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3225840002  
ID: 01101001.20170523225840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스파이 영화의 대표작인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 로저 무어가 암투병을 하다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89.<br/><br/> 로저 무어는 1973년부터 1985년까지 ‘007 시리즈’의 7편 작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본드 역할을 맡은 배우이기도 하다. <br/><br/> 로저 무어의 세 자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 로저 무어 경이 오늘 스위스에서 암과 싸우던 중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한다.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알렸다. 그들은 “아버지는 90 평생을 카메라 앞에서 열정을 쏟아왔다“며 “마지막이었던 2016년 11월 런던 왕립 페스티벌 홀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열광했다. 아버지가 매우 특별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고맙다”고 추모했다. <br/><br/> 또 “아버지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뿐 아니라 유니세프 등 자선 활동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고, 존경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고인의 생전 소망에 따라 모나코에서 비공개로 치뤄질 예정이라고 유족은 밝혔다.<br/><br/> 런던에서 경찰관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로저 무어는 육군에 들어가 2차 대전 중 영국군에 복무했다. 런던 왕립극예술아카데미에 다녔고 단역 영화배우로 활동하다가 195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MGM과 계약을 맺었다. 텔레비전 시리즈 <매버릭>에서 도박꾼 사촌 보 역할과 1962년부터 1969년까지 영국에서 방송된 인기 탐정 드라마 <세인트>의 주인공 역으로 명성을 얻었다.<br/><br/> 1973년 ‘007 시리즈’의 초대 제임스 본드인 숀 코너리가 본드 역에서 은퇴하면서, <죽느냐 사느냐>부터 로저 무어가 본드 역할을 맡았다. 그는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1974) <나를 사랑한 스파이>(1977) <문레이커>(1979) <유어 아이즈 온리>(1981) <옥토퍼시>(1983) <뷰 투 어 킬>(1985) 등 ‘007’ 시리즈의 대표작들에 출연하면서, 전설적인 제임스 본드로 기억된다.<br/><br/> 그는 007 시리즈의 <옥토퍼시>를 인도에서 촬영하면서 인도 빈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과 구호기금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이런 공로 등을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와 훈장도 받았다.<br/><br/> 박민희 기자 minggu

언론사: 한겨레-2-209.txt

제목: 유방암 환자 절반 가량은 가장 초기인 1기에 발견돼  
날짜: 2017052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3121031001  
ID: 01101001.201705231210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으로 진단돼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가량은 가장 초기인 1기에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유방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2015년 한해 동안 유방암 치료 건수 8078건 가운데 45.2%가 1기에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기는 유방에 생긴 암 세포가 유방 조직에 한정돼 주변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다. 림프절 등으로 전이된 2기의 경우 전체의 40.3%로 집계돼, 유방암 환자 100명 가운데 85명은 유방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1~2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대부분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1기에는 99%이며, 전체적으로도 90% 이상이다. <br/><br/> 나이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방암은 4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34.5%를 차지했으며, 이어 50대(31%), 60대(13.8%), 40살 미만(11.5%) 순이었다. <br/><br/> 병원이 유방암을 적절하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109개 병원 가운데 84곳(전체의 77%)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병원별 평가 결과는 24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10.txt

제목: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병…가두기보다 예방 지원을”  
날짜: 20170522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2182928002  
ID: 01101001.2017052218292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첫 발병은 고2 때였다. 기숙사 생활과 친구, 공부가 모두 스트레스였다. 망상이 시작됐지만 심각한 줄 몰랐다. 약을 받아놓고 먹다 말다 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br/><br/> “겪고 보니 질병이었어요.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거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리 오래 고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br/><br/> 1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5층 회의실. 기자들과 만난 정서경(가명)씨는 조현병을 앓는 셋째 딸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딸은 누군가 자기 옷을 훔쳐다 크기를 바꿔놓는다는 망상에 빠졌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고 집에 불을 질렀다. 2년 전 센터 입원치료 뒤에야 호전됐다. 20대 후반이 된 지금은 두달에 한번 주사만 맞는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딸은 “나도 내가 아픈지 몰랐다. 상태가 나아진 뒤에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또렷한 목소리였다.<br/><br/> 최성구 센터 의료부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따님은) 강제입원됐고 사회와 고립됐던 경험이 있지만 이젠 환자인지 못 알아볼 만큼 호전됐다”며 “일부에선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우려하지만 이들이 공격성을 띠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쳐 지은 지 1년 남짓 된 센터 내부는 밝고 깔끔했다. 5층 입원실은 환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외부 출입이 가능했다. 병동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엔 ‘오전 10시 치과교육, 10시반 음악감상(노인/성인), 오후 1시 둘레올레(남산)’라고 적혔다. 병원 1층엔 응급실이, 2층엔 병원 내 초등학교인 ‘참다울학교’와 소아청소년진료소가 있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갖췄다.<br/><br/> 이곳에는 조현병 환자가 가장 많다. 조현병은 스트레스로 뇌의 신경세포 기능이 변이를 일으켜 망상에 시달리게 되는 질병이다. 암처럼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오해는 정신질환자를 격리 대상으로만 본다. 67%에 이르는 한국의 강제입원율(2014년)은 선진국(독일 17%·영국 13.5%·이탈리아 12%)과 견줘 큰 차이를 보인다.<br/><br/> <br/><br/> <br/><br/>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함께 입원 여부를 진단하고, 강제입원 뒤 한달 안에 입원적합심사를 받게 됐다. 강제입원의 인권침해 소지를 줄였지만, 한편에선 법 시행 뒤 최대 19만명의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복지부는 수치가 과장됐다고 밝혔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br/><br/> 최 부장은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병이다. 인구가 서울의 10분의 1인 미국 보스턴시는 10배의 돈을 정신건강 예방과 환자의 사회복귀에 쓴다. 병원에 가두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30일 시행된다.<br/><br/> 박기용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2-211.txt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밥상” 어느 초등생의 시 ‘화제’  
날짜: 20170522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22120012001  
ID: 01101001.20170522120012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span class='quot0'>하루에 세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span>”<br/><br/>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 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한 편의 시가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올해 전북 부안여중 신입생으로 진학한 이슬(13)양. 이양은 지난해 2학기 연필로 쓴 시 <가장 받고 싶은 상>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2016년 글쓰기 너도나도 공모전에서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도교육청 블로그에 이 시를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br/><br/>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임미성 익산성당초등교 교감은 “동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세 명이 작품을 고를 때 만장일치로 가장 좋은 작품으로 뽑았다. 무엇보다도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와, 지웠다 썼다가 한 종이 원본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교감은 “이 시가 최종적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나도 기뻤다. 이 아이는 커서 시인이 될 것이다. 직업으로서 시인이 아니더라도 삶을 시적으로 살아낼 힘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br/><br/> <br/><br/> 이양이 부안우덕초등교 6학년 때 담임이던 유현 교사는 “시에서 슬이가 표현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가 정성을 담아 차려주신 밥상과 엄마의 얼굴(상)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독자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작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을 ‘상’으로 표현하는 한자가 있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유 교사는 “<span class='quot1'>보통 원고지로 동시를 쓰게 하는데 이 공모전은 에이포(A4) 용지에 손글씨와 그림을 담도록 원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양이 쓴 시 옆에는 엄마에게 차려드릴 밥상을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꿈이 요리사인 이양은 오빠와 함께 밥을 차려 먹는데도 익숙하다. 엄마와 함께 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기를 써온 이양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일기를 쓴다. 이양은 “<span class='quot2'>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전진할 것</span>”이라고 다짐했다.<br/><br/> 박임근 기자 pik007

언론사: 한겨레-2-212.txt

제목: ‘유리 천장’ 깬 피우진의 ‘걸크러시’ 어록 다시 보니…  
날짜: 20170518  
기자: 김지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18175903001  
ID: 01101001.20170518175903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이보다 더 짜릿하고 감동적 인사는 없었다. 역대급 홈런이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br/><br/> “<span class='quot0'>그녀를 국가보훈처장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다</span>”(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br/><br/> 지난 17일 피우진(61)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자 ‘피닉스’(피 처장의 항공 호출명)의 ‘재도약’을 반기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여성 보훈처장은 1961년 보훈처 설치 이후 처음이다. 주로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급 남성이 도맡아온 보훈처장에 진보 성향의 예비역 영관급 여성을 임명해 파격적 인사로 꼽힌다. 상이군인으로서 본인이 보훈대상자인 피 보훈처장은 이날 “<span class='quot1'>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span>”라며 “<span class='quot1'>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 그는 대한민국 1세대 헬기 조종사로서 ‘유리 천장’을 깬 인물로 유명하다.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을 거치며 25년간 1300여 시간 비행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2002년 유방암 투병 중 받은 ‘유방 절제술’이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아 정년을 3년 앞둔 2006년 11월 강제 전역해야 했다. 이후 이에 항의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2008년 5월 복직했다. 그가 2006년 ‘부당 강제 전역’을 당하며 펴낸 자서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에는 군대 내 성희롱·성차별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화제가 됐던 그의 발언과 일화들을 자서전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시 소개한다. <br/><br/> <br/><br/> “<span class='quot0'>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span>”<br/><br/>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은 2002년 10월, 비극이 시작된 것은 2005년이었다. 유방암을 이기고 3년이나 멀쩡히 군 생활을 했지만 육군 논산병원에서 현역 간부 정례 신체검사를 받던 중 심신장애 등급 2급을 판정받았다. 양쪽 유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암이 발생한 것은 왼쪽 유방이었지만, 그는 헬기 조종사로서 중요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오른쪽도 절제했다. ‘양쪽 유방절제’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2급에 해당하며, 장애등급 1~9급이면 전역 처분된다. 군 당국은 정년을 3년 앞둔 그를 ‘해고’나 다름없이 내쫓았다. <br/><br/> 2006년 10월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그는 “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군 생활과 무관한 신체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복무 희망자를 강제 전역시키는 군 인사 시행규칙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복무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 여성 1호의 날개는 꺾이는가 ) 당시 그가 제시한 체력검정 보고서를 보면, 팔굽혀펴기 23회 특급, 윗몸일으키기 58회 특급, 1.5km 달리기 9분30초 1급으로 그의 체력은 나무랄 데 없었다. 전역 판정을 받고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는 도보로 전국 종주를 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1년7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2008년 복직했다. 하지만 대령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계급정년으로 전역했다. <br/><br/> <br/><br/> “<span class='quot0'>여군은 결코 치마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현실은 여군에게 치마를 강요한다</span>” 2006년 11월 강제 전역 뒤 그는 자서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삼인)를 펴냈다. 그는 책에서 “<span class='quot0'>나의 군인 정신은 나라를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의 적은 북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군과 문서 쪼가리들이었다</span>”며 군대 내 만연한 성차별을 통렬히 비판했다.<br/><br/> 부대 회식을 하면 여군은 무조건 상급자 옆에 앉히며, 마치 접대부를 붙이듯 여성 중간 간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책의 ‘4성 장군과의 악연’이라는 챕터에 당시 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낮술을 마시던 사령관이 일직 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여군 부사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술자리로 보내라고 명령했고, 당시 대위였던 피 보훈처장이 이를 거절하다 사령관의 압력에 못 이겨 외출 승인을 낼 때 사복 대신 ‘전투복’을 입혀 보낸 것이다. <br/><br/> <br/><br/> <br/> 여군 일직 사관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군사령관이 어느 여군을 보내라고 명령했다면서 외출 승인 요청을 했다. 군사령관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띄울 여군을 보내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미 여군 부사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 군사령관이 툭하면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불러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불러서는 옆에 앉혀 놓고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같이 블루스를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접대부 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싫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올 때는 꼭 예쁜 사복을 입고 오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br/><br/> “그 아이 아프다고 해.”<br/><br/> 막아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나는 일직 사관에게 그렇게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얼마 후였다. 이번엔 밤이 아니고 대낮이었다. 공관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는 군사령관의 명령이라면서 당번 요원과 의전과 부사관 등 몇 명을 보내달라고 했다. 군 사령관이 골프를 치고 난 후 몇 분과 함께 낮술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중략)<br/><br/> 10분 간격으로 빨리 보내라는 전화가 왔다. 나중에는 원스타인 본부사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마구 욕을 해댔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당장 아이들 보내라 하는 말이었다. 더 이상은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 끝에 여군 부사관들에게 전투복을 입도록 했다. 전투복을 입고 가면 아무래도 사복 차림과는 느낌이 다르니까 접대부 다루듯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br/><br/> <br/> <br/><br/> 피 보훈처장은 당시 이 일로 ‘미운털’이 박혔고, 보직 해임을 당했다. 그는 200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 일이 1998년 대위 시절 겪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 현역 여군 중령 피우진이 털어놓은 군내 여성인권 실태)<br/><br/> 그의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린 2001년 ‘사단장 성희롱 사건’도 책에 담겼다. 당시 한 육군 사단장이 갓 임관한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이때 합참에 근무하던 피 보훈처장이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이다. 그는 사건 경과를 설명하며 “회식 자리에 불려갈 때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순간까지 여군 장교가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할 만한 분위기가 될까”라고 반문하며 “조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모든 집단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엄정한 처리를 하면서 조직 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 <br/><br/> “<span class='quot0'>두 번씩이나 군복을 벗어야 했던 상황, 나를 지켜준 것은 여군 자매들</span>”<br/><br/> 2009년 그는 중령 전역식에서 가수 방미의 ‘날 보러 와요’를 불렀다. 이날 고별사를 보도한 1인 미디어 ‘미디어 몽구’가 공개한 영상(▶피우진 중령 전역식 고별사)을 보면, 30여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정복을 입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있다. 그는 “군인 피우진에서 개인 피우진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마지막으로 전투복을 입었다. 군복 중 유일하게 모든 군인들의 통일된 복장으로, 제가 희망했던 군인의 상징이었기에 이 군복을 입었다”며 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밝혔다. 이어 고 엄옥순 대령, 동기 양혜정 중령, 특전사 전우 박경자 상사 등 함께 했던 여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소규모 다과회로 항공학교 관계자 등 군인 20여명과 민간인 30여명 등이 참석한 조촐한 전역식이었다. <br/><br/>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 두 번씩이나 군복을 벗어야 했던 상황, 암과의 전투,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준 것은 여군 자매들이었고, 형제자매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전역 당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지켜주었던 이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랑했던 군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인권연대를 만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육군 여군이 모체가 되어 각 군 사관학교를 개방하고, 제대로 된 여성 장군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그는 “<span class='quot0'>외로울 땐 나를 보러오세요~ 울적할 때는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밤 잠 못 들 땐 전화를 해요</span>”라는 소절을 부르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br/><br/> <br/><br/> “<span class='quot0'>애국가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르겠다</span>”<br/><br/> 18일 오전 국립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손에 손을 잡고 이 노래를 제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피우진 보훈처장도 함께 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명 소감을 말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냐’는 질문에 “<span class='quot0'>애국가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이날 기념식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취임 일성으로 조직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보훈제도를 뒤돌아보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span>”고 말했다. 군대라는 정글에서 군의 불합리함과 싸웠던 ‘아마조네스’는 이번에도 ‘적폐’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br/><br/> 김지숙 기자 suoop

언론사: 한겨레-2-213.txt

제목: 대장암, 주로 3기에 발견…“조기 치료 위한 정기검진 필요”  
날짜: 201705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17120818001  
ID: 01101001.201705171208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대장암은 대장 주변 림프절에 암이 전이된 3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검사 등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r/><br/>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2015년 252개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1만7355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기 대장암이 전체의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기는 28.6%, 1기는 20.6%, 4기는 14.4%로 나타났다. 대장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1~4기로 분류하는데, 1기와 2기는 대장에만 암이 생긴 경우이며 4기는 간이나 폐,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을 말한다. 심사평가원은 “대장에 생긴 종양이 주변 림프절을 침범한 3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 발견을 위한 내시경 검진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r/><br/>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또 대장암은 남성들이 더 많이 걸려 전체의 59.2%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70대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7.6%), 50대(22.4%), 80살 이상(10.3%)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br/><br/> 252개 병원 가운데 수술 건수 10건 이상 등으로 평가 대상이 된 134개 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는 119개(88.9%)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적정성 평가는 수술 사망률 등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각 병원별로 1~5등급까지 매겨졌다.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 37곳, 경기권 29곳, 경상권 27곳, 전라권 8곳, 충청권 10곳, 강원권 5곳 등이었다. 병원별 평가 등급은 1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 찾아볼 수 있다. <br/><br/> 대장암은 육류 섭취가 많은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서양식 식습관, 노령화 등으로 발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대장암 환자 수는 2002년에 우리나라가 20.3명, 일본 37.9명, 미국 38.9명에서 2012년 각각 45명, 32.2명, 25명을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대장암 환자 수가 줄어든 반면 국내 환자 수는 크게 늘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14.txt

제목: [나는 역사다] 고통의 24년…마침내 ‘유서 대필’ 누명 벗다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15210838001  
ID: 01101001.20170515210838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1991년 5월16일, 검찰의 유서 대필 배후 조작 <br/><br/> <br/><br/> 1991년 4월26일, 강경대가 숨졌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진압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피살. 공권력이 학생을 때려죽인 것이다. 이름만 보아도 마음이 무거운 ‘열사정국’의 시작이었다. 학생들이 분신으로 항의했다.<br/><br/> 5월5일, 김지하가 ‘죽음의 굿판 걷어치우라’라는 칼럼을 쓴다. 죽음에 진영논리를 들이대기 시작. 5월8일, 박홍이 “<span class='quot0'>죽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span>”고 말했다. 같은 날, “운동권이 조직적으로 자살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 공안당국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br/><br/> <br/><br/><br/><br/> 5월8일, 김기설이 목숨을 끊었다. 유서를 남긴 채였다. 그런데 검찰은 유서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다고 주장. 얼마 후 ‘자살의 배후’로 친구 강기훈을 지목했다. 5월16일의 일이었다.<br/><br/> 엉터리 재판과 옥살이.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유서가 강기훈의 글씨라고 감정한 김형영은 얼마 후 돈을 받고 문서를 허위로 감정해준 혐의로 잡혀간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던 자가 최근까지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김기춘이다. 이들과 맞서 강기훈과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랜 싸움을 벌였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5년 5월14일. 암으로 투병 중인 강기훈은 이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br/><br/>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2-215.txt

제목: 컵스 간판 ‘리조’ 소아암 돕기 40억  
날짜: 20170509  
기자: 강성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09185832001  
ID: 01101001.20170509185832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의 간판타자 앤서니 리조(27)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350만 달러(약 40억원)를 기부했다.<br/><br/> 현지 언론들은 9일(한국시각) “컵스의 1루수 리조가 시카고 루리 어린이병원에 35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으로 암 투병중인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2종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등번호 44번을 딴 ‘희망44’(Hope 44) 기금은 소아암 치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앤서니 리조 가족재단’의 ‘어린이 삶’(Child Life) 기금은 치료 과정에서 오는 변화들과 사회적인 편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그는 2012년 암 연구와 암 투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앤서니 리조 가족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2014년부터 3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된 컵스의 간판타자다. 이찬영 기자 lcy100

언론사: 한겨레-2-216.txt

제목: 소득 불평등,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제한으로 풀어야  
날짜: 20170507  
기자: 정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07115901001  
ID: 01101001.20170507115901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올 초 나온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역대 최고치다. 1억2670만원을 넘게 버는 이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0년 9%에서 2005년 11.3%, 2010년 12.7%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 쏠림 현상은 프랑스(8.6%), 스웨덴(8.8%)은 물론 일본(10.5%)보다도 심한 상황이다. <br/><br/>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한겨레>는 대선 정책자문단 2명(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과 노동계 인사 4명(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에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책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수로 매겨보니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br/><br/>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342만명에 이르는 데다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한 정책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7.3% 인상). 해마다 두 자릿수씩 올라야 2020년에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br/><br/> 노광표 소장은 “<span class='quot0'>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저임금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저소득층은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span>”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남신 소장은 “<span class='quot1'>최저임금 1만원은 직장 내 민주주의의 마중물</span>”이라고 소개했다. “임금이 상향 평준화되면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노조에 참여하는 노동자도 늘어나 사업장 내 차별과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이환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지만 “결정권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br/><br/>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등 3자(각 9명씩 27명)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은 고용부가 뽑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박점규 집행위원은 “이번 정권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5년간 동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다단계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r/><br/> ■ 비정규직 ‘입구’ 규제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으로 노동자 3명 중 1명(32.8%)꼴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3.5%)을 겨우 넘긴다.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해법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꼽힌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출산·휴가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간접고용 포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br/><br/>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나 사용 총량제 모두 입구를 틀어막는 정책으로, 출구를 규제한 현행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 집권기인 2007년에 제정된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점규 집행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한국 사회의 암 덩어리가 됐다”며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처가 없으면 정규직이 소수, 비정규직이 다수가 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단계 고용구조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기간제법 도입 10년 만에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가 됐고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출구 규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br/><br/> 노광표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중요한 정책이라는데 동의하지만 “국회 입법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다. 기간제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자유한국당(94석)과 국민의당(40석)이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고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남신 소장도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등 복잡한 쟁점이 많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이들은 유승민 후보가 내놓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사회적 타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선책”(노광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의 대중용 버전”(이남신)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br/><br/> ■ 고용 불안·저임금 원청이 책임져야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약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이 정책에 대해 오민규 실장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는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된 산업·고용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박점규 집행위원도 “가맹점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 모여 노조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임금 협상을 요구하고 다른 알바생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br/><br/> 전문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가장 나쁜 비정규직 고용 형태”(이남신)로 규정하며 “시급히 해결할 과제”(노광표)라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를 229만명으로 추산했는데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인터넷 설치기사, 택배기사 등 그 직종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은주 기자 ejung

언론사: 한겨레-2-217.txt

제목: ‘저질 막말’ 홍준표와 손잡은 ‘바르지 못한’ 의원들  
날짜: 20170502  
기자: 성한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02102826001  
ID: 01101001.20170502102826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보수(保守)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보수는 몇 가지 근본 가치를 지킵니다.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대체로 말과 행동이 느리고 태도는 점잖습니다. 보수는 품위와 품격이 있습니다. 품위와 품격이 없는 보수는 가짜 보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br/> 5·9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막말이 끝없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과 질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 후보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의 막말을 따로 모아 자료로 내놓을 정도로 사례가 많고 내용이 심각합니다. 4월3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보단장 박광온 의원이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br/><br/> <br/><br/> <br/><br/> 국민 얼굴에 먹칠하는 나라 망칠 불량 후보에 대해 얘기하겠다.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귀를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을 폄하하는 홍 후보는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홍준표 후보의 막말과 국민을 폄하하는 언행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유감이다.<br/><br/> 어제도 홍 후보의 유세장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독설과 욕설이 쏟아졌다. 홍 후보가 국회의원 93명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br/><br/> 홍 후보는 “<span class='quot0'>촛불민심이라는 것은 광우병 때처럼 좌파단체가 주동이 돼서 선동한 민중혁명이 아니냐</span>”면서 색깔론으로 덧칠 왜곡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나라사랑 열망을 모독하였다. 또 ‘나는 표 안 나오는데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또 말인가. 홍 후보에게는 자신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지역만 대한민국이고,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는다.<br/><br/>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홍 후보의 저질 막말에 국민들의 귀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대선은 수준 낮은 선거로 돌아가고 있다.<br/><br/> 어제(29일) 하루 동안 홍 후보가 쏟아낸 저질스러운 언어들을 소개한다. 이것은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배포한다.<br/><br/> - <욕설비하>“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br/><br/> - <협박공갈>“전교조가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을 종북좌파 교육시킨다. 대통령이 되면 전교조 용서하지 않겠다.”<br/><br/> - <지역주의 색깔론>“1번하고 3번은 자세히 보면 정당이 하나다. 말하자면 호남 1·2중대다. 1번은 종북좌파다.”<br/><br/> - <적반하장>“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br/><br/> - <공갈협박>“집권하면 경남지사 때 했던 방식대로 이 회사는 반드시 응징하겠다.”<br/><br/> - <촛불민심 왜곡, 국민폄하>“툭하면 촛불민심을 운운하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촛불민심이라는 것은 광우병 때처럼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가 주동이 돼 선동한 민중혁명이 아니냐.”<br/><br/> - <안하무인>“저는 제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br/><br/>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당장 저질 막말 퍼레이드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켜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조차도 없이, 막말과 거짓말로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홍준표 후보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다.<br/><br/> <br/><br/> <br/><br/>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내놓은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박광온 의원이 소개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모두 사실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30일에도 유세장에서 막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br/><br/> <br/><br/>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에서 겁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을 다 한다.”<br/><br/> “우리나라 언론환경, 여론조사가 자기들끼리 짜고 한다. 어떻게 하면 홍준표를 비틀까 한다.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은 얼마 전까지 (내 지지율이) 8%였다. 내가 집권하면 없애버린다고 했다.”<br/><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극도로 나쁘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집행을 정지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걸 안 하는 것은 대선 때문이다. 검찰, 얘들은 문재인 눈치 보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걸 안 해주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손 볼 게 검찰이다.”<br/><br/> <br/><br/> <br/><br/> <br/><br/> 홍준표 후보의 막말은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br/><br/> 첫째, 색깔론입니다. 둘째, 저질 표현입니다.<br/><br/> 먼저 색깔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br/><br/> 홍준표 후보는 좌파 딱지를 여기저기 마구 붙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제목은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선거공보에는 홍준표 후보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지, 홍준표 후보는 누구인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br/><br/> <br/><br/> “좌파 기득권을 혁파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강성 귀족노조, 더 이상 안됩니다.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정치파업 엄단. 노동개혁을 통해 귀족노조의 비정규직 차별 및 세습고용 철폐.”<br/><br/> <br/><br/> 며칠 뒤 투표 안내와 함께 배달된 ‘전단형 선거공보’의 표지 제목은 ‘함께 지킵시다!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책자형 선거공보에 비해 훨씬 얇은 전단형 선거공보에 이런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br/><br/> <br/><br/> “<span class='quot1'>좌파의 공세를 끝끝내 이겨낸 원칙과 소신!</span>”<br/><br/> “<span class='quot1'>좌파세력에 맞서 국익을 지킨 서민의 대표!</span>”<br/><br/> “<span class='quot1'>좌파세력의 공세를 뚫고 통과시킨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혔습니다.</span>”<br/><br/> “<span class='quot1'>좌파정권 10년의 대혼란을 기억하십니까?</span>”<br/><br/>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보수대표 홍준표! 좌파의 독주를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br/><br/> <br/><br/> 며칠 사이에 선거 캠페인의 기조를 ‘좌파와 맞서 싸우는 보수 후보’로 확실히 바꾼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그 지겨운 ‘좌파 타령’으로 치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대선 구도를 ‘좌파 대 우파’로 몰고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홍준표 후보를 잘 아는 자유한국당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br/><br/> 5·9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특별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사유화 및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br/><br/> 만약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보는 아닌 것입니다.<br/><br/>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진짜 목표는 ‘2등’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2등 자리를 내주고 3등으로 전락할 경우 자칫하면 당이 공중분해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 개인적으로도 대선에서 2등을 차지해야 정치적으로 미래가 열립니다.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총재처럼 당권을 차지하거나, 당권이 여의치 않으면 경남지사 3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br/><br/> 확실한 2등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태의연하지만 ‘색깔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선 구도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br/><br/>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30% 정도는 ‘빨갱이’ ‘좌익’ ‘친북’ ‘종북’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은 되지 않더라도 2등은 확실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br/><br/> 홍준표 후보의 색깔론은 ‘전술적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본래부터 극우 이념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검사 시절에도 공안부가 아니라 특수부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br/><br/> 둘째, 저질 표현은 어떨까요?<br/><br/>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인격이요, 인품입니다. 저질 표현이나 욕설을 남발하는 사람의 인품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br/><br/> 홍준표 후보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동료 정치인이나 기자들에게 초면인데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반말을 합니다. 말이 격해지면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짐작컨대 검사 시절 피의자들을 대하면서 몸에 배인 습관인 것 같습니다.<br/><br/>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보다 나이가 적은 야당 정치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반말을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그 야당 정치인이 작심을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반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홍준표 후보가 존대를 했다고 합니다.<br/><br/> 홍준표 후보는 기자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기자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대표 시절 기자에게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라고 해서 구설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는 홍준표 후보가 자꾸 면박을 주자 브리핑 도중에 의자를 걷어차고 항의한 일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 기자에게 사과했습니다.<br/><br/> 물론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인격에 큰 장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습관이나 태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몇 차례 텔레비전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홍준표 후보의 말습관과 태도를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 봤을 것입니다.<br/><br/> 대구·경북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나 고연령층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점잖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1일 밤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도와주면 좌파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사내답게 같이 가자”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개혁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용감하게 나섰던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얄팍한 계산에 의한 비겁한 행동일 뿐입니다. 명분없는 재입당에 ‘사내답게’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홍준표 후보의 언어는 몰염치한 측면이 있습니다.<br/><br/> 더구나 이 자리에는 여성인 박순자 의원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의원을 의식한 홍준표 후보는 “나는 박순자 의원을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지만 농담이라도 이런 말은 동료 정치인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막말입니다.<br/><br/> 이제 대선이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대선판이 마지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까요, 격변으로 이어질까요? 홍준표 후보는 과연 5월 9일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2등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의 호언장담처럼 문재인 후보를 꺾고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br/><br/> 성한용 선임기자 shy99

언론사: 한겨레-2-218.txt

제목: [영상] 유세하던 홍준표, 거침없이 욕설 “에라이 도둑놈…”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501142817001  
ID: 01101001.20170501142817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경남 김해에서 유세하던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br/><br/>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수로왕릉 인근에서 유세하던 도중 자신이 경남도지사에서 퇴임할 때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금을 뿌린 퍼포먼스를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격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br/><br/> <br/><br/> 홍 후보는 “<span class='quot0'>제가 고향에 와서 좌파들한테 참 많이 당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살 거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찌였던 것을 1등 시켜주고 나왔는데 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span>”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span class='quot0'>에라이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야</span>”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br/><br/> 그는 이어 “저는 제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 내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빠지지 않는다.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br/><br/> 앞서 지난달 10일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길에 심야 꼼수 사퇴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부터 소금 세례를 받은 바 있다. <br/><br/> <br/><br/> 강민진 기자 mjkang

언론사: 한겨레-2-219.txt

제목: 심상정 “홍준표와 말 섞지 않으려 했는데…”  
날짜: 20170428  
기자: 김태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8211853001  
ID: 01101001.20170428211853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28일 열린 5차 TV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span class='quot0'>자유한국당은 담배세 감세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span>”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br/><br/> 이날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심 후보를 지목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서민들을 위해 담배세를 인하하고,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 동의하시느냐”고 질문했다. 토론회에서 홍 후보와 심 후보간의 질의는 이 때가 처음이었다. 그러자 심 후보는 “<span class='quot0'>홍 후보와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토론의 룰은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오늘은 토론에 임하려고 한다</span>”며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담배세 인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과해라. 담배세는 누가 인상했나? 그 당에서 인상했다”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또 “원래 담배세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끊도록 하려던 것인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인상하도록 꼼수를 썼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고, 감세를 얘기할 자격이 되느냐”고 몰아붙였다.<br/><br/> 홍 후보는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었다. 나도 심 후보랑 이야기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br/><br/> 심 후보는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집권했을 때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려고 인상하고, 선거 때가 되니 표를 얻으려고 한다. 저는 담배세 인상분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무상으로 하고, 각종 암 치료 100% 국가 책임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는 인하가 필요하면 보조금으로 하면 된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 서민들의 표 얻으려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은 그만둬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모든 게 배배 꼬여가지고”라며 심 후보를 비방했다.<br/><br/> 정유경 기자 edge

언론사: 한겨레-2-220.txt

제목: 12년째 ‘사랑’ 이번엔 가습기·세월호·파양…  
날짜: 20170427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7203823001  
ID: 01101001.2017042720382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평생 갈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진 것 같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딸 꼭 찾아야 해요….”<br/><br/> 그럴 줄 알았다. “무조건 엄마 편”이라던 딸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어느덧 3년.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아이는 아직 엄마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단원고 2학년 조은화양 엄마와 허다윤양 엄마는 통한의 바다를 마주한 채 세 번째 봄을 맞았다. “<span class='quot0'>나도 보고 싶지만, 우리 딸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것</span>”이라던 다윤 엄마의 눈에 또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br/><br/> 그 3년의 기다림을 <휴먼다큐 사랑>(문화방송)이 22일 밤 11시10분에 전한다. 가족의 사랑을 담는 다큐멘터리로, 8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방송한다. 2006년부터 12년째 5월마다 찾아오는 ‘사랑’이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 등 해마다 주제를 잡아 지금까지 40여 가족을 소개했다. 올해는 억울한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미수습, 가습기 피해 등 사회적 현안이 절절한 사랑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미국에서 40년 살았지만 추방 위기에 처한 입양인 <나의 이름은 신성혁>(2부작. 8일·15일), 세월호 미수습자 <두 엄마 이야기>(2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성준이와 산소통>(29일)을 차례로 내보낸다. 이지은 피디는 27일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 희로애락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파양,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가족간의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br/><br/> <휴먼다큐 사랑>은 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등 제작진도 시청자도 늘 힘겨운 순간과 마주해왔다. 견디기 힘든 슬픔으로 촬영을 중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는 주인공들의 답답한 사연에 특히 더 힘들었다고 한다. 이지은 피디는 “인터뷰할 때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울어서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고 일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런 제작진의 진심이 가족의 마음을 녹인 걸까. 이 피디는 “<span class='quot1'>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촬영에) 응해주실까 걱정했는데, 두 어머니께서 마음만 온전히 담아달라고 부탁하셨다</span>”고 말했다. <휴먼다큐 사랑>은 보통 1년 넘게 촬영하는데 가족의 마음을 여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한다. 제작진도 가족도 진심으로 만나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br/><br/> <휴먼다큐 사랑>은 어느덧 대표적인 가족 다큐멘터리가 됐다. 초창기 죽음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가족 이야기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갈수록 슬픔을 단지 무겁게만 담아내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오며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힘을 얘기하게 됐다. 홍상훈 콘텐츠제작국 국장은 “<span class='quot2'>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사랑</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휴먼다큐 사랑>이 12년간 이어져온 것이 뿌듯하다</span>”고 말했다.<br/><br/> 남지은 기자

언론사: 한겨레-2-221.txt

제목: 정현, 세계 31위 잡았다  
날짜: 20170427  
기자: 김경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7101806001  
ID: 01101001.20170427101806001  
카테고리: 스포츠>월드컵  
본문: 한국 남자테니스의 희망 정현(21·세계 94위)이 세계적 강호들을 연파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정규 투어 16강에 올랐다.<br/><br/> 정현은 26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오픈(총상금 232만4905유로) 단식 2회전에서 세계 31위 필리프 콜슈라이버(독일)를 상대로 1시간9분 만에 2-0(6:3/6:4) 완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콜슈라이버는 정현이 지금까지 이겨본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다. 만 34살 베테랑으로 2012년 세계 16위까지 올랐던 강호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정현이 이긴 상대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았던 선수는 지난해 2월 정규투어 에이비엔(ABN) 암로 월드 토너먼트 단식 1회전에서 만났던 기예르모 가르시아 로페스(스페인)로 당시 세게 34위였다.<br/><br/> 정현의 3회전 상대는 세계 21위 알렉산더 즈베레프(20·독일). 정현보다 어리지만 이미 정규 투어 대회에서 두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는 강호다. 1m98로 정현보다 무려 13㎝나 크다. 둘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 이번 바르셀로나오픈은 세계 1위 앤디 머리(1위·영국), 5위 라파엘 나달(스페인) 등 세계적인 강호들이 출전하고 있다. 특히 정현과 나달이 16강에서 나란히 승리하면 8강전에서 만나게 된다. <br/><br/>김경무 선임기자 kkm100

언론사: 한겨레-2-222.txt

제목: “잠 깨자마자 흡연, 머리·목 쪽에 암 걸릴 위험 높아”  
날짜: 2017042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6215840001  
ID: 01101001.2017042621584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흡연자 가운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머리 쪽에 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r/><br/> 이세영(이비인후과) 중앙대병원 두경부종양클리닉 교수는 “<span class='quot0'>머리와 목 쪽에 생긴 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80~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머리와 목 쪽에 생긴 암 10건 가운데 9건 정도가 음주와 흡연이 주요 원인이고, 특히 아침 흡연은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의대 연구팀이 2011년 <미국암학회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 30분 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시간 이후에 피우는 사람보다 머리와 목 쪽에 암이 생길 위험이 59%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에서 깨어나 바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0분 이상 지난 뒤에 피우는 사람보다 몸 속 니코틴 수치가 더 높았다. 즉 기상 직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아 담배 연기를 많이 그리고 깊이 마시고 그 결과 담배에 든 독소를 더 많이 흡입하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침에 눈뜨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흡연자들은 두경부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입속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 머리와 목 쪽에 생긴 암인 두경부암은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처음 두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3명 가운데 2명 가량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 변화가 계속되고, 입안 염증이나 혓바늘이라고 하는 궤양이 지속될 경우 두경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혀 있거나, 피가 섞인 콧물이 동반되는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마찬가지</span>”라고 설명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23.txt

제목: 일본 부흥상 “대지진, 도호쿠서 일어나 다행” 망언했다가 사임  
날짜: 20170426  
기자: 조기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6171823001  
ID: 01101001.20170426171823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지진과 재해 피해 복구를 담당하는 일본 부흥상이 동일본대지진이 “<span class='quot0'>도호쿠(동북) 지방에서 일어나 다행</span>”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후임으로 후쿠시마 출신을 임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br/><br/> 아베 총리는 26일 “<span class='quot1'>이마무라 마사히로 부흥상의 사표를 수리했다</span>”며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후임으로 후쿠시마에 지역구가 있는 6선 의원 요시노 마사요시(68)를 임명했다. <br/><br/> 앞서 이마무라 부흥상은 25일 자민당 내 파벌인 니카이파 파티에서 연설을 하면서, “(동일본대지진은) 사망자가 1만5893명, 사회자본 훼손은 25조엔에 이른다. 도호쿠라서 다행이었다.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막대하고 심대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발언 취지를 묻자 “<span class='quot2'>수도권에 가까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했을 것</span>”이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이마무라 부흥상은 지난 4일에도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스스로 피난길에 오른 ‘자주 피난민’에 대해서 “본인 책임”, “<span class='quot3'>재판이든 뭐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span>”라는 막말을 했다.<br/><br/> 지난달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지지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각료들과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실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권 핵심부가 ‘아베 1강’ 분위기에 취해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야마모토 고조 지방창생담당상이 문화재 보전 업무를 하는 학예사를 “암”이라고 부르며 “쓸어버려야 한다”는 폭언을 했고,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오키나와현 시장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사기와 같은 오키나와 특유의 전술”이라고 했다.<br/><br/> 아베 정권은 문제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감싸왔으나 이마무라 부흥상의 발언은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span class='quot4'>이마무라 부흥상 발언은 후쿠시마현과 도호쿠 지방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span>”고 비판했다.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조차 “정말로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진당은 이마무라 부흥상 발언에 항의해 26일 참의원 본회의 참가를 거부했고, 자민당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참의원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br/><br/>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

언론사: 한겨레-2-224.txt

제목: ‘복어독’ 든 무허가 약 암환자에게 판 업자  
날짜: 2017042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6105837002  
ID: 01101001.20170426105837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복어독은 테트로도톡신으로 독성이 청산가리(청산나트륨)의 1천배에 달하며, 주로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다. <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어독은 맹독성 신경 물질로, 성인에게는 0.5㎎이 치사량이다. 식약처의 설명을 보면 이 업자는 2012년 12월~2016년 6월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열어 복어환이 모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 환자 등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 업자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ｇ)당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0.0351㎎ 검출됐는데, 이에 따라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자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25.txt

제목: 민원 많은 금융회사에 배상금 물린다  
날짜: 20170424  
기자: 이춘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4165910002  
ID: 01101001.20170424165910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민원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제도와 약관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br/><br/> 금감원은 논란이 될 만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가입 전 질병 면책 관련 약관, 복수 장해의 장해율 합산 가능 여부, 운전자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 암 진단 주체 등 10가지가 해당된다. 또 부부형 보험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용 가능성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와 관행도 손질하기로 했다. <br/><br/> 금감원은 민원과 분쟁이 많은 금융회사에 금전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민원·분쟁유발 건수를 분담금 산출항목에 포함해 개별회사의 감독분담금을 산출하는 식이다. 지금도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검사인력이 집중 투입된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을 더 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관련 의료분쟁 대책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의 제3 의료기관이 중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원이 급증하는 회사를 밀착 관리하는 소비자보호 전담관리자(CRM)를 두기로 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br/><br/> 금감원은 지난해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한 이후 민원처리 기간이 8.3일 단축되고, 민원 보유 건수도 6738건에서 3707건으로 4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15년 월평균 204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줄었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015년 3105억원에서 지난해 348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br/><br/> 이춘재 기자 cjlee

언론사: 한겨레-2-226.txt

제목: 백두산 호랑이 ‘금강’은 왜 죽었나  
날짜: 20170421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1205827001  
ID: 01101001.2017042120582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백두산 호랑이 ‘금강’은 지난 2월3일 오후 4시20분 숨을 멈췄다. 금강은 2005년 6월23일 중국 호림원(호랑이 번식·보호 자연공원)에서 태어난 수컷이다.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이 돼 암컷인 금송(2004년생)과 함께 2011년 10월26일 한국 땅을 밟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호랑이 숲에 살림을 차릴 계획이었다. 두 호랑이는 수목원이 만들어지는 동안 대전오월드의 임시 거처에 살며 2015년 미호를 낳았다. 그러나 이 호랑이 가족의 삶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2015년 금송이 자궁축농증, 2016년 미호가 암으로 각각 숨진 데 이어 금강도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으로 폐사했다. 금강의 마지막 9일을 추적했다.<br/><br/> ■ 이송에서 폐사까지 금강은 지난 1월25일 대전오월드에서 마취돼 이송용 케이지에 갇혀 무진동차량에 실렸다. 250여㎞를 달려 이날 오후 새집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에 도착했다. 금강은 웅크린 자세로 몸을 떨었다. 모두들 환경이 낯설어 긴장한 탓이라고 여겼다. 다음날(1월26일) 먹이로 준 소고기와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대전오월드에서 혈액요소질소(BUN)와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치보다 크게 높다는 혈액 분석 결과를 알려왔다. 전해질 제제를 탄 물을 주었다. 27일 발을 뻗는 자세를 보여 적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br/><br/> 그러나 금강은 이날도 우리 안에 웅크린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먹이도 먹지 않았다. 28일 처음으로 소고기 500g을 먹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였다. 29일에도 호전될 기미는 없었다. 30일 평소 잘 먹던 소간을 다음날 우리에 넣어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2월1일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서울동물원, 경북대 수의대에 진료 자문을 요청했다. 2일에는 탈수가 심하고 쇼크 증세를 보여 마취한 뒤 수액 3ℓ를 투여했다. 3일 전문가들이 치료 방법이 없고 위중하다고 판정했고 이날 오후 4시20분 금강이 숨을 멈췄다. 4일 경북대 수의대 부검 1차 소견은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이 사망 원인이었다. 현재 금강은 박제를 하려고 백두대간수목원 동물사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br/><br/> ■ 무리한 계획이 빚은 비극 산림청 백두대간수목원은 부검 의견서와 전문가 진료 자문서 등을 근거로 금강이 평소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고 증세가 악화돼 요독증으로 폐사했다고 결론냈다. 신부전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몸속에 대사물질인 암모니아가 쌓이거나 산-염기 균형이 맞지 않아 발병한다. 그러나 금강이 신장이 좋지 않았지만 만성은 아니라는 반론과 이송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br/><br/> 대전오월드 쪽은 “금강의 이송을 통보받은 건 1월16~17일께다. 25일 이송 직전 채취한 혈액을 분석했더니 신장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 백두대간수목원에 이를 알렸다. 금강에게 구토, 체중 감소 등 만성신부전 증세는 없었고 혈액의 칼륨 수치 등도 정상이었다. 급성신부전은 초기에 치료하면 확산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 적절한 의료 장비를 갖추지 못해 치료를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수목원이 의약품 117종을 구입한 날은 이송 이틀 전인 1월23일이었다. 원심분리기, 혈구계수기는 갖췄으나 흡입마취기, 내시경, 초음파, 세균배양기 등 의료 장비는 아직도 없다. 수목원 쪽은 “경북대 수의과대 등과 협업 체계를 갖춰 의료 장비가 없어 치료를 못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br/><br/> 산림청은 호랑이 이송계획을 옮기기 나흘 전인 1월19일에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송용 케이지를 이송 하루 전에야 우리에 넣어 금강의 불안감을 키웠다. 한 수의사는 “<span class='quot0'>동물을 옮기는데 마취하는 방식은 위험하고, 동물의 경계심을 풀어주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우리에 케이지를 넣어 들락거릴 정도는 돼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이 수의사는 “<span class='quot1'>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설 연휴 직전에 금강을 이송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span>”고 덧붙였다.<br/><br/> 산림청은 산하 수목원을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하고 지난 2월7일 이를 전담할 수목원 조성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이 사업단의 뼈대는 명퇴한 산림청 공무원들이다. 사업단 발족에 앞서 호랑이의 소속을 산림청에서 수목원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송을 서두른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된다.<br/><br/> ■ 무분별한 호랑이 도입 수의학자 등 동물전문가들은 금강 일가족의 비극이 무분별한 호랑이 도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금강과 금송이 태어난 중국 호림원에서 국내에 온 호랑이는 1994년 백두·천지, 2005년 두만·압록 등 모두 암수 6마리다. 이 가운데 현재 살아 있는 호랑이는 두만이뿐이다. 호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호림원 태생은 국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동물원의 수의사는 “<span class='quot2'>호랑이를 선호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호랑이든 보유하고 번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태생을 가리지 않는 잘못을 했다</span>”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문제를 알지만 그동안 한·중 국가 지도자들이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호랑이를 주고받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앞으로는 호림원 호랑이를 반입하지 않고 정식 등록된 시베리아 호랑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 봉화/송인걸 기자 igsong

언론사: 한겨레-2-227.txt

제목: [정희진의 어떤 메모] 러브리스 모성, 러브리스 섹스  
날짜: 2017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1203848002  
ID: 01101001.20170421203848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어머니를 떠나기에 좋은 나이>, 이수경 지음, 강, 2017<br/><br/> “<span class='quot0'>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span>”(앨프리드 디수자) 지난주 이 문구를 ‘호남’과 ‘민주당’의 관계에 적용, 분석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썼었다. 며칠 후 이수경의 작품에서 다시 마주쳤다. “…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 번 상처받은 것처럼 사랑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여러 번 상처받는 것처럼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244쪽) 정말, 어떤 것일까?<br/><br/> 소설가 이수경의 <어머니를 떠나기에 좋은 나이>(표제작)를 보고 “떠나보내기에”로 잘못 읽었다. 내가 엄마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 한순간도 설정하지 않은 삶이다. 엄마는 6년 전에 죽었지만 나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는 그녀의 의중을 살핀다. “엄마,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심장이 뛸 때마다 보고 싶어요.”<br/><br/> 이 책은 여덟 편의 빼어난 단편들이 서로 기대고 있는 제18회 무영(無影)문학상 수상작이다. 작품을 읽고 한동안 마음의 난(亂)을 겪은 나는 여전히 어지럽다.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이병훈의 능력을 빌린다. 그는 이수경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렇게 썼다. “<span class='quot0'>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은데, 안 괜찮은 인생.</span>” 이에 더해 작가의 문체는 내 비록 과독(寡讀)이지만, 자주 접하지 못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단정하다 못해 ‘정숙’한 지경에, 깊은 상흔이 어른거리는데 따뜻하다. <br/><br/>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내가 행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 같다.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자 소설집 전체의 원형(原形)을 이루는 ‘가위바위보’의 ‘나’처럼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듬는다. 내 인생을 잘라버린 날카로운 가위와 바로 눈앞에서 굴러오는 운명의 바위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상처받은 사람과 같이 덮을 수 있는 포대기(보, 褓)를 놓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다. “그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눈물 때문에 내 눈에 어리는 달은 자꾸만 기울고 있는데.”(35쪽) <br/><br/> 나는 표제작의 일격으로 주저앉았다. 작품의 외양은 “맹렬하고 사나운 정사” 꿈꾸었으나 어머니의 다락에 갇힌 마흔아홉의 여자와 “내가 연하라서 많이 놀라셨습니까”라고 말하는 여섯 살 아래의 남자 마이클의 이야기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러 휴가를 내고 미국에서 날아왔다. <br/><br/> “… 안전하고, 반듯하고, 항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고, 원칙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이라고 세뇌시킨 어머니를 완전하게 배반할 수만 있다면… (중략) 나머지는 다 죄악이라고 강박관념을 심어준 어머니를 내 안에서 온전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러브리스 섹스인들 못하겠는가. 러브리스 모성도 있는데 그까짓 러브리스 섹스가 무슨 대수겠는가.”(254쪽) <br/><br/> 러브리스 모성, 러브리스 섹스. 섹스는 모르겠고, 모성은 여성의 성역할이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다. 내 처지가 작품과 같지는 않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분리통치 당한 모녀의 상투적인 이야기다. 내가 어떻게 1938년생 여자(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있었겠는가. 다만 나는 착한 척함으로써 앞서 태어난 여자들을 제치고 ‘앞서가는’ 죄의식을 씻으려고 했다.<br/><br/> 엄마는 내가 공부(언어)에 욕망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고, 동시에 자기처럼 포기할까봐 불만이었다. 죽을 때까지 딸에게 ‘이중 메시지’ 던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녀의 무거운 몸을 어깨에 짊어지고 울며불며 사막을 헤매고 싶지 않다. 어차피 딸은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를 조종하려다가 실패한 ‘어머니’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br/><br/> 작가처럼 암 4기 진단을 받았던 사람, 호텔 미니바의 맥주를 못 마시는 사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이클’을 기다리는 사람, 밤에 전화할 곳이 없는 사람, 취약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들에게 읽기를 권한다. 위로란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임을 배울 수 있다.<br/><br/> 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한겨레-2-228.txt

제목: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상승  
날짜: 201704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0120838001  
ID: 01101001.201704201208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환자는 20만원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br/><br/>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77.7%와 견줘보면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내 주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5개를 포함해 전국 182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6~12월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이뤄졌다. <br/><br/> 조사 결과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백혈병·췌장암·에이즈·뇌성마비 등 상위 30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7.9%로 이전해의 77.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이전 해의 63.2%에 견줘 0.2%포인트 올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장률은 61.8%로 전체보다는 낮았지만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도 2014년의 60.5%에 견줘 2015년에 1.3%포인트 올랐다. <br/><br/> 환자가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에서 2015년 16.5%로 낮아졌지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2015년 기준 20.1%로 이전 해의 19.7%보다 상승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이 50~80%인 선별급여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특실료) 등과 같은 비급여 부담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올랐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설명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29.txt

제목: ‘과잉진단 논란’ 갑상선암 수술 환자 5년 사이 42% ↓  
날짜: 201704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20112843002  
ID: 01101001.2017042011284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의 경우 초음파 검사로 비교적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는데, 이 검진이 과다하게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수술 건수가 줄었다는 추정이 나온다. <br/><br/>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2016년 갑상선암 및 갑상선 수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갑상선암 수술 환자 수는 2012년 4만1306명에서 2016년에는 2만3832명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5년 사이에 42.3%나 감소한 것이다. 그 사이 수술 환자 수를 보면 2013년에는 4만124명으로 2012년과 비슷했다가 2014년에는 3만180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14년 3월부터 의료계에서 갑상선 과잉진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생긴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2015년에는 수술 환자 수가 2만2321명으로 내려 앉았다. <br/><br/> 우리나라는 원전사고나 자연재해 같이 갑상선암 발생을 크게 상승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갑상선암이 증가해 과잉진단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국내 갑상선암 환자 수는 1999년 3325명에 불과했다가 2003년 7538명, 2007년 2만1262명, 2010년 3만6687명, 2012년 4만4494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의대 교수 등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검진이 일어나 불필요한 수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r/><br/> 갑상선암은 대부분의 경우 암이라고 할 수 없을만큼 생존율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4년 암 등록통계자료를 보면 갑상선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00.2%로 100%를 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암 가운데 가장 높았다. 5년 상대생존율이 100%가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일반 인구보다 생존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30.txt

제목: 암 유발 의심 익산 비료공장에 폐쇄 명령  
날짜: 20170419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19144857001  
ID: 01101001.20170419144857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전북 익산시 한 비료공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br/><br/> 전북도는 익산시가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관내 ㄱ업체의 대기배출시설(포장·저장·건조)에 대한 폐쇄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폐쇄가 이뤄질 예정이다. 폐쇄명령 조치를 한 것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후속조처다. 연구원 검사에선 대기배출시설에서 니켈(Ni)이 0.047㎎/㎥이 검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특정유해물질인 니켈의 농도가 적용기준 0.01㎎/㎥을 넘지 않아야 한다.<br/><br/> 앞서 익산시는 이 업체에 대해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업체는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공기조절장치를 임의로 설치해 공기가 악취와 많이 섞이도록 해 단속망을 피해왔다. 제대로 된 자연상태로 대기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br/><br/> 해당업체는 익산시의 조업정지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명령처분취소 가처분이 인용됐고 1심 본안소송 중이다. 해당업체는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대한 소송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br/><br/> 해당업체와 600ｍ 가량 떨어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주민 19명한테서 암이 발병해 10명이 사망했고 9명이 투병 중이다. 올해 마을 주민들이 암발병 문제를 제기하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이 마을 수질·대기·토양 검사를 벌였다. 대기 검사에서 니켈이 일부 검출되고, 수질·토양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br/><br/> 주민대책위는 지난 17일 환경부를 방문해 불안과 공포속에 나날을 보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달라며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근처 비료공장의 악취와 폐수방류로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유해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석환 대책위 간사는 “<span class='quot0'>중앙차원의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피해와의 직접 연관성을 밝혀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전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환경부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검토한 뒤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학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1~3개월 사이에 추진여부를 결정한다.<br/><br/> 박임근 기자 pik007

언론사: 한겨레-2-231.txt

제목: [김동춘 칼럼] 촛불이 가니 이익집단들이 오네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18183810001  
ID: 01101001.20170418183810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김동춘<br/><br/> 아직 선거운동 초반기인데 강력한 이익집단들은 벌써 대선 후 한국의 미래 세력으로 등장한 것 같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따지고 보면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해 삼성 등 4대 재벌의 민원처리 기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닌가?<br/><br/>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립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span class='quot0'>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span>”라고 발언한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언론이 단설을 ‘병설’로 잘못 보도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그의 계속되는 발언을 들어보니 “<span class='quot0'>단설 유치원을 지을 때 … 주위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를 살펴야 한다</span>”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입장을 달리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공공보육을 더 확충해서 젊은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br/><br/>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소신인 것 같다. 그의 ‘규제 프리 존’ 정책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다를까? 문재인 측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철회한 것을 보면 재벌 대기업의 입김이 깊이 들어간 것 같다.<br/><br/> 아직 선거운동 초반기인데 강력한 이익집단들은 벌써 대선 후 한국의 미래 세력으로 등장한 것 같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따지고 보면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해 삼성 등 4대 재벌의 민원처리 기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닌가? 재벌 기업, 민간병원, 보험회사,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각종 전문직 협회 등 우리 사회의 막강한 이익집단은 그 재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 검찰과 사법부, 여야 정치인들을 움직여 그 어떤 개혁안이라도 좌절시킬 힘을 갖고 있다.<br/><br/> 지난번 특검의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조사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94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한다. 아마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들의 이해관계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br/><br/> 이들 거대 이익집단의 목표는 명확하다. 교육, 주택, 의료 부문을 “가급적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를 동원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공공부문이 민영화되거나, 공공부문 확대가 계속 저지되어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문턱에 있으나 사회의 모든 지표는 아직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과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두 영역에서 한국은 공공부문이 가장 취약한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시장의존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유치원과 대학에서 교육비를 거의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임대주택의 비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 수준이기 때문에 주거는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다.<br/><br/> 강력한 이익집단들은 공공 지출에 극히 적대적이다. 그들은 보수 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해서 규제 완화와 시장의 효율성을 퍼뜨리고, 대형 로펌에 포진한 전직 고위관료와 판검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한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합법적 영향력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불법 로비와 정경유착은 반칙이다. 그런데 심각한 반칙을 한 전경련이 자진 해산을 거부했다.<br/><br/> 이제 촛불이 꺼져가니 그들이 온다. 아니 그들은 이미 모든 곳에 깊이 들어와 있다.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확고한 철학과 비전, 정치력,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없으면, 이들의 집요한 로비와 선전에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초기 삼성의 로비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좌우했는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재벌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 대형 로펌에 맞설 수 있는 법률가 단체, 그리고 정권과 이들의 유착을 고발하고 국민 다수 요구를 제출할 시민사회단체가 더 절실히 요청된다.<br/><br/> 지금 대선 국면의 모든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 편이며, 자신이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뜻과 의지를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되지 않은’ 국민은 조직된 이익집단을 당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위에 또다시 섰다. <br/><br/>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 연구원장

언론사: 한겨레-2-232.txt

제목: 폐암은 흡연 남성의 암? 여성이 전체의 30% 차지  
날짜: 201704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17142908002  
ID: 01101001.20170417142908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흡연자 비율이 높은 남성이 많이 걸리지만, 여성 환자도 적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br/><br/>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한해 폐암 진료 총 1만350건을 분석한 ‘2016년(제3차)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69.7%를 차지해 여성(30.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심사평가원의 최근 의료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는 2016년 총 2만7884명으로 2010년의 1만6806명에 견줘 1.7배로 늘었으며, 같은 해 전체 폐암 환자 7만9729명 가운데 약 35%가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이라고 해서 폐암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은 낮은 편이어서, 여성 폐암 원인은 간접흡연을 비롯해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br/><br/> 나이대별로는 6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33%), 50대(20.2%), 80살 이상(6.3%) 순이었다.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었다. <br/><br/> 폐암은 이미 많이 진행됐을 때 발견되는 대표적인 암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 분석에서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폐암은 크게 2종류로 구분하는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가장 많이 진행된 4기에 발견된 비율이 전체의 43.7%였고, 비소세포폐암보다 암 세포의 증식이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은 소세포폐암의 경우 70.3%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김선동 심사평가원 평가2실장은 “<span class='quot0'>폐암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span>”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br/><br/> 이번 평가에서는 또 국내 종합병원 이상 진료기관의 폐암 진료 수준은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42곳과 종합병원 47곳 등 89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이 가운데 80개 기관(89.9%)이 1등급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가 1등급이었고, 종합병원 중에는 1등급이 38곳, 3등급이 2곳, 4등급이 4곳, 5등급이 3곳이었다. 각 병원들의 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33.txt

제목: 책임지지 못할 거면 징병하지 마라  
날짜: 2017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14211909001  
ID: 01101001.20170414211909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억울하다”는 우리말은 영어로 직역이 안 된다. 한영사전에선 ‘부당하다’(unfair) ‘무고하다’(innocent) 같은 말로 풀이해놨지만, 이런 단어론 억울한 사람의 복받치는 설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응당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고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받을 때, 죄지은 자가 오히려 떵떵거리고 으스댈 때, 사람들은 억울함에 억장이 막힌다. <br/><br/>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매를 들어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은 늘 사회적 약자들이다. 법과 제도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도구가 될 때 억울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양산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돈 없고 힘없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쓰디쓴 자조(自嘲)의 표현이다. <br/><br/> 그러나 억울함에는, 호락호락 포기하지 않는 결기가 담겨 있다. 역사상 모든 민란은 억울한 자들의 집단행동이었다. 심판받아야 할 자가 심판자가 되고, 위로받아야 할 이가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부당함, 그 전도된 현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억울한 사람들의 가슴에 차고 넘쳐, 하나둘 서로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반응할 때 개인적 설움과 분노는 사회적 공분이 되고 감동적인 연대가 되고 불의를 거부하는 의거가 된다. <br/><br/> 고상만(47)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한다. 그에겐 특별한 직함이나 소속단체도 없다. 인권운동단체 간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국회 보좌관 등으로 두루 일한 경력을 토대로 2014년부터 2년간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란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올 2월엔 같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br/><br/> 요즘 그는 연극을 준비한다. <이등병의 엄마>란 제목으로 직접 연극 대본을 쓰고 지난 3월23일엔 제작발표회도 열었다. 이날 제작발표회장 분위기는 여느 공연과 달랐다. 행사장 앞줄에서 숨죽인 오열과 탄식을 토해내는 이들은, 군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 유가족들이었다. 고상만은 유족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연극을 만들 거라고 했다. 이들은 연극을 통해서 어떤 얘길 전하고 싶은 걸까? <br/><br/> <br/><br/> 이등병의 엄마들, 무대에 서는 이유<br/><br/> 지난 3일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서 고상만을 만났다. 텅 빈 복도에 우리 일행의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처럼 퍼져서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창밖엔 한껏 부푼 목련 꽃망울이 봄볕에 곧 터질 듯한데, 그늘진 실내는 시간이 멈춘 듯 적요했다. 납골당 102호실, 양쪽 벽면 가득 천정까지 이어진 유리 격자 사이에 그가 찾는 위패가 있었다. <br/><br/> “이 친구가 과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리더십 있는 친구였어요. 입대할 때도 친구들이 다 따라가 배웅할 정도로요.”<br/><br/> 2014년 윤 일병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청년 윤승주가 안치된 곳. 그의 작은 영정 앞, 약력도 간소했다. ‘1993. 6.13. 서울 출생 2014. 4.7. 경기 의정부 순직. 2012년 전남과학대학’.<br/><br/>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청년 윤승주는 육군 28사단에 배치된 지 한 달 만에 죽었다. 거의 매일 이어진 체벌과 무차별 구타, 집단따돌림 속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죽어갔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개처럼 핥게 하고, 치약 한 통을 먹게 하고,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발라 놀림감으로 삼을 때도 윤 일병이 호소할 곳은 없었다. <br/><br/>군 의문사 조사관 거쳐 팟캐스트 진행 5월엔 <이등병의 엄마> 연극 무대 올려 500여명의 군 사고 유족 만나보고그분들 얘기 중 공통적인 걸 엮어내한 회 공연마다 유족 세 명씩 출연<br/><br/> 참여정부 만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MB정부, ‘예산낭비’ 이유 내세워 해체 접수된 600건 중 절반은 손도 못 대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요? 군에서 죽으면 국가 부담 커야 해요”<br/><br/> “비좁은 닭장 같은 데 동물들을 놔두면 스트레스가 쌓인 닭들이 그중에서 제일 여리고 약한 애를 밥도 못 먹게 괴롭혀서 도태시키거든요. 군대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착해서. 착하니까 당한 거죠. 사건이 나고 달려간 부모들한텐, 군에서 수사 중이라고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음식 먹다가 질식사해서 죽은’ 걸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br/><br/> 윤 일병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려던 기도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청년 윤승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군 인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span class='quot0'>많은 장병이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과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근무하고 있는데 ‘작은 것’을 가지고 문제시해선 안 된다</span>”고 말했다. <br/><br/> -연극은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건가요?<br/><br/>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500여명의 군 사망사고 유족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 가운데 공통적인 걸 엮었어요. 자살로 인정하고 조용히 장례 치르면 ‘순직’ 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그 뒤론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연락해도 받지를 않고.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깨닫고 가족끼리 서로를 원망하고 증오해요. 한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br/><br/> -연극 제목이 왜 <이등병의 엄마>지요?<br/><br/> “유족들이 자식을 잃은 사연은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들 둔 가정이면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곤 다 이등병의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얘길 하고 싶었어요.”<br/><br/> -연극해 본 적 있으세요?<br/><br/> “아뇨.”<br/><br/> -대본을 써 본 적은?<br/><br/> “처음이에요.”<br/><br/> -유족들도 연극에 직접 출연하신다면서요.<br/><br/> “<span class='quot1'>지난번 모임에 서른 명 정도 모이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연극을 본 적 없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span>”<br/><br/> -유족들이 연극 무대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하진 않던가요?<br/><br/> “연극은 생소하지만 아들 얘기를 직접 할 수 있단 생각에 오히려 ‘설렌다!’고들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미친 사람 취급하고 도망가는 걸 보고 엉엉 울었다는 엄마도 있고, 가족들이 힘들어해서 집에서도 소리 내서 울지 못했다는 엄마도 계세요. 그분들이 무대에 올라 아들 돌 사진, 소풍 때 사진,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살아생전의 아들 얘길 하실 거예요.”<br/><br/> <이등병의 엄마>의 주요 배역은 전문배우들이 맡지만, 5월19일부터 28일까지 한 회 공연에 세 명씩 돌아가며 자식을 잃은 유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박장렬 감독(전 서울연극협회장)도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작위적 연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연기의 완성도가 아니라, 유족의 진정성과 관객의 공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br/><br/> <br/><br/> 군대 내 자살이 부모 때문이라고? <br/><br/> -윤 일병처럼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도 있지만, 연간 150여명의 군 사망자 가운데 100명가량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자살사고 가운데 의문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br/><br/> “국방부에선 공식적으로 ‘의문사’를 부정합니다. 의문사는 없다고 하죠.”<br/><br/> -그러면 선생님은 ‘군 의문사’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시죠?<br/><br/> “간단합니다. 군 수사기관이 결론을 냈는데 그것을 유족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으면 의문사예요. 합당한 의문점이 있으면 의문사죠. 그걸 속 시원히 규명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어요. 국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훌륭한 현역자원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그 청년들이 군에서 죽었다면 둘 중의 하납니다. 징병을 잘못한 거거나 관리를 잘못한 것. 의무복무로 간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부모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녜요? 우리가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형수도,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죽으면 큰일 나요. 교도소 다 처벌받고 징계받습니다. 근데 군에서 군인이 자살하면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아요. 부대관리 훈령에 ‘자해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선 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군인이 죽으면 ‘자살로 처리’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자살 이유는 군부대와는 무관하고, ‘아버지가 실직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대학에 떨어져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이렇게 처리하죠. 자살의 원인은 모두 당사자와 가족들한테 있는 겁니다.”<br/><br/> -근데 실제 이유는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br/><br/> “이번에 연극에 출연하는 유족 중에 손형주 이병 어머니가 있어요. 손형주 이병은 부산과학고를 나오고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 듣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100㎏이 넘는 거구인데 입대하고 대대장이 30㎏을 빼라고 지시했대요. 급식량은 대폭 줄이고, 하루에 다른 동료들 3배로 구보를 시켰는데 손 이병은 모범생답게 그 지시를 묵묵히 따랐대요. 동료들은 손 이병이 ‘늘 땀에 젖어 있는 아이였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이 친구가 시력이 아주 나빠요. 이 친구의 사격수첩 메모를 보면 ‘150미터 표적지 잘 안보임. 200미터 표적지 안 보임’이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는데 표적을 맞힐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수전증이었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수전증이 있으니 사격 성적이 나쁜 건 당연하죠.” <br/><br/> -그런 신체조건인데 어떻게 현역판정을 받았죠?<br/><br/> “10년 전 입대기준으로 보면 현역을 갈 수 없는 조건인데, 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신체판정 등위를 엄청 완화했어요. 결국 뚱뚱하고 사격 못한다고 군대에서 매일 바보 취급받고 놀림받다가, 사격장에서 30발을 쏘고 31발째엔 자기 이마에 대고 사격을 해서 죽었어요.”<br/><br/> -저런…. <br/><br/> “군 헌병대에서도 손 이병의 사망 원인을 ‘지휘관들의 무리한 요구와 관리 소홀’로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순직 처리하도록 권고했대요. 근데 이래저래 결정이 늦춰지다가, 2014년 3월 정확히 손 이병의 3주기가 되던 날,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기각되었대요.”<br/><br/> -왜요?<br/><br/> “손 이병이 죽기 며칠 전 죽음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는데 ‘중2 때, 고1 때… 대학 1, 2 때도 허무했지’라고 썼다고요.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할 때에는 정신적으로 암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근거로 부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나온 거죠. 중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해 왔으니 군대 책임이 아니라고.”<br/><br/> -다른 나라에선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룹니까?<br/><br/> “외국에선 부대 내 요인에 대한 조사가 기본이에요. 부대 안에서 부당행위나 부조리한 일은 없었는지 중점 조사하죠. 우리나라는 개인적 요인에 방점을 두고 사인을 조사해요.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를 쓰게 해요. 성장과정, 부모문제, 가정형편…. 제 아들도 군에 다녀왔지만 저는 아이한테 ‘뭐든지 좋았고 행복했고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고 쓰라고 했어요. 어려서 부모 사이가 안 좋았고 동생이 아팠고 실직했고… 이런 얘기 쓰면 다 집안문제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거든요.”<br/><br/> -부모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군요. <br/><br/>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건 ‘명예회복’입니다. 국가에서 징병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아이의 의지가 나약해서,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몰지 말고. 국방부에서 사인을 조사할 때 누가 방아쇠를 당기고 누가 줄을 맸느냐를 기준으로 자기 손으로 했으면 자살이라고 규정해요. 저나 유족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당겼다면 왜 당겼고, 맸으면 왜 맸는지 밝혀 달라는 거예요.”<br/><br/> -너무나 당연한 요구 같은데.<br/><br/> “군 헌병대가 조사해서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이 판결 내리니 그게 되나요? 전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선 민간법원에서 군의 잘못을 다뤄야 해요.”<br/><br/> -그럼 좀 달라질까요?<br/><br/> “지금 한해 국방예산이 40조원인데 방산비리로 큰돈을 쓰면서 인건비는 너무 싸요. 아이들을 거의 공짜로 쓰다, 죽으면 버리는 거죠. 자살이나 자해, 사고로 죽으면 ‘비전투 손실’로 처리합니다. 한 명 죽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가집니다. 군에서 죽으면 국가 부담이 커야 해요. 그래야만, ‘얘 죽으면 부담이 크니 그냥 제대시켜 내보내자’는 생각을 하지요. 지금은 그냥 죽을 때까지 놔둬요.”<br/><br/>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민관합동의 독립기구로 출범해서 60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고 활동을 벌였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이 기관을 해체했다. 600여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손도 못 댄 채였다. 죽은 사병들은 말이 없고 그 유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br/><br/> <br/><br/> 억울함은 나의 힘 <br/><br/> “<span class='quot1'>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이들의 호소가 남아 있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믿는다.</span>”(<고상만의 수사반장> 서문 중에서)<br/><br/> 고상만은 최근 출간한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군 의문사뿐 아니라 공권력과 사회적 편견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조목조목 소개하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도 전업 저널리스트도 아니지만, ‘억울한 누군가의 스피커 역할’을 자신의 업으로 삼겠노라고 했다. 그가 이런 삶의 좌표를 정하게 된 것은 청년 시절 그 자신이 폭력과 제도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br/><br/> 1989년 속초 동우대학에 입학한 그는 2학년이 되던 봄, 절친한 선배 김용갑의 죽음을 목도했다. 사학 비리에 대항하는 총학생회를 궤멸시키기 위해서 학교 쪽은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 그와 김용갑은 다른 학생운동 동료들과 함께 조직폭력배에게 끌려가 감금된 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하곤 했다. 그런 폭행을 당하면서도 총학생회장에서 사퇴할 것을 끝내 거부하던 김용갑은 봄비 내리던 새벽 한적한 도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990년 3월28일 실종된 지 2시간35분 만이었다. 그의 사인은 지금도 미궁 속에 있다.<br/><br/> -스무 살 청년에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겠어요.<br/><br/> “제일 큰 충격은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매일 오가던 버스는 그대로 다니고,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애들, 식당에서 밥 먹는 애들 모두 그대로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펐어요. 형은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걸 보고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다가 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br/><br/> -울어요?<br/><br/> “두 번 다시 그렇게 울라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발버둥치고 막 토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라도 울지 않으면 그 형의 죽음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형이 스물다섯 해를 살고 죽었는데 그를 위해 서럽게 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울고 난 후에 제가 느낀 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어요. 형은 죽었는데 난 살아 있고 밥을 먹고 학점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형의 영정 앞에서 왼손을 찔러서 혈서를 썼어요. ‘김용갑’이라고. (손가락 흉터 보이며) 여기 하얀 자국 보이시죠?”<br/><br/> -독하게 맘먹었군요.<br/><br/> “전 겁쟁이예요. 겁도 많고 의지도 약하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형을 잊지 않고 형 제사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지만, 내심 형의 1주기가 되었을 때 난 어디 있을까 스스로도 궁금했어요.”<br/><br/> 그는 곧 제적당했고 교내에서 치르려던 1주기 추모제는 다시금 깡패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학교 쪽이 사주하고 경찰이 방관하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고상만은 분신을 기도하다 실패했다. 대신 그의 친구 정연석이 분신해서 병원에 실려 갔다. 학교는 휴교령을 발표하고 농성하던 학생들은 모두 쫓겨났다. 아무 데도 기댈 데 없는 처절한 패배였다.<br/><br/> -그래서 김용갑의 1주기가 되던 날, 어디 계셨나요?<br/><br/> “감옥에요.(웃음) 감옥 들어가 첫날 눈을 뜨니 형의 기일이었어요. 보리밥에 숟가락 꽂아놓고 혼자 추모제를 지냈지요. 그 뒤로 27년째 형 어머님 모시고 추모제를 지내고 있어요. 엊그제가 27주기였네요.”<br/><br/> -출소한 뒤에 여러 사회운동단체나 공공기관의 인권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어떤 기사에서 보니 15번 이직했다고 하던데, 지금 더 늘었나요?<br/><br/> “늘었겠죠?(웃음) 그 뒤로도 취직과 이직을 반복했으니. 그래도 사표를 낼 때마다 제 아내가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죽으면 지나온 삶이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격려해주죠.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br/><br/> 사학비리 맞서던 대학시절 운동 선배 실종됐다 도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 폭력과 제도의 억울한 희생 지켜본 것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가더라 그대로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슬펐다”<br/><br/> “<span class='quot1'>사형수도 사형 집행 전 죽으면 큰일 교도소 다 처벌받고 징계받잖아요 군대 안에서 군인이 자살하면 정작 아무도 처벌 안 받아요</span>” 당사자와 가족 탓으로 책임 미뤄<br/><br/>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br/><br/> -늘 억울한 사람 편에 서 오셨지만, 사실 억울함이라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억울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은 없나요?<br/><br/> “사실은 늘 갈등해요. 진실이 뭔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누군가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인권운동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진실 여부를 판단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억울한 사연을 듣고 경찰, 검찰, 법원이 수사한 기록을 입수해서 꼼꼼히 살펴보죠. 제가 공부는 잘 못하는데(웃음)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선 특이하게 기억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록 십몇 페이지에서 본 것과 이천몇백 페이지에서 본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금방 찾아내죠. 어?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요. 누군가의 주관적인 억울함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혹으로 정의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어요.”<br/><br/> -변호사나 사설탐정처럼 그런 일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br/><br/> “저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죠. 억울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인권 캠페인? 30대까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자 다짐하곤 했는데, 지금은 제도를 바꾸고 법과 시스템을 바꿔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br/><br/> -군복무 중 사고를 방지한다고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관심병사로 분류돼서 군대생활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br/><br/> “관심병사로 선정이 됐다면 제대시키는 게 답이에요. 자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병력자들은 관심병사 A급,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B급이고요, 입대 100일 미만자들은 무조건 C급인데….”<br/><br/> -이혼한 부모를 뒀으면 B급이라고요? 도대체 그런 기준은 누가 만든 거예요?<br/><br/> “군대가 만들었겠죠.(웃음)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가 이혼해서 자살한 거니까 부대 책임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답 나왔네. 그럼 이혼한 부모의 애들은 입대시키지 마시오. 실직한 아버지를 둔 아들도, 대학 떨어진 애들도 징병하지 마시오’ 했어요.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는 죄가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난리인데, 낳은 아이들을 죽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국가가 책임질 수 없으면 징병을 하지 말아야죠.”<br/><br/>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유약해서 그렇다고 한탄하죠.<br/><br/> “그렇게 의지 강한 분들만 가라고 하세요. 지금 1급 17만명, 2급 12만명, 3급 7만명인데, 자살자가 3급에서 제일 많아요. 뛰라는데 못 뛰고 쏘라는데 못 쏘는 친구들을 지오피(GOP) 보내서 힘들게 굴리니까 그래요. 젊은층 인구는 줄어들고,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으로 1만7천명이 병역면제 받았는데 그 숫자를 채우려고 10년 전 기준으로 군대 면제해야 할 청년들까지 징병하고 있거든요.”<br/><br/> -그래서 손 이병 같은 친구도 군대 가고.<br/><br/> “전 군대가 아무나 갈 수 없는 데가 되어야 진짜 강군(强軍)이 된다고 생각해요. 군인 출신 탈북자들 얘기가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 나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참담한 얘기가 있어요. 2014년에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났을 때 임 병장이 총 들고 도주해서 수색작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그 부대 관심사병들을 따로 모아서 수색에 내보내면서 그 친구들한테는 총을 안 주고 빈손으로 추적하라고 시켰대요. 임 병장이 관심사병인데 총 쏘고 갔으니까 얘네들도 또 총 쏠까봐서.”<br/><br/> -그럴 거면 왜 투입시켜요?<br/><br/> “그러게요. 실제 교전까지 벌어진 상황에 관심사병 애들을 비무장 상태로 내보내고. 이게 무슨 군댑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질 거면 왜 징병해서 죽게 하냐고요. 실제로 대대장들이 하는 얘기가, 일개 대대 관리하는 것보다 관심사병 하나 관리하는 게 더 힘들대요.”<br/><br/> -그러면서 왜 데리고 있죠?<br/><br/> “이유는 하나예요. 병력자원을 유지해야만 별(군 장성)의 숫자가 유지되니까요. 진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전쟁과는 상관없이 군대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장성들 수를 20명 줄인다 해놓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위험하고 어쩌고 하면서 실제론 세 명밖에 안 줄이고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한숨)”<br/><br/> 안보는 군 고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나 보수층을 잡기 위한 정치공학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안보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병의 인권과 존엄을 강조하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안보가 걱정이다.<br/><br/> 녹취 심지연<br/><br/>▶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한겨레-2-234.txt

제목: 담뱃갑에 표시안된 발암물질 9종 더 있다  
날짜: 2017041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11112840003  
ID: 01101001.20170411112840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시중에 판매중인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물질이 9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5종 일반담배 400갑을 성분 조사한 결과,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벤젠·벤조피렌 등 7종과 ‘2비(B)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등 5종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12종 가운데 담뱃갑에 적혀 있지 않은 발암물질이 9종이나 된다. 정부가 담배 독성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br/><br/>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1급, 암을 유발하는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한 경우 2에이(A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B급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br/><br/> 일반담배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가운데 담뱃갑 겉면에 적혀 있지 않은 성분은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4-아미노비페닐, 벤조피렌 등이다. 2B급 경우에도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이소프렌, 아크릴로니트릴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현행 표시제도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는 함유량까지, 벤젠과 나프틸아민 등 7종은 성분만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나머지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br/><br/> 단열재나 접착제에 많이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노출되면 사람의 피부와 점막을 자극해 인두염·기관지염·어지럼증·질식 등을 일으킨다. 1,3-부타디엔은 합성고무와 같은 화학제품 원료로 눈·피부·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고, 고농도로 노출되면 어지럼증·질식 증상이 나타난다. 2B급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어지럼증·구토·두통·호흡억제·폐부종 등을 일으키고, 카테콜은 혈액의 산소 운반능력을 떨어뜨려 호흡곤란과 사망까지 부를 수 있다. 이밖에 스티렌, 이소프렌, 아크로니트릴 등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킨다.<br/><br/> 식약처는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폐암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만성기관지염·관상동맥질환·치주질환·당뇨·탈모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br/><br/> 최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액상이 가열과 산화를 거치면 제품에 따라 특정 발암물질의 함량이 최대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액상 상태일 때보다 연기 상태에서 각각 최고 19배, 11배 높게 검출됐다. 다만 궐련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보다는 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는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35.txt

제목: “몸속 유해물질 줄이자”…시민 500명 2주간 실험  
날짜: 20170410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10084856001  
ID: 01101001.2017041008485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현대인은 유해화학물질에 포위돼 살아간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사용하는 치약과 비누부터 걸치는 옷, 쉬고 일하는 공간 주변의 다양한 물건, 심지어 먹는 음식에도 농약이나 식품첨가물에서 비롯된 갖가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들어 있기 십상이다.<br/><br/> 어머니 뱃속의 태아조차 이런 유해물질에서 안전하지 않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문제 연구 단체인 환경워킹그룹이 2004년 신생아 10명의 제대혈을 조사했더니 그 속에서 각종 발암물질, 뇌와 신경계 유독물질,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물질 등 무려 287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미국화학회의 화학물질등록시스템 카스(CAS)에 매일 새로 등록되는 신물질이 1만5000여종, 제품화돼 시장에 나오는 신물질도 매년 2000여종이나 돼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발견되는 화학물질 종류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br/><br/>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유해화학물질은 몸 밖으로 다시 배출되기도 하지만 미처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도 한다. 이렇게 몸속에 쌓인 유해물질의 총량이 이른바 ‘바디버든’이다. 바디버든을 구성하는 유해화학물질들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바디버든이 암, 기형, 당뇨병, 불임, 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월경불순과 아토피, 노인성 치매 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 바디버든은 몸에 들어온 유해화학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약한 어린이들과 이런 능력이 쇠퇴한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이 바디버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 살면서 바디버든을 모두 덜어내기는 불가능하더라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br/><br/> <한겨레>는 아이쿱생협 자연드림과 함께 13일부터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통해 바디버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자연드림이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 참가자들은 권역별로 시차를 두고 2주 동안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사용을 피하는 ‘노출 줄이기’ △충분한 물 마시기와 적당한 운동을 통한 ‘적극 배출하기’ △사용하는 제품에 바디버든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 등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실천지침에 따라 생활한 뒤 체험 참여 전후 바디버든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br/><br/> 변화를 측정할 지표로는 인체 내분비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인 페놀류 18종과 프탈레이트류 11종이 사용된다. 이들을 추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기간의 회피 행동으로 체내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다 간단한 소변검사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은 “<span class='quot0'>두 종류의 물질은 반감기가 6~48시간에 불과해 최소 3일 정도만 회피해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체험 참가자 500명의 바디버든 변화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는 6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자연드림이 운영하는 캠페인 누리집(bodybu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

언론사: 한겨레-2-236.txt

제목: ‘47년 연기 인생’ 김영애 세상과 이별  
날짜: 20170409  
기자: 김효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9154846001  
ID: 01101001.2017040915484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김영애가 9일 오전 10시58분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 <br/><br/> 고인은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변에 이 사실을 숨긴 채 드라마 촬영을 끝냈다. 그 뒤에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며 드라마 <닥터스>, <킬미 힐미> 등과 영화 <변호인>, <카트> 등에 출연했다.<br/><br/> 지난해 8월부터는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양복점 대표의 아내 최곡지 역을 맡아 매주 시청자들을 만났다. 지난해 10월말 암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하고도 ‘외출’로 올해 초까지 50회 촬영을 마쳤다.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는 4회 연장됐지만, 고인은 병세 악화로 참여하지 못했다. <월계수>는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br/><br/> 고인은 2월초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영정사진과 수의로 입을 한복을 골랐고 장례절차도 모두 정해놓았다고 했다. <월계수> 촬영 당시, 명료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려고 녹화날에는 진통제를 맞지 않은 사실도 털어놨다. 마지막 작품까지 연기 투혼을 불태웠다. <br/><br/>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1년 <문화방송>(MBC) 공채 3기로 데뷔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고가며 100여편의 작품으로 대중을 만났다.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최우수연기상, 대종상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코리아드라마어워즈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배우 최불암은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성 경찰을 연기한 김영애를 두고 “<span class='quot0'>천생 배우의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span>”고 에세이집을 통해 회고하기도 했다.<br/><br/> 고인은 2004년 황토 화장품 사업에 전념하려 연기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2006년 드라마 <황진이>로 다시 돌아왔다. 2007년 한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황토팩 중금속 논란’을 제기하며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발표로 해당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발인은 11일이다. 김효실 기자 trans

언론사: 한겨레-2-237.txt

제목: 공공부문 용역 청소노동자들 ‘머나먼 봄’  
날짜: 20170405  
기자: 정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5203818001  
ID: 01101001.20170405203818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국립국악원에서 청소하는 이수현(가명·63)씨는 5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업이란 걸 했다. 전업주부로 살던 그는 10년 전 자녀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악원에서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는 연장·휴일 수당을 주지 않았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월급이 평균 20만~30만원씩 적었다. 2014년 노동조합을 만든 뒤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용역업체는 2년 체불한 임금 54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br/><br/> 그후에도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가 용역노동자 임금을 예산 항목에서 ‘사업비’로 책정해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이 동결돼 국악원 청소노동자들은 시중 노임단가(8330원)는커녕 최저임금(647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 6250원을 받을 처지다. 정부는 2011년 용역노동자 임금을 시중 노임단가로 책정하라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br/><br/> 오순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회장은 “<span class='quot0'>지난 3월 한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8분간이나 다녀왔다고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pan>”고 말했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자 다른 청소노동자들도 화장실을 못 가도록 관리자가 막았다고 했다. 또 약을 먹기 위해 화장실을 가야 한다니까 남성 관리자가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 “<span class='quot1'>진짜 먹었는지 입을 벌려보라</span>”고 요구하기도 했다. <br/><b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2'>전국적으로 40만에 이르는 청소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의 대명사</span>”라며 “<span class='quot2'>공공부문 청소노동자 등 시설관리노동자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김종민·박정·박홍근·이학영·우원식·유은혜·진선미·송옥주 의원)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 한 청소노동자 집담회 ‘꽃피는 봄이 오면’에선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br/><br/> 인천공항공사 교통센터 청소노동자 6명은 용역업체가 변경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해고(면접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청소노동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 처음이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재면접을 통보받은 노동자 가운데 2명은 아내가 암을 앓고 있거나, 자신이 암에서 회복해 생계가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오순옥 지회장은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지난해 6개월 동안 6439억원 영업이익을 낸 인천공항공사가 3~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했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고 있으면서도 용역업체 인사권은 공사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span class='quot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첫걸음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직접 고용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시설관리노동자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br/><br/> 앞서 1월 국회는 청소노동자 207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 월급은 5.5%(8만5000원) 올랐고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1000만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용역업체 이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은주 기자 ejung

언론사: 한겨레-2-238.txt

제목: 용종은 나의 적폐  
날짜: 2017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5202858001  
ID: 01101001.20170405202858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세월호가 돌아왔다. 2014년 4월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떠난 후 1081일 만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던 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국회의원 도종환은 “<span class='quot0'>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span>”고 표현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날 하늘의 구름이 ‘노란 리본’ 모양이라며 박근혜의 몰락과 세월호의 인양을 신의 섭리처럼 얘기하기도 했다. 또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날 새벽, 공교롭게도 박근혜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동화 속에서나 보던 ‘권선징악’이 드디어 실현된 걸까. 그런데 왜 조금도 후련하지 않은 걸까.<br/><br/>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꼽았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적폐의 상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여집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솎아 내는 일이었으니까.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지>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처럼 아첨꾼 같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박근혜는, 자신의 파국을 추호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br/><br/> 만약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상규명에 관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부질없는 가정이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지름길이었다. 박근혜는 차마 자기 자신을 도려내지 못했다. 아첨꾼 같은 신하들을 솎아내지 못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마다 경제가 위기라고 했고, 남북관계가 위기라고 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날려버렸다. 반면,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이나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기업 모금은 살뜰히 챙겼다.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남용했고,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한계까지 시험했다.<br/><br/> 얼마 전에 나는 대장에 생긴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다인실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인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는 암환자였다. 아저씨는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다행히 입원해 있는 동안 백혈구 수치가 회복됐고, 아저씨는 내가 입원한 다음날 퇴원할 수 있었다. 한 간호사는 퇴원을 앞둔 아저씨에게 앞으로 시작될 항암치료에 관해 꼼꼼히 알려줬다. 항암치료제의 종류와 특징은 물론, 항암치료의 여러 부작용에 관한 설명도 빼먹지 않았다. 빠진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랄 거지만, 머리카락보다 음식을 잘 가려 드시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간호사의 설명은 아저씨의 주의를 사로잡으며 1시간이 넘게 계속됐다. 간호사의 설명이 얼마나 정성스러웠으면 화장실을 가려던 내 발목까지 붙잡았을까. 나는 커튼 뒤로 조곤조곤 새어 나오던 간호사의 설명에 가만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br/><br/> 그렇다고 간호사가 아저씨의 병을 고칠 수는 없다. 간호사는 병원 안의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덕분에 아저씨는 자신의 병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을 뿐이다. 행여 아저씨의 병세가 깊어지더라도 그건 간호사의 잘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침몰은 박근혜 탓이 아니었고, 또 진상규명은 박근혜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 각종 퇴적물까지 포함하면 1만톤에 육박하는 세월호를 하루아침에 인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다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주길 바랐다. 아니, 대통령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정하길 바랐다.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을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은 놓지 말았어야 했다.<br/><br/> 내 몸속의 용종을 제거했던 의사는 말했다. 용종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담배를 계속 피우면 용종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면 용종은 나의 적폐였던 셈이다. 아니, 용종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진짜 적폐는 나의 생활 습관이었다. 마침 박근혜는 구속됐고, 세월호는 돌아왔다.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도 용종을 뗀 나도, 가까스로 출발점에 다시 섰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장담은 못 하겠다. 이 글을 용케 끝까지 읽은 당신은, 부디 나처럼 부끄럽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br/><br/> 권용득 만화가·<하나같이 다들 제멋대로> 지은이

언론사: 한겨레-2-239.txt

제목: 짬짜미에 너그러운 한국 사법부  
날짜: 20170405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5172857001  
ID: 01101001.20170405172857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사법부가 선진국에서는 짬짜미로 제재를 받거나 소비자에게 배상한 기업들에 잇달아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시장경제의 암’으로 불리는 짬짜미에 면죄부는 물론 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br/><br/>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트럭제조사 짬짜미 혐의에 대해 연이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국 트럭제조사인 볼보·스카니아·다임러·만트럭의 짬짜미 사건에 대해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span class='quot0'>기업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격담합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체의 가격인상폭이 일치하지 않는다</span>”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도 3월10일 타타대우의 짬짜미 사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공정위에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볼보·스카니아·다임러·만트럭·타타대우·현대차·대우송도개발 등 7개 트럭제조사들이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정한 것을 적발하고 짬짜미 혐의로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r/><br/> 트럭제조사의 가격 짬짜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7월 3조6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은 5개 트럭제조사 중에는 공정위 제재를 받은 볼보·다임러·만트럭·스카니아 등이 포함돼 있다. 담합 기간도 1997~2011년으로, 공정위가 적발한 2002~2011년과 겹친다. 더욱이 트럭제조사들은 유럽연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등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혐의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날 “<span class='quot1'>사법부 판결은 선진국의 법 집행과 맞지 않고, 짬짜미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span>”고 밝혔다. <br/><br/> 유럽연합 집행위는 기업 간 가격 정보교환 행위를 짬짜미로 판단해 제재한다. 2008년에도 3개 바나나 수입판매업체가 매주 목요일 다음주의 기준가격을 공지하기에 앞서 전화통화로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눈 행위에 벌을 내린 바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정보교환만 했을 뿐 가격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럽사법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법학)는 “<span class='quot2'>유럽연합은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중하지만 정보교환을 담합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고려한다</span>”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pan class='quot1'>일본도 가격 결정과 관련해 명시적 합의의 증거가 없어도 정보교환 등 간접적 증거가 있으면 묵시적 합의로 보고 제재한다</span>”고 밝혔다.<br/><br/> 라면업체 짬짜미 사건도 선진국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경우다. 공정위는 2012년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이 2001년부터 약 10년간 수시로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1위 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서 인상한 것을 적발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업들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1월 “<span class='quot0'>가격에 관한 정보교환만으로는 담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체별 가격 평균 인상률도 꼭 같지 않다</span>”며 라면업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국내 라면업체 짬짜미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삼양은 재판 도중 소비자와 배상안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내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농심과 오뚜기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br/><br/> 공정위와 전문가들은 법원의 소극적인 법률 해석이 짬짜미 적발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제기한다. 공정위 간부는 “<span class='quot3'>짬짜미를 어렵게 밝혀 제재해도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면 소용이 없고,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 집행을 했다고 공격한다</span>”며 “<span class='quot3'>공정위가 짬짜미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span class='quot4'>짬짜미는 비밀리에 진행돼 직접적인 합의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미공개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인상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정황증거로 활용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짬짜미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곽정수 선임기자 jskwak

언론사: 한겨레-2-240.txt

제목: 독재의 기억이 만든 불문율, 대놓고 할말 다하기  
날짜: 20170405  
기자: 조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5110812001  
ID: 01101001.20170405110812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브루더호프 사람들은 주일에만 모이는 게 아니다. 점심시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야외에 모일 때가 많다. 따라서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 내게 ‘고독의 자유’를 즐길 시간은 그다지 없었다. 호스트 글렌이 모임 때마다 우리 부녀를 데리러 와 슬그머니 빠질 수도 없었다.<br/><br/> <br/><br/> 타이 아속과 인도 오로빌을 거쳐 브루더호프에 오기까지 공동체마을을 신문에 소개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개인적 관심에 따른 순례 여정으로 여겼기에 ‘취재’에 민감한 브루더호프 쪽에도 순수한 방문일 뿐이라고 전했다. 취재 필수품인 카메라도 휴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드크레스트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독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직업병’이 발동했다. 무엇보다도 말이 넘치는 한국 교회와 달리 말없이 예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을 보고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엔 대부분의 시간을 글렌이 꼭 달라붙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나마 사진 하나 마음대로 찍을 수 없었다. 이처럼 후에 사진 사용을 허락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다.<br/><br/><br/><br/>공동체마을 3백여명 전체 잔디밭 모임 어른 아이 다함께 거의 매일 모여 방문자에게 진솔한 논쟁 속살 보여줘<br/><br/>평화로운 마을 뒷면엔 부끄러운 ‘흑역사’지도자 크리스토프의 부친 하인리히독재자로부터 밀림 귀양 보내져도누구도 저항 못했던 부끄러운 기억들<br/><br/> <br/><br/> 브루더호프는 카메라에 상당한 경계심을 보였다. 공동체원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고 싶은 배려심 때문이겠지만, 종교개혁 세력과 나치 정권에 이어 영국에서까지 박해를 받고, 공동체를 컬트(이단)로 음해하는 이들에게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런 듯했다.<br/><br/> 사진을 찍고 싶은 열망이 컸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을 만큼 모습 하나하나가 아름답고도 특별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보통 개신교인들과 달리 내놓고 포도주나 맥주를 즐기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br/><br/> 공동체원 전체가 모이는 모임의 대부분은 언덕 위 잔디밭에서 열렸다. 원으로 겹겹이 배치된 긴 나무의자에 가족들끼리 앉았다.<br/><br/> 주일에도 주기도문 암송과 찬송가, 설교 등으로 이어지는 ‘예배 틀’이 없었다.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일방적인 전달인 설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공동체원이 자신들의 신상이나 생각을 나눴다.<br/><br/> 이 마을 300여명 가운데 누구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았다. 모임 도중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파라과이 등에 있는 브루더호프 마을 공동체원들과 전화를 연결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재해지역과 분쟁국에 파견된 형제들과 연결해 소식을 듣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사망했다거나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한 슬픈 소식엔 모두 함께 슬퍼했고, 기쁜 소식은 축하해주었다. 예배나 기도를 위한 별도의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였다.<br/><br/> <br/><br/> <br/><br/> 브루더호프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르놀트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한명 또 한명에 대한 그의 집중력은 놀라웠다. 누군가 그에게 인사하러 다가서면 절뚝거리며 일어서서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자녀나 형제를 맞이하듯 상기된 모습으로 반겼다. 크리스토프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폭력의 고리 끊기’(BTC·Breaking the Cycle)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영국 사회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다.<br/><br/> 그러나 그가 브루더호프의 창시자인 에버하르트 아르놀트의 아들 요한 하인리히 아르놀트에 이은 손자로서 ‘공동체 지도자직도 부자 세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런데 2000~2010년엔 아르놀트가와는 무관한 리처드 스콧이라는 이가 지도자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으로 공동체원들에게 기억되는 리처드 스콧은 우리 부녀를 돌봐준 호스트 글렌-아델 부부 가운데 아델의 아버지였다. 평화스럽고 고결한 심성을 잃지 않던 아델을 보며 6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리처드 스콧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br/><br/><br/><br/> 이젠 ‘할말 있을땐 당사자에게 직접’“저 사람, 음주운전했다”면전에서 말하고, 공개적으로 사과‘식사 재료’ 놓고도 반론에 반론민주주의 지켜내는 그들만의 지혜<br/><br/><br/><br/> 우드크레스트를 떠나기 전 크리스토프 부부의 집을 찾았다. 벽면에 리처드 스콧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크리스토프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환대해주었다. 브루더호프에 대해 칭찬하자 크리스토프의 부인은 “우린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는 “<span class='quot0'>왜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span>”고 물었다. 휴직 기간에 공동체를 찾아다니며 살아보는 희한한 기자에 대한 당연한 궁금증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어린 시절 부친과 모친이 방물장수·보따리장수들과 걸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늘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느라 가족들끼리만 식사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고향집의 모습을 소개하며, “우리집도 공동체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부인 베리나는 “바로 당신의 부모님 같은 이들이 천국을 만드는 분들 아니냐”며 감동했다.<br/><br/> 브루더호프에서는 지도자들이 군림하지 않고 모두를 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 신자를 사익의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하대하고 군림하는 종교인들을 적잖이 보면서 ‘성직자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컸기에 이들의 비권위적인 섬김이 더욱 감동이었다.<br/><br/> 그런데 공장장인 델프가 때마침 준 <꿈꾸는 인생>(홍성사 펴냄)이란 한국어판 책을 읽고 감동이 부서졌다. 브루더호프의 창시자인 에버하르트의 아들이자 크리스토프의 아버지로서, 브루더호프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요한 하인리히 아르놀트의 전기였다. 그 책 표지 날개엔 내가 1999년에 영국의 다벨 브루더호프를 방문해 쓴 르포기사와 함께 내 이름이 실려 있었다. 처음엔 살짝 훑어만 볼 셈으로 집어들었는데, 손을 떼지 못하고 단숨에 읽고 말았다. 그 책엔 브루더호프의 흑역사가 담겨 있었다. 에버하르트 사후 지도자가 된 사위 한스에 의한 독재와 배신과 갈등과 분열이 낱낱이 소개된 것이다. 주인공 하인리히가 매형 한스에 의해 파라과이 밀림 속으로 귀양 보내져 처자식도 만나지 못하는 등 몇년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보내며 처절히 부서져버린 지옥 같은 삶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br/><br/> <br/><br/> <br/><br/> 한스가 ‘성공적인 공동체’란 ‘장밋빛 성공신화’를 제시하며 공동체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오랫동안 아내 외 여성과 부정을 저질렀던 사실마저 공개돼 있었다. 전기 저자는 하버드대 출신으로, 주인공 하인리히의 외손자인 피터 맘슨이었다. 등장인물은 모두가 저자의 외증조부모와 외조부모와 어머니의 형제 등 가족들이었다.<br/><br/> 저자는 한스가 오랫동안 성공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내세워 리더라는 직책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며 브루더호프의 초기 정신과 반대로 나아가는데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한 음울한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br/><br/>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에 그런 독재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기 가족의 비사를 세상에 남김없이 공개한 자신감이 놀라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기의 주인공 하인리히가 수십년간 자신을 죽이려 한 독재자에게 협조한 사람들까지 용서로 끌어안고, 섬기며, 자기 아버지가 꿈꿨던 ‘오늘날 브루더호프의 하모니’를 이루어갔다는 점이었다.<br/><br/> 그 독서 이후 겉모습의 브루더호프가 아닌 좀더 실제적인 브루더호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느낌이었다. 브루더호프 사람들은 방문자에게도 속살을 보여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한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잔디밭의 야외 전체모임이 무르익었을 때 한 중년여성이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한 이웃 남성의 이름을 거명하며 “술을 마셨으니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도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브루더호프엔 ‘상대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뒷담화를 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솔직하게 말하라’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다. 그 지독한 흑역사의 갈등을 거치며 배운 지혜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과해 보였다. 그 남자도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내 그도 마이크 앞으로 나와 그 여성에게 “위험에 빠뜨려 미안하다”며 “이제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br/><br/> <br/><br/> <br/><br/> 우드크레스트를 떠나기 전날 밤엔 실내에서 어른들만 모인 가운데 열린 마을회의에 참석했다. 외부에서 식자재를 사오는 공급담당 청년이 “<span class='quot1'>이 정도의 식사라면 어느 곳과 비교해서도 괜찮은 거 아니냐</span>”고 말했다. 공동체의 누군가가 ‘요즘 식사가 형편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모양이었다. 우드크레스트에 머물며 음식이 고급호텔에 못지않아 공동체가 너무 잘 먹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그런 문제제기가 의외였다. 누군가 청년의 말에 반론을 펼치자, 청년은 다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지금 가난한 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물었다.<br/><br/> 브루더호프는 미국의 빈자들을 돕고 있다. 소년소녀들이 가꾼 채소도 인근 홈리스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또 시리아 난민들이 도착하는 그리스를 비롯해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네팔 등에 형제들을 파견해 난민들을 돌보거나 병원이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미 그런 일을 모범적으로 하는 자선단체 16곳에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br/><br/> 이어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잇따라 일어나 “우리 형제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며 “세상 모든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써 지상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가 아니냐”고 말했다.<br/><br/> 브루더호프에선 개인이 받는 월급도 용돈도 없다. 신용카드도 없다. 개인은 아무도 통장이 없고, 오직 한개의 통장만 존재한다. 유일한 통장을 관리하며 식자재 등을 살 때나 개인이 외출할 때 돈을 지출해주는 회계책임자가 일어났다. 그는 “우리는 전쟁과 박해,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늘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늘 말발이 센 사람들만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바깥세상과는 다른 회의가 이어졌다. 누구나 일어나 나와 말했고, 토의는 길었고, 진지했다. 다시 비민주적인 흑역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진솔한 대화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br/><br/>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

언론사: 한겨레-2-241.txt

제목: 4일 인사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3195859001  
ID: 01101001.20170403195859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최은희 △학생복지정책관 한상신 △충북대 사무국장 김용호 △한국체대 〃 김용관 △운영지원과장 최윤홍 △학교정책〃 심민철 △사학감사담당관 이석현 △사분위지원팀장 최훈 △창원대학교 최형장<br/><br/>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활용촉진 박형민 △전기전자표준 오광해 △기술규제조정 신재혁<br/><br/> ⊙ 통일부 <승진> ◇부이사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강연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 소봉석 ◇서기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조영석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김영상<br/><br/> ⊙ 국가보훈처 <전보> ◇국장급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종호<br/><br/>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이기호<br/><b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보> △주택과장 기술서기관 김연희<br/><b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승진> ◇수석급 <센터> △인증심사 박종구 △소프트웨어인증 조원준 △해외인증협력 이기석 △재료기술 신민철 △항공국방기술 남경민 △전파응용기술 송태승 △전력신산업기술 최종두 △환경평가 고영환 △준사업개발 장재림 △전기전자표준 이시우 <br/><br/> ⊙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산업IT부 부장 최인철<br/><br/> ⊙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장(특임논설위원 겸) 박성태 △제작국 제작지원팀장 양승현<br/><br/> ⊙ 민주신문 △편집국장 김경훈 <br/><br/> ⊙ 문화방송경남(MBC경남) ◇국장 △보도 이재달 △기술 이곤정 △경영 손종근 ◇본부장 △사업 이원열 ◇부장 △회계 조호열 △영상제작 정진근 △영상취재 한연호 △기술2 구종호 △문화 김경도<br/><br/> ⊙ 시티에스인터내셔널(CTS인터내셔널) △회장 주대준<br/><br/> ⊙ 경북대 △총무과장 박상훈 △재무〃 신기수 △재정관리담당관 신금철 △경상대·생활과학대 합동행정실장 연원흠<br/><br/> ⊙ 한국외대 △대외협력처장 이은구<br/><br/> ⊙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박윤수 △연구부원장 임영혁 △암병원장 남석진 △심장뇌혈관병원장 오재건 △기획총괄(기획실장 겸) 박승우 △리모델링 추진단장 고광철 △심장뇌혈관병원장 전은석(대행) △SMC 파트너즈센터장 최문석 △감염병대응〃 정두련 <실장> △QI 손영익 △교육인재개발 이주흥 △진료운영 오세열 △대외협력 이준혁 △정보전략 장동경 △커뮤니케이션 구홍회 △수술 함태수 <부장> △입원 문영완 △외래 이종균 <팀장> △전략기획 이우용 △투자기획 박철우 △인사기획 홍진표 ◇진료과장 △내과 정재훈 △소화기내과 이규택 △순환기내과 온영근 △호흡기내과 서지영 △내분비대사내과 김선욱 △신장내과 허우성 △혈액종양내과 정철원 △감염내과 정두련 △알레르기내과 이병재 △류마티스내과 차훈석 △외과 최동욱 △위장관외과 손태성 △대장항문외과 이우용 △간담췌외과 최성호 △혈관외과 김동익 △소아외과 서정민 △유방외과 김석원 △내분비외과 김지수 △이식외과 김성주 △흉부외과 전태국 △심장외과 김욱성 △폐식도외과 최용수 △정형외과 정성수 △신경외과 홍승철 △성형외과 방사익 △산부인과 최두석 △안과 오세열 △이비인후과 조양선 △비뇨기과 이규성 △소아청소년과 성기웅 △신경과 김병준 △정신건강의학과 홍경수 △피부과 이동윤 △재활의학과 황지혜 △마취통증의학과 함태수 △영상의학과 최연현 △방사선종양학과 임도훈 △핵의학과 이경한 △진단검사의학과 조덕 △병리과 송상용 △가정의학과 송윤미 △응급의학과 조익준 △치과 박기태 △한남동치과 김정혜 △임상약리학과 고재욱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암병원 <센터장> △위암 김재준 △대장암 이우용 △간암 백승운 △유방암 박연희 △폐식도암 조재일 △비뇨기암 전성수 △뇌종양 이정일 △두경부암 정한신 △췌담도암 최성호 △혈액암 정철원 △특수암 박준오 △양성자 표홍렬 △암치유 안진석 △통원치료 정철원 △부인암 이정원 <실장> △운영지원 윤성현 <실차장> △운영지원실 박희철 ◇심장뇌혈관병원 △심장센터장 권현철 △혈관〃 최승혁 △이미징〃 박성지 △예방재활〃 김연희 △뇌졸중센터 장전평 △운영지원실장 허준 △운영지원실 실차장 서우근 ◇특성화센터장 △국제진료 이상철 △건강의학 최윤호 △응급진료 성기익 △뇌신경 나덕렬 △장기이식(조직은행장 겸) 김성주 △소화기 이규택 △당뇨병 이문규 △갑상선 김지수 △척추 이종서 △소아청소년 서정민 △골관절(스포츠의학실장 겸) 문영완 △중증치료 서지영 △모아집중치료 노정래 △환경보건 안강모 △영양지원팀장 서정민 △CPR운영실장 온영근 ◇미래의학연구원 △원장(생명과학연구소장 겸) 임영혁 △바이오뱅크장 송상용 △피험자보호감독실장 허우성 △연구전략〃 윤엽 △사업화추진팀장 유규하 <연구소장> △삼성유전체 박웅양 △줄기세포재생의학 하철원 △중개융합의학 고재욱 △임상의학 박영석<br/><br/> ⊙ AIA생명 ◇실장 △내부감사 송우진 ◇부문장 △상품 김지현(대행) ◇팀장 △준법지원 이정준 △상품계리 연인곤 △PA영업인재개발 김상균 △DM영업전략 신수진 △DM영업인재 박준환<br/><br/>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승진> △주식운용본부 부장 박현주 △컴플라이언스팀 〃 박현정<br/><br/> ⊙ HMC투자증권 ◇전무 △IB사업본부장 함형태<br/><br/> ⊙ 하나카드 △사내이사·감사위원 조정환<br/><br/> ⊙ 서울신용평가 △신용평가본부장 임창범<br/><br/> ⊙ KD건설 △대표 구정회<br/><br/> ⊙ 이스타항공 △대표 최종구<br/><br/> ⊙ 한국애브비 △전무 김숙현 △상무 정의혁 △이사 홍현경 김동욱 이화영

언론사: 한겨레-2-242.txt

제목: [나는 역사다] MS 공동창업…게이츠와는 다른 길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3174837001  
ID: 01101001.20170403174837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폴 앨런(1953~)<br/><br/>1975년 4월4일-폴 앨런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br/><br/> <br/><br/>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을 흉보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다. 그럴 때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의 사연을 초들곤 했다.<br/><br/> 앨런과 게이츠는 십대 소년 시절부터 단짝 친구. 고등학생 시절에는 함께 컴퓨터를 해킹하기도 했다.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말이다. 두 사람이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날이 1975년 4월4일. 당시 앨런은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br/><br/> <br/><br/> 사업은 잘됐다. 그런데 앨런이 몸이 아팠다.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이었다. 1982년, 앨런은 우연히 게이츠의 꿍꿍이를 알게 됐다. ‘앨런이 아파서 일을 많이 못 하니 회사에서 앨런의 지분율을 낮추자’는 모의를 옆방에서 벌이고 있었다는 것. 1983년 앨런은 회사를 떠난다.<br/><br/> 지금은 병도 낫고 즐겁게 산다. 박물관과 연구소 등 좋은 일에 돈을 쓰는 자선사업가로 유명하다. 프로농구단도 프로미식축구단도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도 앨런의 소유. 2014년 재산이 175억달러(한국 돈으로 약 19조원). 우리가 앨런을 너무 딱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빌 게이츠와도 잘 지낸다고. 그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 <br/><br/> 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2-243.txt

제목: [강내희 칼럼] 봄 같지 않은 봄의 미세먼지  
날짜: 2017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402193823002  
ID: 01101001.20170402193823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강내희<br/><br/> 한국에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많다. 차별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못 구한 청년층,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빈곤에 내몰린 노인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적폐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적폐는 대체로 정치경제적 문제이고,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이니 물론 둘의 인과관계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br/><br/>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새로 이사한 동네 뒷산에 산수유와 진달래가 핀 것을 보면 봄이 안 왔을 리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봄이 봄답지 않게 느껴진다. 날씨, 특히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북한산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볼 때마다 산은 희뿌연 안개로 덮여 있다. 그 안개가 진짜 안개가 아님을 나는 물론 안다.<br/><br/>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렸을 적 고향 마을 들판에 아스라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기억이 나곤 한다. 당시 본 고향 산의 진달래, 맡았던 풀 향기, 맨발에 부드럽게 밟히던 흙, 마시면 싱그럽던 공기도 함께 되새겨지면서 말이다. 그 시절 봄을 맞는 것은 늘 축복이었다. 천지사방에 생명력이 넘쳐나, 봄철만 되면 숨을 마냥 들이쉬고 싶기도 했다.<br/><br/> 인간의 삶은 숨 하나로, 다시 말해 큰 숨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태어나며 들이마신 숨을 떠날 때 내쉬고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 한 번의 숨을 유지하기 위해 들숨과 날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무서워져 버렸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이기 때문이다.<br/><br/>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2.5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다.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더 작아서 2.5마이크로미터 이하다. 하지만 몸에 들어오면 이들 먼지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암, 뇌졸중, 치매,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에는 눈에 선하게 들어오던 산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도 이런 유해 물질을 가득 품은 매연 때문일 테니 섬뜩하지 않은가.<br/><br/>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올 들어 석 달 사이에 85차례나 미세먼지 경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 지금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공기질이 최악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도시의 공기오염 상황을 추적하는 에어비주얼의 발표를 인용해 서울이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뉴델리와 함께 “세계 3대 오염 도시”로 꼽혔다는 놀라운 보도를 내놓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오염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리곤 하던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이 책임질 부분은 20퍼센트뿐이라는 것이다. 같은 신문은 2060년까지 한국에서 대기오염으로 900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도 전했다.<br/><br/> 지난겨울 우리 사회는 ‘박근혜 없는 봄’을 고대하며 주말 촛불집회를 수십 차례 열었고, 드디어 그의 탄핵과 구속을 지켜봤다. 우연인 듯 필연인 듯 304명 목숨을 앗아간 사고 선박 세월호가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떠올랐으며, 그가 구속되던 날은 침몰 1081일째에 목포항으로 되돌아와 미수습자 9명을 찾을 희망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래도 올봄이 봄답다 싶지 않은 것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적폐가 곳곳에 쌓여 있고, 그것이 미세먼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br/><br/> 한국에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많다. 차별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못 구한 청년층,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빈곤에 내몰린 노인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적폐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적폐는 대체로 정치경제적 문제이고,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이니 물론 둘의 인과관계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적폐에 노출될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 또한 부인하긴 어렵다.<br/><br/> 문제는 이 결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숨 쉬는 것도 무서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대기 오염을 막으려면 석탄, 경유 등의 소비를 줄이고 다른 오염물질의 통제도 함께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교체 노력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br/><br/> 사람이 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쉰다면 저주다. 적폐가 청산되지 않으면 미세먼지의 기승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봄 같지 않은 봄을 계속 맞아야 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적폐를 청산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봄 같지 않은 봄날을 맞아, 사회적 적폐와 미세먼지를 한꺼번에 날려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br/><br/>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언론사: 한겨레-2-244.txt

제목: 암은 운명? “환경·유전보다 우연히 걸릴 확률이 높다”  
날짜: 20170324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24030844001  
ID: 01101001.201703240308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사망률이 10만명당 105.8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인 21일 10대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가 2007년 45.6%에서 2016년 68.5%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수칙에는 금연·운동·채소 및 과일 섭취 등이 들어 있다. 건강검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암의 가족력이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1970년대부터 역학조사를 통해 암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확인한 1군 발암물질만 23일 현재 119종에 이른다.<br/><br/> 하지만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사이언스> 24일(현지시각)치 논문에서 생활습관·발암물질 등 환경요인과 가족력 등 유전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우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금연·운동 등 사전 예방만큼 조기진단·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r/><br/> 암은 발암유전자의 돌연변이(디엔에이 구조변화)가 누적돼 세포가 무한증식해 생기는 질병이다. 그동안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존스홉킨스대의 크리스티안 토마세티 박사 등 연구팀은 32종의 암 게놈 염기서열과 역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돌연변이의 3분의 2는 정상세포가 분열할 때 우연히 생기는 디엔에이 복제의 무작위 오류 때문임을 밝혀냈다. 연구팀이 영국 여성의 발암 유전자 돌연변이 원인을 분석해보니, 환경에 의한 것이 29%, 유전적 요인이 5%, 무작위 오류에 의한 것이 66%였다.<br/><br/>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동안 끊임없이 새로 생겨났다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모든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세포 곧 줄기세포가 분열해 해당 조직·기관세포로 분화한다. 대략 줄기세포 분화가 한번 일어날 때 3개의 디엔에이 구조변화 곧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연구팀은 국제암연구소에 등록된 69개국(인구 48억명)의 17종 암 자료와 줄기세포 자료를 분석해 암 발생 위험과 줄기세포 분화 횟수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환경 조건이 다른 국가간 상관계수 차이가 거의 없어 암 발생에 환경보다는 디엔에이 복제 과정의 무작위 오류가 더 큰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암 종류에 따라 암 발생 요인도 달라 폐 선암의 경우 발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디엔에이 복제 무작위 오류에 의한 비중이 35%인 데 비해 췌장 선암은 77%, 뇌암·골수암·전립선암 등은 95%에 이르렀다.<br/><br/> 연구팀은 “환경 요인에 의한 암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암 환경을 피하는 것만으로 암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우연히 발생하는 암의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진단이다”라고 밝혔다. <br/><br/> 홍영준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암은 노인병이다. 암은 세포 분열 때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누적돼 발생하는 것이어서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진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 등 항산화 식이는 정상 줄기세포의 분열 횟수를 줄여 암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한겨레-2-245.txt

제목: 국내 위암 환자 10명 중 8명, 조기 발견해 수술받아  
날짜: 2017032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23144834001  
ID: 01101001.201703231448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체 위암 환자 10명 가운데 약 8명은 초기 단계인 위암 1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가운데 갑상선암에 이어 2위이며,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3위인 암이다.<br/><br/>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제 2차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2015년 위암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가운데 평가 대상인 114개 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위암 1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전체의 75.7%로 나타났다. 이어 3기가 많았는데 11.5%, 2기 9.8%, 4기 3%였다. 암은 보통 진행 정도에 따라 1~4기로 구분하는데, 4기에 가까울수록 많이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심사평가원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내시경 진단 수준이 향상됐고 건강검진의 확대로 조기 발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br/><br/> 이번 평가에서 또 위암 환자는 남성(68.7%)이 여성(31.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50∼70대(78.8%)에서 주로 발생했다. 남성은 60대(32.7%), 여성은 70대(28.1%) 환자가 가장 많았다.<br/><br/> 심사평가원은 수술 사망률, 적정 항암제치료 실시율 등 4가지 지표로 병원들의 치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전국 98개 의료기관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2등급은 9개(7.9%), 3등급은 4개(3.5%), 4등급은 3개(2.6%)였고, 최하등급인 5등급은 없었다. 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28개, 경기도 24개, 경상도 22개, 충청도 9개, 전라도 8개, 강원도 4개, 제주도 3개로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했다.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2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46.txt

제목: 아시아인은 당뇨 있으면 암 사망 위험 높아져  
날짜: 2017032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23110809001  
ID: 01101001.201703231108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시아인은 당뇨가 있으면 암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br/> 22일 유근영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아시아 다른 나라 연구팀과 함께 2005년부터 12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중국·대만·인도·싱가포르·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7개국 77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제 2형 당뇨가 있으면 암 사망 위험이 평균 2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암 별로는 △자궁내막암 2.7배 △간암 2.1배 △갑상선암 1.9배 △신장암 1.8배 △유방암 1.7배 △췌장암 1.5배 △담도암 1.4배 등이었다. 당뇨는 1,2형으로 구분하는데, 제1형은 주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나타나며, 2형 당뇨는 비만·운동부족·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흔히 성인 당뇨로 부른다. 연구팀은 “아시아인만을 대상으로 당뇨와 암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려면 생활습관 개선 등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당뇨학> 최근호에 실렸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47.txt

제목: ‘암 예방 가능’ 인식 높아졌지만, 예방 실천은 안한다  
날짜: 201703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20121842003  
ID: 01101001.20170320121842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10년 사이에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암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금주, 채소 섭취 등을 실천하는 비율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0일 국립암센터가 ‘제10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19살 이상 우리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지율은 2007년 53%에서 2016년 67%로 증가했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비율도 전반적으로 같은 기간 39%에서 50%로 개선됐다. <br/><br/> 하지만 몇몇 항목은 오히려 나빠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신체활동이나 금주, 채소섭취 등이었다.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도록 결심하거나 이를 실천하는 비율인 ‘신체활동 실천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54%로 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해, 실천의지는 어느 정도 높은 편이나 실행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음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하루 한두잔 이내로 마시기’에서 지난해 ‘하루 한두잔 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되면서 실천율이 2007년 69%에서 지난해 56%로 낮아졌다. 식이 분야에서는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69%로 3%포인트 떨어졌으며,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도 2008년 92%에서 2016년 88%로 4%포인트 낮아졌다. <br/><br/> 이에 견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2008년 55%, 74%에서 2016년 60%, 78%로 높아졌다. 이밖에 적정 몸무게 유지, 예방접종 받기, 안전한 성생활 하기 등은 같은 기간 개선됐다. 흡연 또는 간접흡연 하지 않기는 거의 같아 2007년 77%에서 지난해 77.6%로 집계됐다. 암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반적으로 암 예방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운동이나 금주, 식생활 등의 실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48.txt

제목: [미디어 전망대]언론에도 촛불이 필요하다 / 김세은  
날짜: 2017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6165835001  
ID: 01101001.20170316165835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김세은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br/><br/> 1975년 3월17일. 유신체제에 맞서 자유언론을 외치던 동아일보 기자 160여명이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동댕이쳐진 지 오늘로 꼭 42년이 된다. 부당한 강제해직이 자행된 지 반백년이 다 되도록,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이들은 복직은커녕 명예회복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수십년 세월 동안 거리의 기자, 거리의 PD로 그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인데, 국가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지루하게 다투다가 겨우 2016년에야 14명에 대한 1천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세월은 무상해서, “못다한 자유언론 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결의”로 발족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실천투쟁위원회 113명 가운데 27명이 서거하고 지금은 86명만이 활동 중이다. 어느새 대다수가 칠순을 훌쩍 넘긴 동아투위 위원들은 ‘단 하루라도 편집국 내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 소원이라 말한다.<br/><br/> 그때는 유신독재 군사정권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신하던 한국 사회에서 2008년과 2012년 연거푸 자행된 언론인 해직 사태는 진정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공정방송을 위해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다가 해직된 와이티엔(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어느덧 해직 3000일을 넘기고도 아직 제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화방송(MBC)은 사태가 더욱 심각해서 2012년 이래 무려 160명 이상이 해고나 정직, 대기 또는 부당전보발령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린’ 박성제와 최승호를 비롯해, 당시 기자회장이었던 박성호와 노조집행부 강지웅, 이용마, 정영하 등은 1, 2심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br/><br/> 독재정권 치하에서 자유언론 수호를 외치다가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을 각성시킨 것은 다름아닌 시민이었다. 신문사 안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상주하며 일일이 제작에 간섭하고 있었지만 기자들은 그저 “<span class='quot0'>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 기자라고 우쭐대며</span>” 자유롭고 활달한 편집국 문화에 만족하면서 타협적으로 기사를 쓰며 지냈다. 그러다가 동아일보에 분노한 대학생과 시민들이 몰려와 동아일보 화형식을 하는 것을 편집국 창문에서 목격하고는 “<span class='quot1'>독재 권력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몰골에 참담한 심정</span>”을 느끼며 기자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자각하고 자유언론 수호투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이들은 회고한다.<br/><br/> 40여년 전 동아일보사 옆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문화방송 옆에는 “애국방송 엠비씨를 지키자”는 외침만이 가득하다. 공교롭게도 문화방송 바로 맞은 편에 와이티엔이 있다.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이었던 정영하는 파업 당시를 회고하면서 민주시민의 질타가 가장 무서웠고 동시에 가장 큰 힘이었다고 술회한다. 박성호는 과거 정치부 기자로서 최고권력자와 그 무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켰던 자신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시민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해직 10년 차에 접어든 와이티엔 노종면은 시민과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버틴다고 했다. 해직된 지 4년만에 암을 얻어 투병 중인 이용마는 수척한 몸을 일으켜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광장에서 외친다.<br/><br/> ‘촛불 앞에 부끄러운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상암에도 촛불이 필요한 이유다.

언론사: 한겨레-2-249.txt

제목: 불길서 인명 구한 외국인 ‘LG의인상’  
날짜: 20170315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5193809001  
ID: 01101001.20170315193809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엘지(LG)복지재단은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니말(39)에게 ‘엘지(LG)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제정된 ‘엘지 의인상’을 외국인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 니말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의 한 농장에서 작업 중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불길 속에서 집 안에 갇힌 할머니를 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얼굴과 폐에 화상을 입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니말은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데 대해 고마웠고, 할머니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br/><br/> 엘지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조한 최길수(34)·김성수(43) 소방관도 ‘엘지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구조 과정에서 최 소방관은 허리뼈가 골절됐고, 김 소방관은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br/><br/> 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2-250.txt

제목: [야! 한국 사회] 정치 9단 / 손아람  
날짜: 2017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5181814002  
ID: 01101001.20170315181814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손아람작가<br/><br/> 시민 박근혜의 보좌진이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경욱 의원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박근혜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 일간지는 ‘정치 9단’ 박근혜 대통령이 ‘불복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정치라는 어휘가 언어적 모라토리엄에 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입장 대변을 맹렬하게 비판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역시 ‘정치 9단’이라는 수식이 자주 붙던 정치인이다.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정계에 복귀하고, 다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로 복당한 뒤 탈당하여 국민의당 대표가 되기까지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는 정치 9단 인증을 받았다. 5·16 쿠데타의 주역에서 민주 정부의 총리로 변신하며 역대 최다인 9선 의원을 지낸 김종필씨 역시 ‘정치 9단’으로 자주 거론된다. 자유당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3당 합당을 통해 다시 적통 보수정당으로 복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계 최초의 9단으로 공인받았다. 탄핵소추로 전화위복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9단 칭호를 얻었다. 제도권 정치를 시궁창으로 유도한 위험한 발언들이 도리어 승단 시험이 되어버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마저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떠났다고 칭송했다. ‘9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짐작해볼 만한 대목이다.<br/><br/> 정치력 평가에 있어 선거권자는 제로 팩터로 취급되어 왔다. 민중 정치는 불가능한 이상으로 여겨졌고 드라마틱한 공작 정치가 민주정의 동의어처럼 사용됐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과의 교감능력이 아니라, 끈적한 인맥 관리와 대담한 언론 통제 기술이 곧 정치력의 기준이었다. 정치는 술책으로 치환해도 무방한 단어였다. 선거권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던 고대 왕조 사회의 엘리트들이 인식하던 정치도 그런 것이었다. 따라서 9단으로 승단하려는 정치인은 “아니 뭐 저런…? 우와 저러고도 살아남았네!”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생명력을 먼저 입증해야만 했다. 의학의 통제를 벗어나 아홉번씩 재발하는 암도 비슷한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9단 승격은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모욕이다.<br/><br/>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세계의 전환점이다. 8:0 파면 결정은 90퍼센트의 확률 혹은 80퍼센트의 확률로 탄핵 가능성을 예상하며 대응을 준비하던 시민사회를 당황하게 만드는 결과다. 10퍼센트 혹은 20퍼센트의 미지 변수가 바로 ‘정치 9단’들의 영역이었다. 민주주의의 무중력 지대에 대한 공포를 시민들은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은 법도 정치의 일부임을 확인시켰다. 거리는 텅 비었지만 의사당만이 시끄럽던 지난 탄핵 소추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8:0을 만들어낸 압력은 법이 아니라 거리를 메운 촛불의 질량이다. 시민들은 법의 엄밀성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조차 사회와 교감하는 시민임을 믿는다.<br/><br/> 정치 9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경험들은 승단 시험의 규칙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다. 야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제 시민의 눈을 바라보고, 시민을 향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사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목소리로 ‘국민의 뜻’을 제멋대로 추론하는 대신, 스스로의 생각으로 논쟁하고 평가받을 용기를 갖춰야 한다. 가늘고 길게 가려는 전략을 준비해온 정치인들에게는 안됐지만, 당분간 3단 이상의 선수가 최고 권력에 접근하는 날은 돌아올 것 같지가 않다.

언론사: 한겨레-2-251.txt

제목: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노동자 ‘LG 의인상’  
날짜: 20170315  
기자: 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5142808002  
ID: 01101001.20170315142808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엘지(LG)복지재단은 치솟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니말(39)에게 ‘LG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LG 의인상’을 외국인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 니말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의 한 농장에서 작업중 주변 주택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길 속에서 집 안에 갇힌 할머니를 구해낸 그는 얼굴과 폐에 화상을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니말은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데 대해 고마웠고, 할머니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br/><br/> 엘지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조한 최길수(34)·김성수(43) 소방관도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구조 과정에서 최 소방관은 허리뼈가 골절됐고, 김 소방관은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br/><br/> 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2-252.txt

제목: 암발병 원인 의심받는 비료공장,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  
날짜: 20170315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5141848001  
ID: 01101001.20170315141848001  
카테고리: 지역>전북  
본문: 주민 집단 암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비료공장이 그동안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전북도·익산시는 익산시 함라면의 한 비료공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불법 공기조절장치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장은 그동안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운영했다. 통상적으로 악취 측정은 공기중의 악취농도를 계측하는데, 이 공장은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공기가 악취와 많이 섞이도록 하고 단속망을 피해왔다.<br/><br/> 또 이 공장은 악취물질을 줄이는 설비인 세정탑과 분쇄시설 등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시가 내린 비료 혼합시설 사용중지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이 공장은 지난해 9월 단속에서 악취배출 기준(희석배수 500)의 9배가 되는 수치(4481)가 나와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고, 4개월 뒤인 올해 1월에도 기준의 13배가 넘는 수치(6694)를 배출해 단속에 적발됐다. 익산시는 이같은 위반사항 7건 가운데 3건을 고발하고, 과태료(120만원) 부과와 조업중지(10일)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의신청 등 해당 공장의 진술을 받아 보름 뒤에 본처분을 내릴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 장점마을은 2004년부터 3월 현재까지 주민 15명에게 암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4명이 투병중이다.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문제의 공장은 장점마을에서 600ｍ가량 떨어져 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수질조사를 벌여 수은 등 중금속 검출이 되지 않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대기·토양 검사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

언론사: 한겨레-2-253.txt

제목: [곽병찬의 향원익청] “평화, 새는 숲에 물고기는 물에 꽃은 핀 자리에”  
날짜: 20170314  
기자: 곽병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4181831002  
ID: 01101001.20170314181831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span class='quot0'>한울 안 한 이치에 한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를 건설하세요.</span>” 그가 평생 온몸으로 살았던 평화의 철학이요 신앙이다. 그의 생가와 구도지 등이 복원된 소성리엔 달마산 초입 평화의 계곡이 있고, 교당에선 평화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br/><br/> 304명이 죽어갈 때 얼굴 손질이나 하던 대통령은 그 땅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사드 발사대가 한국에 도착한 3월7일은 원불교 교무들이 마을 주민들과 농성을 시작한 지 158일째 되는 날이었다. 허탈할 법도 한데 교무들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평화로웠다. 평화를 지키는 일에 화를 내서야…. 정산은 말했던가?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다. 쇠보다 물이 강하고, 물보다 공기가 강하다.’<br/><br/> 1961년 가을,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원불교 지도자인 정산 송규 종법사를 만났다. 그로부터 5년 뒤 그는 한 일간지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기고했다.<br/><br/> “나는 황홀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품위와 예지와 성실의 빛이 흐르는 얼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었다. … 나는 하나의 경이를 눈앞에 보는 듯하였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공연히 기뻐졌다.”<br/><br/> 당시 정산 종법사는 10년째 뇌졸중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게다가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져 지독한 통증을 겪어야 하는 말기암 환자였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은 안 교수의 표현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었다.<br/><br/> 얼마지 않아 정산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만 보고서는 그가 말기암 환자임을 알 수 없었다. 시자는 궁금했다. “<span class='quot0'>말기암은 통증이 엄청나다는데, 종법사님은 고통스럽지 않으세요?</span>” 정산은 빙그레 웃었다. “<span class='quot0'>바늘 한 쌈지로 마구 쑤시는 것 같구나.</span>”<br/><br/> <마의상법> 등 관상서는 귀한 얼굴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마, 턱, 광대뼈가 코를 바라보는 형태로 코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오악조귀 五岳朝歸). 턱 끝에서 코밑, 코밑에서 눈썹, 눈썹에서 이마 끝까지 거리가 같다(삼정평등, 三停平等). 턱이 둥글고 원만하다(지각원만, 地閣圓滿). 눈빛이 호수처럼 빛난다(안광여수, 眼光如水). 귀가 얼굴보다 희다(이백과면, 耳白過面). 정산의 초상화를 보면 이런 기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어찌 타고난 생김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얼굴은 정신의 초상”이라고 말했다.<br/><br/> 안 교수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나는 정산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청순과 화열의 표정이 깊이 조각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정성된 노력을 하였을까 생각했다. 저 화열의 표정은 … 꾸준한 인간 수양의 결정이다.” 안 교수가 훗날 학생들에게 철학자답지 않게도 이렇게 단언한다. “<span class='quot0'>여러분은 10년만 공부하면 나같이 될 수 있지만 나는 100년을 공부해도 그분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없다.</span>”<br/><br/> 정산은 1900년 경북 성주 초전면 달마산, 형제봉, 연봉, 호봉 등에 첩첩이 에워싸인 소성리에서 태어난다. 아명은 송도군. 충숙공 야계 송희규의 후손으로, 영남의 대표적인 유림 가운데 하나다. 유년 시절 한집안인 공산 송준필로부터 경서를 배운다. 송준필은 19세기 말 대표적인 유학자로 1919년 1차 유림단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당시 고산정에 살고 있던 야성 송씨 일문에선 10여명이 옥고를 치렀다. 사대부 집안 가풍은 그만큼 엄격했다.<br/><br/>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다. 신유학(주자학)으로는 당대의 모순과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일대사를 깨칠 수도 없었다. 생로병사를 넘어 천하 만민 모두가 화평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은 없는 것일까? 때는 동학을 시작으로 대종교, 증산도, 보천교 등 민중종교가 우후죽순 일어서고 있었다.<br/><br/> 13살에 결혼하면서 그는 인근 박실마을으로 이사한다. 멀리 바다를 꿈꾸는 거북이 형상의 바위가 옆에 있었다. 정산은 그 아래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집안에선 말렸지만, 오히려 그의 분심만 자극했다. 도인을 찾아 상주 백화산, 합천 가야산 등을 순력했다. 그의 치열함에 감복한 부친은 그의 후원자가 된다. 17살 그가 스승을 찾아 집을 나설 때 부친은 땅을 팔아 여비를 마련해주는가 하면, 달마산을 넘어 김천까지 60리 길을 배웅했다. 그는 전라도로 건너가 보천교의 차경석도 만나고, 증산 강일순의 여동생인 선돌부인과 함께 수행하기도 했다. 현실(선천)의 어둠과 고통과 갈등 넘어 빛과 평화의 세상이 열리는 이치와 도리를 설파한 증산의 후천개벽사상에 마음이 끌렸다. 증산의 딸 강이순으로부터 <정심요결>을 받았다. 증산이 ‘귀인이 오면 전하라’고 했다는 그 비서였다.<br/><br/> 정산은 1918년 4월 정읍 북면 화해리에서 소태산 박중빈을 만난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던 ‘고요한 해변에서 온 원만하신 용모’의 어른이었다. 소태산 역시 그동안 ‘체격이 작은 얼굴이 깨끗한 소년’을 고대했다. 소태산은 어느 날 무언가에 끌려 정읍 화해리로 왔다가 그 소년을 본 것이었다.<br/><br/> 소태산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현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정신의 기운을 확장해 물질의 기운을 이겨내는 길을 열고자 했다. 무아봉공(無我奉公)의 삶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대중과 함께, 모든 생령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한 생명을 이루는 일원상의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하려 했다. 사람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힘’의 관계(恩) 속에서 존재한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사회제도) 등 4은이 그것이다. 은혜를 자각하고 감사하며 보은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불화할 수 있을까. 사은에 보답하는 길이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숭배 등 4요(四要)다.<br/><br/> 소태산은 1917년 동지들을 모아 저축조합을 꾸리고, 숯장사를 통해 경제적 기초를 세운 뒤 영광의 버려진 갯벌을 간척해 2만6천여평의 옥답을 개간했다. 이어 8명의 제자와 함께 교화단을 꾸렸다. 훗날 그를 만난 도산 안창호는 “<span class='quot1'>나는 말로 일을 했지만 선생은 온몸으로 민족운동을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1943년 소태산의 후계자가 된 그는 가람 이병기의 말마따나 ‘작은 키에 둥그런 얼굴을 가진, 특별한 학벌이나 문장도 없는’ 사람이었다. 평소에도 만나는 이들에게 그저 ‘공부 잘하라’고 당부하는 평범한 어른이었다. 그럼에도 “수많은 인재와 학자들이 그 앞에서 공손히 머리를 숙이는”(이병기) 스승이었다. “<span class='quot0'>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을 가꾸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감화를 받게 할 수 있을까</span>”라는 의문은 비단 김일상(정산 송규 종사 평전 지은이)만의 것은 아니었다. 독불장군에 음모가요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마저 “우리나라에 이처럼 훌륭한 분이 초야에 계실 줄이야”라고 찬탄했다.<br/><br/> 그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지극한 평범이었다. 꽃을 가져온 교도에게는 “세상 어디나 도량입니다. 핀 곳에 그대로 있다면 더 많은 대중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요”라고 했다. 새나 물고기를 가져오면 “새의 집은 숲이요, 물고기가 사는 곳은 물입니다”라고 말했다.<br/><br/> 그런 그가 1960년 회갑을 맞아 철학자 박종홍마저 찬탄한 특별한 법을 세운다. ‘3동윤리’다. “<span class='quot0'>모든 종교의 진리는 하나이므로 서로 화합하고(동원도리, 同源道理), 모든 생령이 모두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로 서로 화합하고(동기연계, 同氣連契), 모든 사업과 이념은 더 좋은 세상을 도모하는 것임을 알아서 서로 화합하라(동척사업, 同拓事業).</span>” 1962년 1월22일 이런 게송을 남기고 이틀 뒤 세상을 떴다. “<span class='quot0'>한 울 안 한 이치에 한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를 건설하세요.</span>” 그가 평생 온몸으로 살았던 평화의 철학이요 신앙이다. 그의 생가와 구도지 등이 복원된 소성리엔 달마산 초입 평화의 계곡이 있고, 교당에선 평화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br/><br/> 304명이 죽어갈 때 얼굴 손질이나 하던 대통령은 그 땅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사드 발사대가 한국에 도착한 3월7일은 원불교 교무들이 마을 주민들과 농성을 시작한 지 158일째 되는 날이었다. 허탈할 법도 한데 교무들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평화로웠다. 평화를 지키는 일에 화를 내서야…. 정산은 말했던가?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다. 쇠보다 물이 강하고, 물보다 공기가 강하다.’<br/><br/> 그날 교당에서 저녁상을 받았다. 김치, 무장아찌, 미나리무침이 놓여 있고 잔치국수가 올라왔다. 둘러앉은 이들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졌다. 가난한 밥상 앞에서 온종일 수고한 이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란 얼마나 평화로운가.<br/><br/> 정산은 당부했다. “<span class='quot0'>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갖고 싶거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span>”<br/><br/>곽병찬 대기자 chankb

언론사: 한겨레-2-254.txt

제목: 한국인 위암 예방수칙 7가지…“가공·훈제식 줄이고 싱겁게 먹어야”  
날짜: 2017031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3133834001  
ID: 01101001.2017031313383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위암을 예방하려면 최대한 싱겁게 먹고, 불에 태운 고기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며, 술을 덜 마셔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br/><br/> 대한암예방학회가 21일 ‘암예방의 날’을 맞아 만든 ‘한국인 위암 예방 건강수칙 7가지’를 13일 발표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다빈도 암 순위에서 남성은 1위, 여성은 4위를 차지하는 것이 위암이라며, 평소 식습관과 관련이 큰 위암을 예방하는 수칙을 잘 지키도록 권고했다. <br/><br/> 위암 예방 수칙을 보면 우선 싱겁게 먹도록 권장했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나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 수칙은 가공식품과 훈제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인데, 건조, 훈제, 염장 식품, 방부제 사용 식품에는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들어 있어 이 성분들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위암 발생이 높아진다. <br/><br/> 세번째는 불에 태운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숯불구이나 바비큐처럼 고기나 생선을 굽거나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위암 예방에 좋은 식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특히 백합과 채소(파, 마늘, 양파 등)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br/><br/> 하루 3잔(알코올 45g) 이상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위 점막에 손상을 주고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므로, 술 섭취량도 줄여야 한다. 음식 이외에도 식사 뒤 바로 누우면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 더부룩함 등 각종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br/><br/> 끝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약 2.8∼6배 늘어나므로, 이 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 접시 사용을 권장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55.txt

제목: 당국의 규제완화 덕? 보험업계, 신상품 개발 ‘날개’  
날짜: 20170313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13112810002  
ID: 01101001.20170313112810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유병자 보험, 무해지환급형 보험, 하이브리드 종신보험….<br/><br/>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 이후 보험업계에 신상품 개발이 봇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 상품이 크게 늘었다.<br/><br/> 13일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담보 개발 건수’가 지난 2014년 510건에서 2015년 557건, 지난해 648건으로 2년 사이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는 해당 보험이 지급하기로 한 특정 암의 종류가 그 보험의 담보인 셈이다. 따라서 담보 개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보험 상품이 많아졌다는 뜻이 된다. <br/><br/> 이는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보험회사가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찾아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드맵 시행 이후 사실상 인가제였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뀌면서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지난해 생보사들이 신상품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10건)를 기록하며,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도 업계의 신상품 개발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br/><br/> 상품개발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전체 담보 개발 건수에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58.5%로, 전년 51.7%에서 6.8%포인트나 늘었다.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저축성 보험의 매력이 떨어진 데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부채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축성 보험 판매를 꺼리면서 상대적으로 상품 개발이 보장성 보험 쪽에 집중된 탓이다.<br/><br/> 보장성 보험의 개발은 질병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병자 보험이 주도했다. 실버보험으로 불리는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과 가입심사가 간소화 된 간편고지 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두 보험의 신규담보 개발 건수는 2014년 31건에서 2015년 298건, 지난해에는2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br/><br/> 특히 2012년에 최초 도입 당시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생명보험회사 4개사, 간편고지 보험은 1개사만 팔았으나 지난해에는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은19개사가, 간편고지 보험은 17개사가 판매에 나섰다. 유병자 보험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60대 노년층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2011년 63%에서 2015년 73%로, 70대 이상은 같은 기간 25%에서 33%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 경기불황에 따른 대안으로 무(저)해지환급 상품도 급부상 중이다. 이 상품은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무(저)해지 상품개발 건수는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24배나 급증했다.<br/><br/>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의 경우, 단순 사망 보장에서 질병을 통합 보장하거나 연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형으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br/><br/> 생보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당국의 보험업계 자율화에 따라 기존에 보장하지 않던 새로운 담보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상품에 따라 보험가입 연령층도 계속 세분화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유선희 기자duck

언론사: 한겨레-2-256.txt

제목: ‘해방이냐 도태냐’ 인간 존망의 열쇠  
날짜: 20170309  
기자: 한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9193852001  
ID: 01101001.20170309193852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싯다르타 무케르지 지음, 이한음 옮김/까치·2만5000원<br/><br/>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The Gene: An Intimate History)는 먼저 지은이 얘기부터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 책을 쓴 싯다르타 무케르지(47)는 인도 벵골 출신 미국인 암 연구·치료 전문의요 생물학자이며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가 2010년에 낸 <암-만병의 황제의 역사>(The Emperor of All Maladies: A Biography of Cancer)는 퓰리처 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2011)이었고, <타임>이 선정한 1923년 이후 출간된 책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에 들었다. 공부 이력도 화려하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금으로 옥스퍼드대를 다녔으며,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컬럼비아대 의대 조교수이자 이 대학 부설 의료센터 암 전문의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임상체험을 지닌 그가 수많은 개인사·사회사까지 아우르는 인문학적 박식에 뛰어난 문장까지 구사하는 탁월한 작가라는 점은 전작들과 이 책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 검증된 듯하다.<br/><br/> 게다가 기막힌 개인 사정까지 있다. 그의 탐구와 집필 의지를 끊임없이 자극했을 그 사정은 세대로 이어진 치명적 정신질환을 지닌 가족 내력이다. 아버지의 셋째·넷째 형, 지은이에겐 삼촌인 두 사람이 삶의 어느 단계에서 발현된, 격심한 조현병으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지은이의 사촌형도 마흔 살이던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br/><br/>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고 결혼한 아내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지은이는 두 딸의 장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사촌들의 병이 유전 때문이라면 왜 아버지와 누이는 무사했을까? 본성(내부요인)과 양육(외부요인)은 각기 어느 정도로 그들의 병에 영향을 끼쳤을까? 아버지와 그는 발병하지 않았을 뿐 유전적 병인을 지닌 보인자인가? 가족 중 누가 보인자인지, 보인자들 유전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아낼 순 없을까? “<span class='quot0'>성년이 된 이후 유전과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날이 거의 단 하루도 없을 정도</span>”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br/><br/> 그리하여 그는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생명정보의 기본단위 유전자의 실체 탐구에 도전한다. 그 역사부터 현재, 미래 전망까지 샅샅이 훑는다. “유전자는 현대 생물학의 조직 원리를 제공하며, (…) 우리 몸, 운명,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유전자의 역사에는 영원한 젊음의 추구, 갑작스러운 운명의 역전이라는 파우스트적 신화, 인간을 완전하게 하려는 우리 시대의 시도가 담겨 있다.” <br/><br/> 유전자 사용설명서 해독은 지은이 개인뿐만 아니라 인간 공통의 욕망이기도 하다. 최근 인간은 유전자를 읽고(서열 분석) 쓰는(클로닝)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인간유전체 계획(게놈 프로젝트) 초안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유전체 전체를 훨씬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개입해, 질병 치유는 물론 인간 본성 확장까지 시도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br/><br/> 책은 다윈의 <종의 기원> 출간(1859), 멘델의 유전법칙 논문 발표(1865)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시대별, 주제별로 박진감 있게 엮어 간다. 피타고라스·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클릭, 모리스 윌킨스, 로절린드 프랭클린, 그리고 그들의 디엔에이(DNA) 연구를 격발시킨 양자역학의 에르빈 슈뢰딩거, 헌팅턴병 유전자와 승부한 웩슬러 게놈프로젝트 분석방법을 혁신한 크레이그 벤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영향을 준 미국 우생학자들과 그 희생자들까지. 그 좌절과 승리의 개인사들을 들춰내면서 사회적 배경과 엮고 더 유장한 역사적 맥락 속에 버무려 넣어 극적으로 펼쳐가는 솜씨가 탁월하다.<br/><br/> 배아줄기세포 조작까지, 유전에 관한 많은 비밀을 밝혀냈음에도 인간은 특정 유전자들이 각기 어떤 형질적 특성이나 병을 유발하는지, 얼마나 많은 유전자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관여하는지 아직도 거의 알지 못한단다. 무작위적 우연적 요소까지 겹치면 더 복잡해진다. 인간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를, 인류 존망이 걸린 유전자 개입의 기술적, 도덕적 난관을 순조롭게 타고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br/><br/> 한승동 선임기자 sdhan

언론사: 한겨레-2-257.txt

제목: 흐르는 콧물처럼  
날짜: 2017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8195855001  
ID: 01101001.201703081958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아들 권쥐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입학식 전날 새로 산 책가방을 끌어안고 잠든 게 엊그제 일 같은데 말이다. 심지어 지금은 등굣길에 있는 한의원부터는 자기 혼자 가겠다며 따라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 녀석이 자기 속도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에 맞춰 쑥쑥 크는 것만 같아서. 그런데 나도 그랬을까. 아침마다 권쥐를 한의원까지 바래다주면서 내 어린 시절이 어렴풋이 겹친다.<br/><br/> 어머니는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내 가슴에 커다란 손수건을 꿰매주셨다. 옛날에는 다들 그랬다는데, 가슴에 손수건을 꿰맨 아이는 전교에 나밖에 없었다. 최신 아동패션에 무관심한 편이었지만, 이건 아니구나 싶었다.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것 같다. 가슴에 손수건 좀 제발 떼 달라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span class='quot0'>그럼 니가 콧물을 흘리지 말든가.</span>”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 무렵부터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가슴에 우스꽝스러운 손수건을 떼고 싶다면 먼저 콧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게 됐다는 얘기다. 그 뒤로 나는 콧물을 필사적으로 삼켰다.<br/><br/> 물론 요즘에는 가슴에 손수건을 꿰맨 아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요즘 아이들이 콧물을 안 흘리는 건 아니다. 팔소매의 깨끗한 쪽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콧물을 닦아내는 꼼꼼한 아이도 있고, 친구 옷에 콧물을 몰래 묻히는 꼬롬한(치사하다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아이도 있고, 흐르는 콧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대범한 아이도 있다. 저마다 요령껏 콧물을 삼키고 닦아내는데, 3학년쯤 되면 대개 더는 콧물을 흘리지 않는다.<br/><br/> 그 대신 학교를 왜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적어도 권쥐는 그랬다. 권쥐뿐만 아니라 권쥐 주변에 ‘학교가 재밌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대체 왜 학교가 재미없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지루하다고 대답했고, 이놈의 학교는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싶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찍 많이 배워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가슴에 손수건을 꿰맨 아이는 찾아볼 수 없어도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 아이는 너무 많으니까.<br/><br/> “학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라는 대답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학원 문턱도 가본 적 없는 권쥐는 왜 학교가 재미없다고 하는 걸까. 학원에서 다 배운 주변 친구들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문득 내 아이만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주변 친구들도 같이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닐까. 말하자면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길 바라는 부모들은, 정작 자기 아이의 행복을 빼앗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br/><br/> 한번은 권쥐가 수수께끼를 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중 하나인 칼리포르늄은 1그램에 310억원 하는데, 이게 10그램 있으면 얼마일까요? 즐겨 보던 만화책에 암치료제로도 쓰이는 칼리포르늄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3100억원이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했고, 권쥐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힐 수 있냐며 나를 마치 인공지능 컴퓨터라도 되는 것처럼 신기한 눈빛으로 우러러봤다. 권쥐는 답을 계산할 때 310억을 성실히 열 번 더했던 것이었다. 칼리포르늄은 알면서 10단위의 곱셈은 몰랐던 것이었다.<br/><br/>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권쥐에게 10단위 곱셈법을 가르쳐줬다. 어떤 수에 10이나 100을 곱할 때는 일일이 더하지 말고, 어떤 수 뒤에 0의 개수를 더해서 읽으면 된다고 설명해줬다. 권쥐는 제법 잘 알아들었고, 내가 예로 든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곱셈의 앞뒤를 바꾼 응용문제를 하나 더 냈다. “<span class='quot0'>그럼 10 곱하기 15는 얼마일까요?</span>” 권쥐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다 짜증을 내며 말했다. “<span class='quot0'>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걸 내면 어떡해!</span>”<br/><br/>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구구단도 겨우 외우는 녀석에게 괜한 걸 가르쳐줬나 싶었다. 무엇보다 권쥐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인생은 10이나 100을 곱하는 것처럼 어림잡을 수 없다는 걸. 미련스럽지만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았다.<br/><br/> 권용득 만화가·<하나같이 다들 제멋대로> 지은이

언론사: 한겨레-2-258.txt

제목: “내포신도시 ‘다이옥신 발전소’ 반대”  
날짜: 20170307  
기자: 최예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7171811001  
ID: 01101001.20170307171811001  
카테고리: 지역>경남  
본문: 충남 홍성·예산에 걸쳐 있는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쓸 고형연료(에스아르에프, Solid Refuse)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전에서 옮겨와 인구 10만명 규모의 계획도시로 조성되고 있다.<br/><br/> 내포신도시 아파트 5곳 주민 등으로 꾸려진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 투쟁 위원회’는 7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거 지역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 고형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은 미량이라도 암과 기형아 출산 등 환경·건강 피해를 낳는다. 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 민간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내포신도시 6만8778㎡에 열공급능력 394.4G㎈/h, 전력생산능력 97㎼규모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2015년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해 12월 엘엔지(LNG) 열전용 보일러 시설을 착공했으며, 2019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엘엔지 78%, 에스아르에프 22% 등 연료를 태워 발전·생산한 열은 내포신도시 주민 10만여명에게 공급하고,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계획이다.<br/><br/> 주민들은 비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재처리해 연료로 만든 고형연료의 환경 오염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 고형연료는 태울 때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합발전소는 500세대가 들어설 주택 단지와 직선거리로 50m, 9272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500m 떨어진 곳에 짓고 있다. 발전소 투쟁위는 “발전소가 운영되면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 도와 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관련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br/><br/> 하지만 충남도는 주민 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태도다. 도는 2010년께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 엘엔지 발전소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나서지 않아 불가피하게 열병합발전소로 계획을 수정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주민 설명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해명했다. 원종철 충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 주무관은 “발전소에 저감 시설이 있고, 배출 허용량도 법정 기준치보다 10배 강화해 실제로는 환경피해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최근 입주한 주민들 중심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 주민들은 100% 엘엔지 발전소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는 예상 인구가 10만명인데 LNG발전소를 운영하기에는 수익성이 아예 없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에스아르에프의 연료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r/><br/>최예린 기자 floye

언론사: 한겨레-2-259.txt

제목: 기장군수가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1인 시위 벌이는 까닭은?  
날짜: 20170307  
기자: 김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7162821002  
ID: 01101001.20170307162821002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span>”<br/><br/>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가 아니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였다. 자치단체장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원자력안전위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br/><br/> 오 군수가 서울까지 달려가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기장군에 들어설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를 독촉하기 위해서다. 애초 이달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아 2019년 3월까지 2년 더 늦어졌다는 것이다.<br/><br/> 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설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기다리는 업체 30여곳의 유치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은 설계지진 0.2g(규모 6.0)인데 0.3g(규모 7.0)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왜 중단시키는 것인지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span>”고 촉구했다.<br/><br/>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건설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24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 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면 이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며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br/><br/>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등의 연구와 생산을 하는 소형 연구로다.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 7월 공모에 나서 전국 자치단체 9개 가운데 기장군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2500억원, 시비와 군비 각 200억원 등 2900억원이며 147만7000㎡ 규모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안 13만㎡에 15㎿급 연구로 1기가 들어선다.<br/><br/>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년 11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를 원자력안전위에 신청했다. 이어 2015년 11월 연구로 종합설계를 끝냈으며, 연구로가 들어설 터도 완공됐다. 김광수 기자 kskim

언론사: 한겨레-2-260.txt

제목: 뇌종양 재발암 환자 맞춤치료 길 열린다  
날짜: 20170307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7010847001  
ID: 01101001.2017030701084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뇌종양 유전체의 시공간적 구조를 분석한 맞춤치료의 효과성을 밝혀냈다. 이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맞춤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4~5년 이내에 임상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br/><br/>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이 뇌종양 유전체의 시공간적 구조 분석을 통해 표적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콜림비아대 라울 라바단 교수팀과 협력해 이루어졌다.<br/><br/> 이번 연구는 기존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표적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특히 뇌종양 가운데 가장 치료가 힘든 악성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치료법 개발을 위해, 종양의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해낸 것이다. 교모세포종은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아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br/><br/> 국내 52명의 교모세포종 환자로부터 127건의 원발암(암세포가 처음 발생한 부위의 암)과 재발암의 유전체 구조 및 약물반응성 등을 분석한 결과, 서로 떨어져있는 종양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원발암과 원거리에서 재발한 종양은 상대적으로 상이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치료 후 재발에 따른 유전체 진화와 종양 발생위치에 따른 유전체 다양성 등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밝혀낸 것이다.<br/><br/>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의 남도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개인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료에 적용해, 난치암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

언론사: 한겨레-2-261.txt

제목: 인공지능 기술 숨가쁜 발전 배경엔 ‘공유와 개방’ 문화  
날짜: 20170306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6223811001  
ID: 01101001.20170306223811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1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에 바둑 대결이 펼쳐졌다. 이세돌의 1-4 패배는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을 몰랐던 이들에게 충격이었고, 불안과 공포로 확산됐다. 이세돌-알파고 대국 이후 지난 1년간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가정, 일터, 학교, 산업계와 정부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됐다.<br/><br/> 알파고 덕분에 알려진 인공지능의 세계는 놀라웠다. 컴퓨터는 사진에서 자동으로 사물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설명을 달았다. 지난해 11월 개선된 구글 번역은 주요 언어들 간 전문 통번역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율주행, 퀴즈대회, 암진단 등 인공지능이 활용된 영역마다 로봇은 인간을 뛰어넘는 성과를 과시했다.<br/><br/> 1956년 미국 다트머스대학 콘퍼런스에서 처음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래 60여년간 지속적 발전을 해온 결과이지만, 인공지능이 학계와 업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대중적 이벤트와 성취 덕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알파고에 적용된 ‘심화신경망’ 방식의 딥러닝이 이미지 인식, 자연어 인식, 통번역 등의 영역에 적용된 결과다. 기계가 사람처럼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인지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드론, 무기 등 고도의 판단과 정교한 실행이 필요한 영역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이처럼 광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접근법과 구별되는 고유의 연구개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방과 공유, 오픈소스 문화이다.<br/><br/> <br/><br/> ■ 개방과 공유, 오픈소스<br/><br/> 인공지능 연구에 필수적인 개발 플랫폼과 핵심 개발도구가 개방되어 누구나 활용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br/><br/>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인 딥마인드랩을 공개해 누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테스트해볼 수 있게 했다. 구글은 이미 2015년 11월 머신러닝과 신경망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모둠 텐서플로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페이스북도 개방형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인 토치를 기반으로 제작된 딥러닝 모델들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15년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인식 기능의 인공지능 개발도구를 개방했다. 인공지능 도우미 코타나, 스카이프의 자동번역 기술도 오픈소스화했다. 2016년 4월 테슬라자동차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10억달러 규모의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관(OpenAI)을 공동출자로 설립해 모든 연구성과를 공개하기로 했다.<br/><br/> 인공지능 연구성과물을 오픈소스로 개방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검토 기간과 절차를 거치는 기존의 논문 평가 방식 대신 연구와 성과를 즉시 공개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권위있는 학회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위원 평가(피어 리뷰)를 통해 심사하고 학술지를 통해 공개해온 기존 연구평가 관행에 대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명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논문과 실험 자료를 오픈 아카이브(arXiv)에 등록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검토와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학회지 논문으로 공식 발표되기 이전까지 비공개되던 논문과 실험자료에 대해 공개 접근(오픈 액세스)이 이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br/><br/> 이런 배경엔 딥러닝 연구의 돌파구를 연 제프리 힌턴, 요슈아 벤지오, 얀 르쿤 등 학계의 리더들이 값진 연구성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확산되고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br/><br/> <br/><br/> ■ 개방의 배경<br/><br/> 김인중 한동대 교수(전산학)는 지난 7일 판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알파고 대국 이후 1년, 인공지능 이슈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span class='quot0'>보통 논문심사에 1년 이상 걸리고 후속 연구가 2~3년 뒤에 가능했던 것에 비해 최근엔 인공지능 연구 공유 사이트를 통해 논문이 선공개되어 반년 만에 후속 연구가 나오는 환경이 됐다</span>”고 발표했다.<br/><br/> 인공지능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개방과 공유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업계와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인공지능 분야는 명문대학의 인기 강의 상당부분이 개방형 온라인 강의(MOOC)로 제공되고 있다. 서배스천 스런 스탠퍼드대 교수가 개설한 인공지능 입문 강의에는 세계에서 16만명이 수강하며 ‘세계 최대의 강의실’이 만들어지는 기록을 만들어냈다.<br/><br/> 시장 수요가 많고 영향력이 막대한 최첨단 기술이 동시에 가장 개방적인 환경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이 분야 선구자들이 오픈소스와 개방을 통한 기술 발전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업계의 경쟁도 배경이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아이비엠 등 컴퓨터와 모바일 경쟁에서 기술 플랫폼의 위력을 절감한 정보기술 거대기업들이 개발자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개방과 공유로 나타나고 있다.<br/><br/> 인공지능은 기존의 모든 분야에 결합되어 활용되면서 전기가 산업구조를 바꾼 것처럼 광범하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은 특유의 오픈소스 문화를 배경으로 어떤 영역보다 정보 개방과 지식의 공유가 만들어내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부문으로 파급되듯 인공지능 연구개발 관행이 기존의 전통적이고 엄격한 다른 학술과 연구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br/><br/>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

언론사: 한겨레-2-262.txt

제목: 정치인과 자본가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잖아요  
날짜: 2017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3213857001  
ID: 01101001.20170303213857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사무친 원한은 맹독을 품고 있다. 원한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힘없는 희생자에게 무정한 세상인심,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한 이웃들에 대해서도 포한이 맺힌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증오를 낳고, 많은 이들은 그 저주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 거칠고 강퍅해진다. 누군가 그 저주의 사슬에 속박당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과 애정을 긴 세월 지켜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존경받아 마땅하다.<br/><br/> 10년째 외롭게 싸우는 사내를 만났다. 속초 사람 황상기(62). 지난 10년간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어간 딸 유미, 병들어 돌아온 손녀딸을 본 충격에 세상을 뜬 노모, 딸의 죽음 이후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택시기사인 그는 지난 10년간 온전한 밥벌이를 포기했고, 일주일의 반을 거리에서 노숙한다. 그런데 그의 유순한 얼굴엔 여전히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가 가득하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그는 어떻게 긴 세월 곰삭여 왔을까?<br/><br/>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 농성장으로 그를 찾아갔다. 때아닌 겨울비로, 얼기설기 씌워놓은 농성장 비닐덮개엔 군데군데 사발처럼 물이 고였다. 출입구도 따로 없어 주름진 비닐 포장을 걷어 올리고 머리를 낮게 디밀어 농성장으로 들어서는 동안, 비닐에 고여 있던 빗물이 물폭탄처럼 쏟아졌다. 그는 <알자지라> 방송팀과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br/><br/> “기업을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요….”<br/><br/> 저런 인터뷰를 수백 번도 더 했을 법한데, 그는 수줍은 모범생처럼 반듯한 자세로 곧추앉아 토씨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그의 발치에 밀어놓은 짜장면 그릇이 보였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다. 농성장의 방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점심도 거르고 있었나 보다. 알자지라 팀이 떠난 뒤, 식사부터 하시라고 권하자 마지못해 짜장면 포장을 벗기던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말했다.<br/><br/> “커피 타 디릴게요. 혼자만 먹자니….”<br/><br/>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서야 그는 불어터진 짜장면을 휘휘 젓기 시작했다. 고개 숙인 그의 어깨 너머로, 오래전 한 대학생이 만들어 증정했다는 소녀상이 보였다. 가녀린 어깨에 환자복을 입은 그의 딸, 황유미의 모습을 재현한 조각이었다.<br/><br/> <br/><br/> 죽어서라도 맑은 공기 속에 잠들기를<br/><br/> 딸 유미는 아빠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다. 2차 골수이식수술을 앞두고 피검사를 받기 위해 새벽 일찍 수원의 대학병원에 갔다가 속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횡성을 지날 무렵, 유미가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아, 더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차창을 조금 열고 10분쯤 갔을 때, 다시 유미가 말했다. “아, 추워.” 다시 창문을 올렸다. 잠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가 뒷좌석의 딸을 돌아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얘가 왜 이래?” <br/><br/> 차를 갓길에 세우고 뒷문을 열어보니 딸은 이미 눈자위가 돌아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었다. 유미는 그렇게 떠났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강하던 딸이었다. 아내가 울면서 딸아이의 눈을 감겼다. 2007년 3월6일. 그때 유미는 스물세살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br/><br/> -따님의 10주기가 다가옵니다. 해마다 앞서간 자식의 기일을 맞이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br/><br/> “<span class='quot0'>얼마 전에 유미 엄마하고 둘이서 유미 화장해서 뿌린 곳에 꽃 한 송이 사 들고 갔다 왔어요.</span>”<br/><br/> -어디다 뿌리셨어요?<br/><br/> “설악산의 울산바위 앞인데 거기 가면 바다도 보이고 울산바위도 정면으로 보여요. 유미는 반도체공장에서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화학약품 냄새 없는 곳에서 지내라고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 뿌려줬어요.”<br/><br/> -살아 있었다면 서른셋이 되었겠네요. 결혼하고 아이엄마가 되었을 수도 있는 나이예요.<br/><br/> “유미 친구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걔네들 결혼해서 애들 하나둘씩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유미 생각이 저절로 나요.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벌써 10년째 추모제를 하고 있어요.”<br/><br/> -이번 기일을 앞두고 수원에서 79명의 방진복 행진을 한다고 들었어요. <br/><br/> “그동안 삼성 반도체와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백혈병이나 암으로 79명이 죽었거든요. 수원에 유미가 다니던 기흥반도체도 있고 화성반도체, 삼성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 반도체공장에서 쓰는 각종 화학약품 때문에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고 죽는다는 걸 알려서 삼성 직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거기서 쓰는 화학물질이 수천종인데 어떤 유해물질을 쓰는지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여태껏 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br/><br/>상고 졸업반 때 삼성 취업한 자랑스런 딸 속초터미널 떠날 때 웃으며 배웅했는데 2년도 채 안돼 딸에게 걸려온 전화 “하늘 무너지는 것같이” 아득했다 부모는 새집 지으려 모아둔 돈 헐어<br/><br/> 2차 골수이식수술 앞두고 검사 위해수원 병원 갔다가 속초 집 돌아오던 길 아빠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서 숨 거둬 화학약품 냄새 맡다 세상 떠난 딸 위해공기 맑고 경치 좋은 설악산에 뿌렸다<br/><br/>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었는데, 아직도 생산라인이나 공정이 바뀌지 않았단 말씀인가요?<br/><br/> “그 안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삼성만 알고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한테 거기서 쓰는 화학약품이 뭔지 정확히 안 알려주니까, 현장에서도 자세한 건 모르고 일하는 거죠.”<br/><br/>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현장점검도 안 했다고요?<br/><br/>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점검한 적 없고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화학약품 성분은 삼성하고 노동부만 가지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삼성의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 없대요.”<br/><br/> -2014년 2월에 황유미씨 실화를 토대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되고, 삼성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해 5월에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span class='quot1'>삼성전자 반도체와 엘시디의 산업재해 의심 피해자들에 대해 소홀했던 점을 사과한다</span>”고 발표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약속했고요. 그렇게 문제가 일단락된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br/><br/> “전 그게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두루뭉술하게 ‘삼성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한 사람들을 여태까지 방치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발병했는지’ 책임지는 말은 일절 안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보수적인 방송, 신문, 경제지에서 몇 달을 우려먹었어요. ‘이건희 체제가 물러나고 이재용 체제가 들어서서 삼성이 뭔가 달라졌다’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재용이가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몇 달 동안 해대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만 해놓고 대화를 싹 닫아버렸는데, 대화를 닫은 시기가 2015년 이재용이 최순실,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박근혜하고 집중적으로 대화하고 돈 줬던 시기하고 딱 겹치죠.”<br/><br/> <br/><br/> 삼성은 알지 못할 스머프의 힘<br/><br/> 오후 내내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간헐적으로 반복하고, 농성장 비닐덮개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아득한 꿈결처럼 현실감을 잃게 했다. 비닐덮개 바깥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 한복판이다. 44층짜리 휘황한 삼성 사옥의 유리벽 안에선 이 농성장이 어떻게 보일까? 변변한 천막도 아니고, 파라솔 우산을 가운데 세우고 얼기설기 프레임을 엮어 비닐과 은박커버로 덮은 두어 평 공간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농성을 벌여온 지도 500여일째. 2015년 10월15일 삼성전자가 피해자와의 중재기구인 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에 항의하면서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시작한 농성이다.<br/><br/> -농성장에는 얼마나 자주 오세요?<br/><br/> “일주일에 2, 3일 정도?”<br/><br/> -속초에서 개인택시 영업하시죠? 일주일에 2, 3일을 서울에 계시면 영업은 언제 하세요?<br/><br/> “<span class='quot0'>(웃음)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유미가 처음 2005년 6월 백혈병 진단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12~13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택시 영업은 조금밖에 못하고 있어요.</span>”<br/><br/> -날 추운데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br/><br/> “그나마 겨울엔 좀 견딜 만해요. 여름엔 더 힘들죠. 바람도 안 통하고 푹푹 찌고. 지금이니까 이 정도지, 처음엔 바닥에 스티로폼도 깔지 못하게 해서 경찰, 구청 직원, 삼성 경비들하고 한나절을 싸웠어요. 마침 길 가던 어떤 분이 ‘여보쇼, 이 사람들이 농성하려면 앉기도 하고 잠도 자야지, 이것까지 못 깔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경찰이랑 삼성 경비가 슬그머니 물러나더라고요.”<br/><br/>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한마디 거들면 도움이 되는군요.<br/><br/> “그럼요. 여길 누구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구청이랑 삼성에서 설치한 카메라 7~8대가 이 농성장 주변을 뺑 돌아가며 비추고 있거든요. 혼자 있다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여길 비웠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농성장 찾아와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나다가 빵 하나, 과일 하나 사와서 두고 가는 분도 계시고.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br/><br/> 이날도 농성장엔 세 명의 ‘도우미’가 와 있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젊은이들로 각자 자원해서 농성장 지킴이로 찾아온 거라고 했다. 행여 인터뷰를 방해할세라 좁은 구석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소곤소곤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우미들을 소개하며 그가 함박웃음을 지었다.<br/><br/> -그러면 그렇지, 삼성이 호락호락 자기들 대문 앞에 이런 농성장이 들어서는 걸 허용했을 리가 없지요. <br/><br/> “그러믄요. 아침 여섯시만 되면 경비들이 와서 일어나라고 깨우지, 밤새 진공 청소하는 차가 보란 듯이 주위를 돌면서 윙윙 소음을 내지, 요 앞에 피켓을 전시해 놓으니까 불법부착물이라고 구청이랑 경찰서에서 사람 나오지…. 우릴 쫓아내려고 얼마나 안달을 했게요.”<br/><br/> 저 높은 유리성 안의 삼성 임원들은 알까? 버섯처럼 둥근 비닐덮개 아래, 옹색하게 쭈그려 앉은 이들이 마냥 처량하거나 악에 받쳐 있지만은 않다는 걸. 버섯마을 스머프들처럼 온정과 위로와 평화를 나누는 곳. 농성장 비좁은 공간은 이들이 내뿜는 온기 덕인지, 생각보다 훈훈했다.<br/><br/> <br/><br/> 딸의 목숨값 500만원?<br/><br/> 유미는 3남매 중 둘째 딸이었다. 속초상고(현 속초설악고) 졸업반일 때 삼성에서 학교로 채용문의가 왔다. 성적 상위권 30% 이내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합격한 딸이 아버지는 마냥 대견했다. 2003년 10월 유미가 십여 명의 동기생들과 속초터미널을 떠날 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딸을 배웅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5년 5월, 딸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br/><br/> -몸이 아프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건가요?<br/><br/> “밥을 먹었는데 체해서 자꾸 토하고 열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으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약 먹어도 계속 아프다길래 병원 가서 주사 한방 맞으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를 입원시켰으니 내려오라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유미는 감기도 잘 안 걸릴 만큼 건강하던 아인데, 무슨 일로 가족을 부를까.”<br/><br/>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이” 아득했다. 다행히 맞는 골수를 찾아서 6개월 만에 골수이식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없는 살림에 병원비와 수술비를 장만하는 건 힘겨웠다. 새집을 지으려고 오랫동안 부부가 맞벌이로 모아온 돈과 자식들이 한푼 두푼 보내준 돈을 모두 헐어 유미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썼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까울 게 없었다. <br/><br/> -가족 중에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신 분 없나요? 가족력이라고 하죠?<br/><br/> “우리 아버지는 89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유미가 항암치료 받고 뼈만 앙상해져서 집에 돌아온 걸 보시곤 화병이 나셨어요. 며칠 동안 밥을 안 잡숫더니 설사를 내리 하곤 갑자기 돌아가셨죠. 76세에. 우리 집에 암 걸린 사람은 없어요.”<br/><br/> -그래서 산재를 의심하셨나요?<br/><br/> “첨엔 어떻게 치료해야 나을까만 생각하느라고 왜 병에 걸렸는지는 생각할 경황도 없었죠. 근데 유미한테 공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하니까,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담갔다 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장의 과장이 병원에 왔길래 물어보니깐 ‘반도체공장에선 화학약품은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더라고요.”<br/><br/> 이듬해인 2006년 7월, 딸과 같은 라인 같은 조에서 일하던 이숙영씨도 백혈병에 걸려 숨졌다. 10만 명에 두세 명 걸린다는 백혈병이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두 명에게 동시에 닥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산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증거도, 증인도 찾기 어려웠다.<br/><br/> -삼성에 입사할 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br/><br/> “사실 나는 유미한테 전문대를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미가 자긴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까 공장에 취업해서 지 밑에 남동생 학비 대주고, 자기 번 돈으로 시집갈 준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때 더 세게 말릴걸,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br/><br/> 골수이식수술 후 유미의 부모는 정성을 다해 딸을 간병했다. 낡은 집에서 목욕탕이 변변치 않아 방 안에 통을 들여놓고 더운물을 퍼 날라서 목욕을 시키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딸이 애처로워 아버지의 택시 뒷좌석을 침대처럼 만들어 태우고는 꽃구경을 시켰다. 수술하고 기력이 조금씩 회복될 무렵, 삼성에서 과장이 찾아왔다. 사표를 받으러 왔다고 했다. 사표를 내더라도 산재 처리를 해달라 하니, 과장은 ‘산재는 무슨? 아버님이 이 큰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냐?’며 펄펄 뛰었다. <br/><br/> -그래서 뭐라셨어요?<br/><br/> “‘못 이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하래. 그래서 유미 병원비로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5천만원만 해달라고 했어요. 해줄 테니 당장 사표를 쓰라고 하면서 백지에 유미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갔어요.”<br/><br/> 삼성 측에 그가 보상금을 요구한 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극진한 간호에도 유미의 병은 재발했다. 사경을 헤매는 딸을 입원시키고 노심초사할 때 과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br/><br/> -병실로 찾아왔나요?<br/><br/> “아니, 병원 로비로 날 내려오라데요. ‘유미는 좀 어쩌냐?’는 얘긴 한마디도 안 물어봐. 100만원짜리 다섯 장을 들이밀면서 삼성에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로 해결하자는 거야. 기가 막히고 분해서 한 대 패버리고 싶은데, 그거라도 안 받으면 치료비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속아서 유미 사표를 쓰게 했구나 후회했죠. 그때부터 삼성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br/><br/> -왜 그때 달랑 500만원을 들고 나타난 걸까요? 그때 성심껏 성의 표시라도 했다면 선생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br/><br/> “그러게요. 삼성은 지금도 조금치도 안 변하고 똑같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무시하죠.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싸워도 아직까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대화 한마디를 하려 하지 않아요.”<br/><br/> 그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았다. 10억원을 주겠으니 언론이나 사회단체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자는 회유에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 입 다물라는 설득에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딸 치료비로 써버려 수리하지 못한 헌 집에는 지금도 여기저기 비가 샌다. 그러나 황유미의 아버지는 더 이상 삼성이 두렵지 않다.<br/><br/> <br/><br/> <br/><br/> <br/><br/>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br/><br/> 2014년 8월, 유미가 죽고 7년여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황유미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반올림’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황유미씨를 포함해 고작 6명뿐이다.<br/><br/> -그런데 왜 산재 소송에서 상대가 삼성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죠?<br/><br/>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성보험이라 삼성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요. 일하다가 병들거나 다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 백혈병은 산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거고요.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큰일 났다 싶었는지 삼성 측에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참가하라는 공문을 보냈대요. 곧바로 삼성에서 선임한 대형로펌 변호사 여섯 명이 이 사건에 달려들었죠.”<br/><br/> -보조참가인이 뭐예요?<br/><br/>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던데…. 산재 신청을 수리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삼성 편을 들고, 반도체 사업장 내부의 역학 조사를 한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도 삼성 편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공단 이사장이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br/><br/> 유미 실화 소재 영화 개봉돼 관심 끌자 삼성, ‘사과와 책임있는 보상’ 약속 “그건 사과 아니라 ‘변명’이라 생각해요”보수언론 앞세워 언론플레이 하더니이재용-박근혜 커넥션 시기와 딱 겹쳐<br/><br/> 삼성, “백혈병 3대 쟁점 모두 해결” 선언“거짓말이죠. 보상기준과 금액 들쑥날쑥”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의 미래?“삼성이 변해가는 시발점 되기 바라, 잘못 고치라고 끊임없이 압박할 수밖에 ” <br/><br/> -지난해 1월엔 삼성이 “<span class='quot2'>백혈병 이슈가 9년 만에 해결되고 3대 쟁점이 모두 해결되었다</span>”고 선언했어요. 사실인가요?<br/><br/> “아녜요. 삼성이 먼저, 제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막상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삼성이 발을 뺀 거예요.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이 1천억을 내서 그중 700억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피해자 보상과 치료에 쓰고 300억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내 옴부즈맨제도를 운용하는 데 쓰라’는 거였거든요. 삼성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피해자들과 직접 협의해 보상하는 데 1천억을 쓰겠다고 하면서 자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br/><br/> -실제로 1천억원을 보상과 치료에 쓰고 있어요?<br/><br/> “거짓말이죠. 보상기준과 보상금액이 들쑥날쑥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2억쯤 주고 어떤 사람은 2천~3천 안겨주고. 개별 합의서를 쓸 때도 합의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줬던 금액을 도로 회수해간다는 조건을 달아서 합의서도 주지 않고 도장만 받아간대요.”<br/><br/> -여기 신청해서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그 합의서 내용에 발목 잡혀서 다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곤란하겠군요. <br/><br/> “어렵겠죠.”<br/><br/> -반올림에서 함께 싸우던 피해자나 가족들도 그 제안에 응했지요? 10년을 끌어온 싸움인데, 피해를 증언할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네요.<br/><br/> “<span class='quot0'>네, 삼성의 농락으로 그렇게 된 거죠.</span>”<br/><br/> <br/><br/> “<span class='quot0'>저는 등 돌린 분들 이해해요</span>”<br/><br/>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중간에 무임승차한 몇몇 분들이 돈 몇 푼에 넘어간 것 같아서 부아가 나지 않으세요? <br/><br/>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면서 우리 싸우는 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삼성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대로 받아가는 거, 전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들도 가족을 잃거나 병에 걸려서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살 텐데 그동안 얼마나 속앓이를 했겠어요? 내가 열심히 싸우는 건, 그런 사람들 바꿔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삼성을 고쳐서 다음부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건 다 괜찮아요.”<br/><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어요. 그간 삼성이 저지른 수많은 위법과 비리의 빙산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까요?<br/><br/>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 순 없지만, 삼성이 새롭게 변해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요.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삼성의 그 엄청난 비리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한 처벌만이 삼성을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br/><br/>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서 10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삼성에 대해서 법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br/><br/> “그렇긴 한데요.(웃음) 여태까지 우리 세상을 보면 정치인, 자본가, 권력가에 의해서 세상이 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이 진화하고 변화한 건, 모두 다 노동자, 국민들의 항쟁과 시위에 의해서였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그 정부한테 잘못된 걸 고치라고 끈질기게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서 해줄 정부는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r/><br/>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용은 “정유라에게 300억을 내밀면서 삼성에서 일하다 숨진 황유미씨에게 고작 500만원을 내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아이 둘 가진 사람으로 가슴 아프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재용은 황유미의 영전에 조의를 표한 적도, 자기 사무실 앞에 500일째 농성하는 황상기를 찾아온 적도 없다. 황상기는 여전히 삼성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다. <br/><br/> 녹취 심지연 <br/><br/>▶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한겨레-2-263.txt

제목: 3월3일 인사  
날짜: 2017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2191802001  
ID: 01101001.2017030219180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기획재정부 ◇과장 △예산관리 장승대 △재정집행관리 박호성 △제도기획 이용욱 △경제협력기획 신준호<br/><br/> ⊙ 통일부 <승진> ◇서기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최석찬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정윤권 <전보> ◇과장급 △장관비서관 마경조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홍진석 △〃 〃기획〃 강연서<br/><br/> ⊙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손영환<br/><br/> ⊙ 한국학중앙연구원 △검사역 임종옥 △한국학진흥사업단장 김인섭(직무대리) △연구처 연구정책실장 조영준 △연구행정실장 조진한 △전통한국연구소장 구난희 △현대한국연구〃 이완범 △비교문화연구〃 소원현<br/><br/>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계재료평가실장 신호상 △방사능분석센터장 김철수 △월성주재검사팀장 이동훈<br/><b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최동선 △전문연구원 박동진 임건주<br/><br/> ⊙ 한국금융연수원 <승진> ◇부장 △유-러닝 황광기 △종합기획 최재홍 △총무 최근영 ◇2급 △연수운영부 이영란 △총무부 오남식 <전보> ◇부서장 △전산정보실장 유성호 △출판사업부장 신준수 △자격검정사업〃 이영대<br/><br/> ⊙ 한국농어촌공사 ◇개방형직위 △지역개발지원단장 고영학<br/><br/> ⊙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 구창서<br/><br/> ⊙ 중앙미디어그룹 <승격>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부장 김영일 염수열<br/><br/> ⊙ 서울파이낸스 △산업부장 전수영<br/><br/> ⊙ 문화방송(MBC) ◇국장 △감사(청탁금지법담당관 겸) 송성호 △심의 배연규 △기획 홍기백 △관계회사 박종형 △매체전략 방성철 △편성 김지은 △시사제작 조창호 △콘텐츠제작 홍상운 △라디오 유경민 △보도 문호철 △뉴미디어뉴스 김대환 △스포츠 김종현 △드라마1 한희 △〃2 최원석 △예능1 권석 △〃2 서창만 △디지털기술 이재명 △제작기술 이성근 △콘텐츠사업 김성우 △신성장사업 김학영 ◇실장 △논설위원 박용찬 ◇센터장 △보도국 취재 최혁재 △〃 편집1 허무호 △〃 〃2 주원극 △문화사업제작 강영은 △뉴미디어포맷개발 유정형 △인재경영 김남중 ◇특보 △전희영<br/><br/> ⊙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총괄에디터 이익원<br/><br/> ⊙ 머니투데이 더벨 △편집국 산업2부 부장직무대행 최명용<br/><br/> ⊙ 브릿지경제신문 ◇국장급 △편집국 전국부장 양승현<br/><br/> ⊙ 한국기자협회 △사무국 부장대우 송상미<br/><br/> ⊙ 경기대 △총장직무대행 김기흥 △특임부총장 박상철 ◇대학원장 △송태호(건축대학원장 겸) △서비스경영전문 엄길청 △정치전문 조성환 △관광전문 이경모 △예술(미술디자인대학원장·문화예술대학원장 겸) 박성현 △대체의학(대체의학센터장 겸) 김대권 △행정사회복지(행정대학원장·사회복지대학원장 겸) 김주환 △교육(교육연수원장 겸) 이헌대 △공학(이공대학장 겸) 최병정 ◇대학장 △융합교양 전준철 △인문사회(인문대학장·사회과학대학장 겸) 이경영 △경상 홍봉규 △관광문화(관광대학장·교학처장·건강증진센터분소장 겸) 한범수 △예술체육(예술대학장·체육대학장·스포츠과학대학원장 겸) 김성수 ◇처장 △법인사무(출판부장 겸) 박종필 △기획 이윤규 △교무 김동원 △교육혁신 이규정 △대외협력(국제교육원장 겸) 남경현 △학생지원(건강증진센터장 겸) 박경실 △입학 김현준 △인재개발(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겸) 김청송 △총무 문일환 ◇단장 △산학협력 이준성 △창업지원 김광희 ◇관장 △중앙도서관(금화도서관 겸) 안남연 △소성박물관 조광석 ◇주간 △신문방송사(방송국장 겸) 홍성철 ◇원장 △전산정보 김광훈 △인재개발처 대학생활상담 황혜정 △평생교육 김기영 △소성학술 백원칠 ◇센터장 △교육혁신처 교수학습개발 장지훈 △〃 산학연교육 고동완 ◇부단장 △산학협력 장태우 ◇담당관 △기획처 길성호 △학사지원 이병길 ◇실장 △체육 강신수<br/><br/> ⊙ 명지대 ◇팀장 △사무지원처 구매관재 전원기 △도서관 자연교정 학술정보봉사 김남재 △체육부 관리 양영진 △교목실 선교지원 송영호 △예술체육대 교학 윤강용<br/><br/> ⊙ 인천대 △부총장 이찬근<br/><br/> ⊙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우희종 △자유전공학부장 김청택 △연구부처장 이미옥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박용호 △환경안전원장 이병훈<br/><br/> ⊙ 고려대 △교육부총장 박길성 △연구〃 이관영 △문과대학장 정태헌 △정보보호대학원장(정보보호학부장 겸) 이상진 ◇원장 △KU-MAGIC 연구 김린 △융합연구 임도선 △국제교육 이동선<br/><br/> ⊙ 한예종 △무용원장 김선희 △한국예술연구소장 양정무 ◇과장 △음악원 성악 김영미 △〃 기악 이성주 △영상원 방송영상 김진혁 △〃 멀티미디어영상 조충연 △〃 애니메이션 이정민 △미술원 미술이론 조인수<br/><br/> ⊙ 강릉원주대 △학생생활관장 강영갑 △자연과학연구소장 이창호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 하태권<br/><br/> ⊙ 동아대 △한림생활관장 정영재 △법무·감사실장 손계수 △자연과학대 행정지원실장 김경봉 △법학전문대학원 〃 이헌수 △교육대학원 〃 이상헌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 곽동우<br/><br/> ⊙ 대전대 △총장 직무대리 손동현 △교학부총장(혜화봉사단장·융복합대학장·R&I학부장 겸) 선길균 △대외협력·경영〃(대학특성화사업단장·국가안전방재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겸) 박충화 △교무처장(융복합대학 부학장·복합학부장 겸) 최효철 △학생〃(혜화봉사단 부단장 겸) 원주연 △H-LAC학장 최병문 △학부교육선진화사업단장(교수학습개발원장 겸) 이봉한 △정보통신원장(차세대정보화추진사업단장 겸) 안요찬 △생활관장 김용수 △취·창업역량개발원장 송영규<br/><br/> ⊙ 충북대 △사회과학대학장 김일수 △경영〃 박유식 △약학〃 유환수 △의과〃 최영석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목 △재정사업기획부처장 이정미 △신문방송사 주간 조일수 △천문대장 김천휘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안재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유재수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장 배득렬<br/><br/> ⊙ 호서대 △학사부총장 고학림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채상훈 △더:함교육원장 성은현 △인문융합대 부학장 배경진 △생명보건대 〃 오두남 △과학기술융합대 〃 박성준 △생활관장 김민철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이문정 △국제협력원 부원장 김영우<br/><br/> ⊙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물류대학원장 권문규 △해양과학기술대학장 남종호 △해양군사〃 최명한<br/><br/> ⊙ 연세대 의료원 <보임>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정재호 △연세의생명연구원장 백순명 △연세의생명연구원 강남부원장 정석훈 △〃 송당암연구센터장 정현철 △동은의학박물관장 박형우 ◇부장 △연세의생명연구원 연구지원 김형표 △〃 실험동물 신성재 △연구정책개발 정호성 △강남1 이형근 △〃2 이영목 ◇센터소장 △심혈관계질환 유전체연구 이상학 ◇연구소장 △환경공해 신동천 △보건정책및관리 박은철 △열대의학 용태순 △소화기병 박승우 △알레르기 박중원 △인체조직복원 노태석 △세균내성 정석훈 △피부생물학 정기양 △척추신경 진동규 △관절경·관절 최종혁 △연의-생공연 메디컬융합 허용민 △뇌전증 허경 치과대 △치주조직재생연구장 조규성 △치의예과부장 조성원 △구강종양연구소장 차인호 세브란스병원 △내과부장 장양수 △외과〃 윤동섭 △유전자은행장 박영년 △세브란스체크업의원부원장 이종균 △창의센터장 김진영 △혈액관리의사 나현진 △VRE병동 책임관리〃 구남수 ◇과장 △소화기내과 이용찬 △호흡기내과 김영삼 △내분비내과 차봉수 △신장내과 강신욱 △알레르기내과 박중원 △감염내과 최준용 △류마티스내과 박용범 △신경과 허경 △피부과 정기양 △갑상선내분비외과 정웅윤 △중환자외상외과 이재길 △이식외과 김명수 △흉부외과 김대준 △정형외과 문성환 △성형외과 이원재 △산부인과 배상욱 △영상의학과 김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최종락 △응급의학과 박인철 △임상약리학과 박민수 △건강의학과 김승민 ◇소장 △국제진료소 인요한 △세브란스산업보건의원 원종욱 <센터> △응급진료 박인철 △소화기병 김원호 △당뇨병 차봉수 △신장병 김범석 △장기이식 김순일 △로봇내시경수술 한웅규 △VIP건강증진 김원호 △뇌종양 장종희 △골연부조직암 신규호 △세포치료 김현옥 △임상연구보호 라선영 △외상전문의수련 이재길 ◇차장 △응급진료센터 이재길 ◇실장 △소화기병센터 내시경검사 박승우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원장 허종기 △암〃 〃 박효진 △척추〃 진료부장 진동규 △암〃 〃 장항석 △치과〃 〃 박정원 △외과부장 장항석 △적정진료관리실 감염관리실장 정석훈 △심뇌혈관병원 심장센터소장 홍범기 △내분비·당뇨병센터〃 안철우 △응급진료센터〃 정성필 △강남세브란스체크업〃 이병권 △강남세브란스체크업 부소장 윤영훈 △유전자은행장 홍순원 △방사선 안전관리의사 전태주 △보건관리의사 이지원 ◇차장 △응급진료센터 최의영 주만기 ◇과장 △척추병원 척추정형외과 석경수 △〃 척추재활의학 강성웅 △호흡기내과 변민광 △감염내과 송영구 △피부 김수찬 △유방외과 정준 △갑상선내분비외과 장항석 △이식중환자외상외과 주만기 △소아외과 장항석 △흉부외과 이성수 △신경외과 김용배 △성형외과 노태석 △안과 이형근 △방사선종양학과 이익재 △병리과 홍순원 △응급의학과 정성필 △심장혈관외과 이기종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장 박진오 △진료부장 김형식 △교육수련〃 정수윤 ◇과장 △내과 이정은 △신경 홍지만 △소아청소년 오승환 △외과 이준상 △정형외과 김형식 △산부인과 채두병 △가정의학 정동혁 △영상의학 정수윤 △마취통증의학 박원선 △진단검사의학 김희정 △치과 전국진 ◇실장 △적정진료관리 이정은 치과대학병원 △통합진료과장 정복영 연세암병원 ◇센터장 △위암 형우진 △간암 최진섭 △대장암 안중배 △췌장담도암 박승우 △식도암 이상길 △폐암 백효채 △갑상선암 남기현 △혈액암 정준원 △부인암 김상운 △유방암 조영업 △비뇨기암 최영득 △두경부암 김세헌 △소아청소년암 한정우 △개인맞춤치료 백순명 △흉터성형레이저 이원재 ◇과장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종양내과 손주혁 재활병원 △원장 신지철 △재활의학과장 김용욱 △진료부장 김덕용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장 강석민 △소아심장〃 최재영 어린이병원 ◇과장 △소아신경 강훈철 △소아정형외 김현우 △소아영상의학 김명준<br/><br/> ⊙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유재선 ◇팀장 △경영정책 신학도 △정보보호 권오관 △노사협력 박병복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지원 조병호 △병동간호1 허정자 △〃2 서현기 강동경희대병원 △간호본부장 이혜진 ◇팀장 △간호교육행정 김해인 △병동간호1 최정순 △〃2 김미희 △특수병동 이인숙 △보험심사 고병재 △영상의학과 이래곤 △QPS 박인선 △국내교류 윤로사 △의무기록 송미라<br/><br/> ⊙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 이병서<br/><br/> ⊙ NH투자증권 △수완WM센터장 정환 △FICC파생운용부장 최한복<br/><br/> ⊙ 케이프투자증권 ◇부서장 △인사팀 이용

언론사: 한겨레-2-264.txt

제목: 아랫배 통증에 소변은 찔끔…탈 많은 ‘그곳’ 없애면 안돼요?  
날짜: 201703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302095819002  
ID: 01101001.2017030209581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립선 염증에 이제 비대증까지, 어디에 말하기도 힘든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다 보니 전립선이 왜 있어서 이러나 싶습니다. 아이도 다 낳고 해서 이제는 속시원하게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br/><br/> 이아무개(51)씨는 5년 전쯤에 소변을 보는데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또 소변보는 것과 관계없이 종종 항문 주위나 고환 근처에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을까 하다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통증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남성 동료들에게 증상에 대해 얘기하니, 한 동료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성병이 의심된다’며 병원을 빨리 찾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몇달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릴 기회도 없었다며 전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해당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근처 한 비뇨기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비뇨기과 의사가 성관계에 대해 묻기에 직장 동료에게 말한 것처럼 최근 몇달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고 답을 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br/><br/> 의사는 증상으로 봐서는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이 의심된다며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성병이나 요로 감염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전립선액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검사 요령을 듣고 이씨는 받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전립선액 검사는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마사지하면 전립선액이 소변처럼 나오는데, 이 액에서 세균이나 백혈구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는 “<span class='quot0'>항문에 손가락까지 넣어 검사하자는 말에 일단 약물치료부터 해보자고 얘기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약물을 처방했고, 이를 먹은 지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자 증상은 느끼지 못할 만큼 사라졌습니다. <br/><br/><br/><br/>40대 중반 남성, 소변 보다 통증 혹시 성병? 병원 찾으니 ‘전립선염’ 약 먹고 열흘 뒤 증상 사라져 환자 30만명 중 절반이 30~40대<br/><br/><br/><br/> 50살 되니 오줌 가늘어지고 잔뇨감 이번엔 염증 아닌 ‘전립선 비대증’ 큰 불편 못 느껴 약물치료 시작 안해<br/><br/><br/><br/> “<span class='quot1'>이러다 전립선암 걸리는 건 아닐까?</span>”염증·비대증이 암 위험 높이진 않아 담배 줄이고 운동으로 관리하기로배웅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항생제, 진통제, 알파차단제 등 약물요법과 함께 물리치료나 수술요법 등을 하기도 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이 빨리 없어지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개선되는 데 두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씨의 말대로 전립선염이 몇달 전부터 시작돼 성 기능에 장애가 있어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br/><br/> 전립선염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석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로 감염과 같은 세균 감염, 항문이나 고환 등 회음부의 반복적인 손상 등이 원인이나 자가면역질환, 화학적 자극, 신경근육 이상으로 생기기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노인들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로 감염이 악화되면 세균성 전립선염이 잘 나타나기도 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이씨처럼 전립선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주로 30~40대입니다.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립선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약 30만명이며, 이 가운데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인 48%가량입니다. 가장 많은 나이대는 이씨처럼 40대로 전체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해당됩니다. 반면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층이 많은 다른 질환과 달리 30~40대에 많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는 2011년에 견줘 약 2만8천명이 줄었습니다. 30~40대에 이 질환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석영 교수는 “<span class='quot3'>우리나라 40대 남성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반면 술이나 커피, 담배 등은 많이 마시거나 피우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3'>여기에 잠은 부족하고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 회음부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립선염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하루에 담배를 한갑 피우고, 술도 한번 마시는 자리에서 소주 2~3병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립선염이 나타나기 여섯달 전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저녁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씨 스스로도 스트레스, 술, 담배 등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술과 담배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은 자금 상태가 나아지면서 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3'>세상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span>”며 “<span class='quot3'>종종 골프를 치면서 운동을 하고 평소에는 헬스클럽을 찾고 있다</span>”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규칙적인 운동 덕분인지 다행히 이후로는 전립선염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br/><br/> 이처럼 한때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했던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소변 줄기가 다소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머리숱이 많지 않았지만 40대 중반부터 탈모가 급속하게 진행돼 스스로도 우울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때에 50대에 접어들자마자 소변보는 것까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span class='quot3'>예전 어른들이야 나이 쉰이 되면 폭삭 늙는다고 했지만 요새 50대는 거의 청년 수준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3'>탈모에 소변 줄기까지 약해지니 남들보다 빨리 늙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위축되면서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느낌마저 들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앓았던 전립선염이 재발한 것으로 여기고 또다시 비뇨기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증상을 듣더니 소변보기가 어려워진 증상과 관련해 증상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염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초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웅진 교수는 “<span class='quot4'>남성이 50대가 되면 전립선 안에 비대성 병변이 생기기 시작한다</span>”며 “<span class='quot4'>특히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인 이행대에서 비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방광 출구를 압박하면서 오줌 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는 것은 30대 중반부터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비대 역시 진행돼 60대 남성 10명 가운데 6명이, 80대에서는 9명가량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소변이 금방 나올 듯할 때 잘 참지 못하거나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는 증상도 있는데, 이씨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고 술을 많이 마신 날에만 밤에 깨어 소변을 보곤 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4'>20~30대에도 맥주 등을 많이 마시면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곤 해서 질환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br/><br/> 다행히 그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만큼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을 처방했고, 그는 약국에서 약을 샀지만 당장 먹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주의사항으로 감기약을 먹지 않을 것과 함께 과도한 음주는 삼가도록 말했습니다. 감기약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 단계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복부 비만이 증상이 빨리 진행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뱃살을 좀 줄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는 뱃살을 줄이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횟수를 늘리고 달리기 등과 같은 운동을 더 열심히 했지만, 몇달이 지나도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역시 술이 문제라고 여겼지만 업무상 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변보기가 다소 어려워진 증상은 개선되지도 않고 더 이상 심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뇨기과 병원도 다시 찾지 않다가 지난해 겨울에 감기에 걸려 종합감기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4'>감기약을 한번 먹은 뒤에 비뇨기과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span>”며 “<span class='quot4'>이미 먹은 뒤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감기약에는 기침을 줄이기 위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의 기능은 약화시키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는 좁게 만들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만 먹었기 때문인지, 전립선 비대증이 초기라서 그런지 그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br/><br/> 그가 상담을 해온 내용은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제거하면 어떻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4'>성병으로 의심까지 받은 전립선염에도 걸리고 이제 와서 전립선 비대증까지 앓다 보니 이제 전립선암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span>”며 “<span class='quot4'>나이 들어서는 필요도 없다는데 미리 제거하면 어떻냐</span>”는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밤톨 모양이라고 말하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조직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에 영양을 보급하는 구실을 합니다. 또 정자의 운동성을 돕는 구실도 하기 때문에 임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임신에는 자궁이 꼭 필요하지만, 노화에 따라 자궁에 자궁근종이나 자궁경부암 등과 같은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남성의 전립선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궁에 암이 생기는 등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는 한 여성에게 자궁적출술을 권하지 않는 것처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소변보는 것과 관련해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거나 합병증으로 방광에 돌이 생기거나 염증이 자주 재발하거나 혈뇨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술로써 전립선 조직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미리부터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설명에 그는 “<span class='quot4'>어디엔가 다 쓸 데가 있으니 몸에 붙어 있는 조직이겠지</span>”라며 제 말에 수긍하기는 했습니다. 그는 업무상 술과 육류 섭취를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담배는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전립선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4'>다른 곳 크게 아픈 데 없는데 전립선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노인이 돼간다는 생각에 건강관리를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길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아직도 약 없이 잘 버티는데, 운동 등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span>”고 말했습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65.txt

제목: 1일 인사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8192831002  
ID: 01101001.2017022819283100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 감사원 <승진>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감사교육원장 심호 <전보>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공직감찰본부장 이익형 △기획조정실장 손창동<br/><br/> ⊙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반상권 ◇ 과장급 △행정법무담당관 장대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 △미디어다양성정책〃 김성욱<br/><br/> ⊙ 기획재정부 ◇서기관 △홍보담당관실 문경호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주 △기업환경과 곽소희 △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 △정책총괄과 선문규 △인재경영과 임진상 ◇기술서기관 △타당성심사과 이철규<br/><br/> ⊙ 환경부 ◇과장급 △환경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이영석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이재 △원주지방〃 기획평가〃 정영대 △대구지방〃 기획평가〃 최동호<br/><br/> ⊙ 국방부 ◇서기관(과장급) △전력자원관리관실 군수품수명주기관리장 문희영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정현호<br/><br/> ⊙ 통일부 ◇과장급 △장관정책보좌관 김창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배윤수 △〃 교육기획팀장 신재표 △〃 〃훈련〃 이종희 <과장>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 김종우 △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 김훈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 소봉석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 배충남 △통일교육원 교육총괄 여상기 △〃 교육연수 이혜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 김명상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 이경 △〃 동해선운영 우계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 유재윤<br/><br/> ⊙ 해양수산부 <승진> ◇국장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신철 <전보> ◇국장급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태진 ◇과장급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 <과장> △어업정책 윤분도 △해양보전 장묘인 △수산자원정책 조일환<br/><br/> ⊙ 국민안전처 ◇서기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실 오장석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박상래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 성기선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 김춘식 ◇기술서기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총괄과 배상원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최기영<br/><br/> ⊙ 통계청 <임용> ◇고위공무원 △통계교육원장 임병권 <전보> ◇과장급 <사무소장> △경인청 서울 하봉채 △동북청 춘천 김응하 △〃 안동 유상길 △호남청 전주 김원태 △〃 제주 홍성희 <과장> △운영지원 송성헌 △통계정책 서운주 △통계조정 서경숙 △통계서비스기획 류제정 △경제총조사 이명호 △소득통계개발 김대유 △농어업통계 홍병석 △농어업동향 김진 △조사기획 김대호 △지역통계총괄 박진우 △교육기획 최정수 △경인청 사회조사 조경호 △동북청 조사지원 유상종 △〃 지역통계 유영호 △〃 경제조사 윤종호 △〃 사회조사 원정연 △〃 농어업조사 최인범 △호남청 조사지원 임철규 △〃 지역통계 송금영 △〃 농어업조사 박순찬 △동남청 조사지원 유호준<br/><br/> ⊙ 문화재청 <승진> ◇3급 <부이사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박한규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 조운연 △경복궁관리소장 우경준 ◇4급 <서기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철호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동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김한옥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여성희 <기술서기관>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이정연 <전보> ◇부이사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이상걸 ◇서기관 △대변인 박희웅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김동하 △창덕궁관리소장 이문갑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유건상 <과장>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 김종승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 안형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 이정훈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 이선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 김병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 김용휘 ◇기술서기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곽수철 △덕수궁관리소장 오성환 ◇학예연구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 이상준 △고고연구실장 임승경 △미술문화재연구〃 박대남 △보존과학연구〃 임종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이종훈 △국립강화문화재연구〃 이규훈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이동식 △전시홍보과장 문동수<br/><br/> ⊙ 산림청 ◇과장급 △정보통계담당관 신재희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광호<br/><br/> ⊙ 중소기업청 ◇서기관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김길상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진수웅<br/><br/> ⊙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 윤재영<br/><b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호정 △경영지원〃 김용구 △총무인사팀장 문준영<br/><br/> ⊙ 한국과학창의재단 <승진>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 연경남 △창조경제문화확산실장 허정회 <전보> △창조경제문화기획실장 박성균 △과학문화기획〃 김형진 △창의융합기획〃 허경호 △기획예산〃 박세만 △소프트웨어교육실 황태주<br/><br/> ⊙ 국립암센터 <연구소> △임상유전체분석실장 홍동완 ◇연구부장 △이행성연구부장 김용연 △융합기술연구부장 이상진 △임상의학연구부장 김호진 △암생물학연구부장 이창헌 △암역학예방연구부장 최일주 ◇연구과장 △암중개(유세포분석실장 겸) 공선영 △생체표지자 서호경(직무대리) △비교생명의학 윤경실(직무대리) △분자영상(동물분자영상실장 겸) 김석기 △면역치료(현미경영상실장 겸) 박은정 △혁신의료기술 손대경 △입자치료 김상수 △정밀의료 장희진 △신표적탐색 김선신(직무대리) △호발암 류근원 △희귀난치암 최성원(직무대리) △암발생전이 김경태(직무대리) △암미세환경 배영기(직무대리) △암역학 김미경 △바이오메트릭스 직무대리(의학통계분석실장 겸) 주정남 △암환자헬스케어 정소연(직무대리)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생존자지원과장 양형국(직무대리)<br/><br/> ⊙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정채용 △정보〃 김진성 △경영기획본부장 엄재성 △정보기술〃 최재항 ◇부장 △기획총괄 김유석 △포털운영 김시용(직무대리) △시스템품질 심혜숙(직무대리) △복지정보개발 한승원 △사회서비스사업 정희정<br/><br/> ⊙ 한국교육개발원 △경영지원국장 고경숙 △기관이전후속지원특임단장 지기섭 ◇실장 △기획조정본부 예산기획 장인식 △감사 김우종 <경영지원국> △총무 윤인철 △인사 이현주 △재무회계 임승호 △청사운영 성한규<br/><b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홍현표 옥영수 △연구위원 박광서 박수진 장원근 장홍석 김태일 하태영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봉태 이호춘 △전문연구원 김세원 신수환 이지은 박성화 윤재웅 안영균 △책임행정원 임영균 △선임행정원 유주영 <보직임명 및 부서이동> △수산업관측센터 연구감리위원 옥영수 △수산연구본부 〃 홍현표 △감사실장 정흥교 △수산업관측센터장 김대영 ◇실장 △수산정책연구 장홍석 △인재개발 이제영 △재무회계 임영균 △행정지원 오성휘<br/><br/>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성과확산팀장 책임관리원 최종상<br/><br/> ⊙ 한국광해관리공단 <승진> ◇1급 △지역진흥실장 최재익 △영남지사 광해사업팀장 임영철 ◇2급 <팀장> △정보관리 김정아 △총무 강대문 △사업기획 정영국 △지반광미사업 심재천 <전보> ◇처장 △기획조정 현정석 △경영지원 김봉섭 △사업기획 이상창 △석연탄지원 홍인기 ◇원장 △광해기술 조정구 ◇센터장 △기술연구 이상환 △글로벌협력 김태혁 △분석 심연식 ◇팀장 △기술협력기획 이진수 △경인지사사업관리 안소영 △호남지사 사업관리 김성수<br/><br/> ⊙ 한국원양산업협회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이동욱<br/><br/> ⊙ 조선일보 △발행인·편집인·인쇄인(부사장 겸) 홍준호 △부사장 방준오 △주필 양상훈 △AD본부장 이광회<br/><br/> ⊙ 스포츠조선 ◇팀장 △편집국 모바일 김성원 △편집국 편집 양명우 △사업팀장 최재성<br/><br/> ⊙ 이투데이 ◇ 편집국 △산업1부 부장대우 정일환 △자본시장부 부장 한지운 △자본금융 전문기자 부장대우 김남현<br/><br/> ⊙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양무진<br/><br/> ⊙ 동국대 ◇서울교정 <법인파견> △의료원 일산행정처장 김재선 <전보> △남산학사(고양학사 관장 겸) 허광도 △미래캠퍼스개발추진본부 중·후문일대개발추진단장 신기훈 ◇경주교정 △국제교류팀장(국제학생지원센터장·국제학생교육센터장 겸) 박득현 △불교문화대학원·불교문화대학 학사운영실장 박치만 △경영대학원·상경대학 학사운영실장 배병국 <br/><br/> ⊙ 단국대 △천안부총장 김수복 △산학〃 어진우 △정보·지식대학원장 김오영 △음악대학장 홍성은 △예술〃 윤영덕 △국제〃 송동섭 △천안교정 입학처장 김종규 △〃 학생〃 이일석 △〃 생활관장 이정배 △산학협력단 부단장 서상철 △대외협력처 부처장 방장식<br/><br/> ⊙ 한양대 <서울교정> △입학처장 정재찬 <에리카교정> △예체능대학장 권태원<br/><br/> ⊙ 한성대 △기획처장 윤경준 △총무〃 조자연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서은경 △국방과학대학원장 구형회 △행정〃 전주상 △IPP사업단장(교육혁신원장·교무처장 겸) 조세홍 △벤처창업지원센터장(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김상현 △미래경영연구원장 홍용식 △창업지원단장 홍정완 △국제교류원장(언어교육센터장 겸) 김승천 △IPP사업단 부단장 장명희<br/><br/> ⊙ 경상대 ◇학장 △본부 정종일(직무대리) △공과 변재현 △약학 배은영 ◇부학(원)장 △공과 교학부학장 윤석헌 △〃 연구〃 이정훈 △간호 〃 은영 △약학 〃 김민갑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부원장 박재현 ◇부속기관장·연구원(소)장 △여성연구소장 엄순영 △약학〃 한선영 △인문학〃 정영훈 △건강과학연구원장 김덕룡 △사회과학〃 김영석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윤일중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장 심상인<br/><br/> ⊙ 부산대 △생활환경대학장 김희화 △예술〃 박은화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준우 △치의학〃 조봉혜<br/><br/> ⊙ 대구대 △교육대학원장(특수교육대학원장 겸) 이해균 △경상대학장 이원돈 △자연과학〃 김종태 △조형예술〃(디자인대학원장 겸) 정준현 △사범〃(교원양성지원센터소장 겸) 정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단장 겸) 전은영 △중앙박물관장 윤재운 △언론출판문화원장 이가연 △교육대학원 부원장(특수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박용찬 △산학융합부〃 박세현 △창업전담부〃(창업보육센터소장 겸) 권순재 △HACCP교육원장 김성호 △LINC성과 확산추진단장 최병재 △〃 〃 사업관리실장 장중혁 △〃 〃 교육지원〃 안성훈 △부속농장장 조익환 △부속연습림장 안세희 △고령사회연구소장 김미령 △창업지원센터소장 정인준 △창업교육〃 이재현 △소프트웨어교육〃 강신재 △듀얼공동훈련〃 박경수<br/><br/> ⊙ 군산대 △예술대학장 오임춘 △사회과학〃(경영행정대학원장 겸) 최득 △자연과학〃 이철상 △산학융합공과〃(새만금교정 본부장 겸) 윤준원 △정보전산원장 양현호 △학생생활관장 이민아 △언론사주간 오원환<br/><br/> ⊙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장 김혜경 △대학원 교학처장 안덕임<br/><br/> ⊙ 경북대 △사범대학장 박윤배 △과학기술〃 이광호<br/><br/> ⊙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정낙현 △사회과학대학장 김병문 △자연과학〃 정규영 △공과〃 박경봉 △농업개발원장 김용균 △과학영재교육〃 권보섭 △예술·체육대학부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 우상구 △〃 〃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연수부장 한태경 △산학협력단 산학연계지원본부장 이철희 △〃 토양분석센터장 김정진<br/><br/> ⊙ 명지대 △인문교정·자연교정 보건의료센터장 채의병 △축구감독 김경래 △배구감독 류중탁 △축구코치 김진선 △자연캠퍼스부설사회교육원 신갈어린이집 원장 박명희 △교목 정대경 이승호 ◇주임교수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사회복지학학과간협동과정 겸) 백주희 △예술체육대 체육학부 사회체육학전공 김상유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노갑택 △대학원 심리재활학학과간협동과정 홍혜영 △〃 에너지융합공학과 정욱진 △〃 보안경영학과 류연승 △산업대학원 세라믹아트공학과 황동하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기현석 △〃 상담교육전공 이자명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대학원 유통물류학과 겸) 노정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이승휘 <사회교육원> △공연예술과정 최수용 △문화콘텐츠과정 한재규 △아동교육강사과정(상담과정 겸) 이인실 △건강관리과정 이찬형 △스포츠예술과정 이선경 △사회복지사양성과정 고명석 △사회복지과정 이중엽 △실용음악과정 임경재 △축구과정 김희태 △항공보안스포츠과정 강경수 △한국음악과정 강종화 △생활체육과정 김희연 △항공서비스경영과정(항공지상직경영과정 겸) 김세규 <자연교정부설사회교육원> △바둑과정 정수현 △기공치유과정 박현옥 △무용과정 심규순 △도예과정 우난희 △테니스아카데미 권중승 △목공예과정 소필수<br/><br/> ⊙ 동부증권 <보임> ◇팀장 △SP 조규태 △FAS2 김대용 △캐피털금융 안종철 <전보> △프로덕트 센터장 이명기<br/><br/> ⊙ 메트라이프생명 △최고재무책임자(부사장) 송영록 △법무·대외협력 담당(전무) 백채은

언론사: 한겨레-2-266.txt

제목: 3월 1일 동정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8191811003  
ID: 01101001.20170228191811003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 박명환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연구팀은 최근 MIT공대와 하버드 의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간단한 혈액검사로 암 진단 및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암세포 진단칩'을 개발했다.<br/><br/> ⊙ 김선욱 숭실대 교수는 25일 한국아렌트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br/><br/> ⊙ 김민호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28일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편집자문위원에 위촉됐다.<br/><br/> ⊙ 이용훈 부산대 수학과 교수는 28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자연과학단장에 선임됐다.<br/><br/> ⊙ 국카스텐(밴드)은 19일 오후 7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단독공연을 열고 수익금 전액을 날개달기운동본부를 통해 의료비 지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언론사: 한겨레-2-267.txt

제목: [나는 역사다] 2월28일의 사람, 로절린드 프랭클린(1920~1958)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7191854001  
ID: 01101001.2017022719185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분자의 내부, 현미경으로도 못 보는 작은 구조를 어떻게 관찰할까? 엑스선 사진이 한 방법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그 권위자. 그런데 연구소 고참 윌킨스와 사이가 나빴다. 윌킨스는 디엔에이(DNA)를 연구하다가 다른 연구소 사람과 상의했고, 그 과정에서 프랭클린이 찍은 엑스선 사진을 허락도 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결정적 힌트를 얻은 두 사람이, 유명한 왓슨과 크릭. 디엔에이의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추리한 날이 1953년 2월28일.<br/><br/> <br/><br/> 세 사람은 1962년에 노벨상을 받는다. 프랭클린은 받지 못했다. 암 때문에 서른일곱의 이른 나이로 1958년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왓슨이 훗날 프랭클린을 ‘성격 나쁜 여성과학자’로 회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 왓슨의 뻔뻔함에 화난 사람들은 프랭클린이 ‘남성 과학자 집단에 따돌림당한 순교자’라 주장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br/><br/> 전기작가 브렌다 매덕스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마녀’도 ‘왕따’도 아니었던 것 같다. 일찍부터 인정받았고 친구도 많았다. 석탄과 바이러스 연구에서도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단다. ‘차별에 희생된 피해자’가 아니라 ‘성공한 전문직 여성’의 모습으로 프랭클린을 빚어보았다. <br/><br/> 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2-268.txt

제목: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2015년보다 11.4% 증가해  
날짜: 2017022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7172848001  
ID: 01101001.2017022717284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64조5768억원으로 2015년의 57조9546억원에 견줘 11.4%(6조6221억원)가 늘어 2010년 이후 최대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10년에 이전해보다 10.9% 증가했으며, 이후로는 매년 3.4~6.7% 느는 데 그쳤다.<br/><br/> 배경으로는 우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비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24조9896억원으로 이전해보다 2조7715억원이 늘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꼽힌다.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모두 14조9369억원으로 이전해보다 1조9870억원이 증가했다. 이밖에 임플란트 등 치과 보험확대 등도 중요한 원인이었다.<br/><br/>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진료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2.7%(645만명)이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8.7%에 해당하는 25조187억원에 달했다. 노인 1인당 한달 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2015년보다 3만2840원이 증가했다. <br/><br/> 지난해 가구당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8128원으로 2015년보다 4.3% 늘었다. 직장가입자는 10만4507원, 지역가입자는 8만4531원이었다. 상위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강남성모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이들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838억원으로 2015년보다 22.8%나 증가했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69.txt

제목: 경로당에 젊은 주치의가 생겼다  
날짜: 20170227  
기자: 오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7171838001  
ID: 01101001.201702271718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로당에 젊은 주치의가 생겼다. 두서너 개씩 병을 안고 사는 노인들은 ‘연속극’보다 이들을 기다린다.<br/><br/> 충북 영동군은 올해 ‘경로당 주치의’ 대상을 66곳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5년 44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핸 66곳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3734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7명은 위암 등 중병을 조기 발견하기도 했다.<br/><br/> 경로당 주치의는 지역에 변변한 병원이 없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을 위해 보건소 공중보건의 등이 경로당을 찾아가 노인들의 질환 등을 직접 보살피는 제도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20명(내과 11명, 한의과 9명)과 보건·간호 공무원 11명 등 31명이 경로당 주치의다. 최영옥 영동군 보건소 진료팀장은 “버스조차 잘 다니지 않아 병원·보건소 찾기가 쉽지 않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간다. 워낙 수요가 많고, 반응이 좋아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br/><br/> <br/><br/> 군은 지역 11개 읍·면을 나눠 4~8명의 경로당 주치의들이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경로당을 찾는다. 혈압·당뇨·치매·우울증 등 검진에서 시작해 침·뜸 등 진료, 건강 상담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종희(72)씨는 “노인들은 고혈압·당뇨 등 질환을 달고 살지만 주변에 병원이 없어 대개 참거나 약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젊은 의사들이 찾아와 진료해 주니 여간 든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br/><br/> 공중보건의 김준휘(35)씨는 “암을 조기 발견해 진료를 권한 적도 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질환을 안고 있어 놀랍고, 때론 힘겹기도 하지만 보람을 느낀다. 인력·예산 등 여건이 갖춰지면 확산해도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br/><br/>오윤주 기자 sting

언론사: 한겨레-2-270.txt

제목: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92개 더 생긴다  
날짜: 20170227  
기자: 최우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7152826002  
ID: 01101001.20170227152826002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서울시가 올해 야구장과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92개 생활체육시설을 더 만든다. <br/><br/> 서울시는 올해 357억원을 들여 17개 종목 92개 생활체육시설을 만든다고 27일 발표했다. 야구장 3곳, 축구장 2곳, 농구장 3곳, 풋살장 4곳, 테니스장 12곳, 배드민턴 52곳, 게이트볼 4곳 등이다. 주요 장소는 중랑구 신내동 차량기지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각각 1곳씩,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북돌이동산에 야구장 1곳, 안양천변 국유지 안에 야구장과 골프장 각각 1곳, 도림 유수지 안에 실내배드민턴장 12곳(코트)과 인공암벽장 1곳, 고척돔구장 안에 풋살장 2곳, 중랑천변 국유지에 국궁장, 테니스장, 농구장 각 1개씩 등이다. <br/><br/>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994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 생활체육시설을 꾸준히 늘려 25개 종목, 215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었다. 내년엔 72곳의 시설을 더 만들 계획이다. <br/><br/>최우리 기자 ecowoori

언론사: 한겨레-2-271.txt

제목: 1만년 뒤 인류는 핵쓰레기 알아볼 수 있을까  
날짜: 20170226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6214808001  
ID: 01101001.2017022621480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879년 스페인 북동부 한 시골에서 다섯살짜리 소녀가 들소가 그려진 동굴벽화를 발견했다. 변호사이자 고미술품 수집가인 소녀의 아버지는 그림이 구석기 시대에 그려졌다는 주장을 폈다. 살아생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의 추론은 사실로 밝혀졌고, 벽화는 3만~2만5천년 전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검증됐다.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구제역을 경고하기 위한 ‘들소의 무덤’ 표식이라면?<br/><br/> 절대 그런 표지일 리 없겠지만, 우리는 3만년 전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우리에게 그림을 남겼듯 수만년 뒤 지구에서 살고 있을 후대인류에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표식을 남겨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원료로 태우고 남는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 물질 덩어리여서 땅속에 1만~10만년을 묻어두어야 한다. 이유는 이렇다.<br/><br/> 경수로의 경우 우라늄(U-235와 U-238)으로 만든 연료봉을 3년 동안 태우고 나서 폐기물로 끄집어낸다. 여기에는 플루토늄(Pu-239)과 넵투늄(Np-237), 아메리슘(Am-241) 등 고독성의 초우라늄원소(TRU) 등이 포함돼 있다. 우라늄도 여전히 93%가량이 남아 있다. 이들 원소의 산화물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사람들이 호흡할 때 허파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고독성이라는 것은 이들 핵종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사람 몸에 쬐었을 때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 원소의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플루토늄-239는 2만4천년, 넵투늄-237은 200만년, 아메리슘-241은 430년이다. 우라늄-235는 7억년, 우라늄-238은 지구 나이와 비슷한 45억년이다.<br/><br/> <br/><br/> 사용후핵연료 표시 어떻게 할까<br/><br/> 왜 사용후핵연료를 땅속에 묻어야 하는 기간이 1만~10만년일까? 최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처분연구부 책임연구원은 “1980년대 스웨덴에서 원전을 도입할 때 사업자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했다. 사업자는 핵연료가 붕괴를 거듭해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10만년 정도 필요하고 그동안 핵연료 폐기물을 부식하지 않는 용기에 넣어 처분하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데서 유래했다”고 말했다. 그 뒤 스웨덴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 처분용기 수명이 10만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한 경험을 보고 핀란드에서는 용기 수명을 1만년으로 바꿨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공포한 고시에는 수명이 ‘수천년’으로 표현돼 있다.<br/><br/> 지구 역사에서 수천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인류 역사로는 짧은 기간도 아니다. 현생인류가 출현한 게 4만년 전이다. 신석기가 시작한 건 1만년 전, 문자가 발생한 지는 4천~5천년밖에 안 됐다. 글자로 위험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데 경고로 작동하지 못했다. 세종대왕 덕에 현대 한국인은 한글을 쓰고 있지만 600년이 채 안 됐음에도 <용비어천가>를 술술 읽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br/><br/> 맹독성인 ‘사용후핵연료 무덤’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 2007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46년에 도입됐던 노란색 클로버 모양인 ‘전리방사선 위험경고’ 로고를 빨간색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다. 기존 방사선 로고와 함께 해골을 보고 달아나는 사람의 형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골은 19세기 해적들이 즐겨 썼던 모양이어서 자칫 보물을 숨겨둔 장소로 오해할 수도 있다.<br/><br/> 미국 에너지국(DOE)은 1991년 언어학자, 인류학자, 공상과학소설가, 미래학자, 과학자들로 팀을 꾸려 방사성폐기물심지층처분장(WIPP) 주위에 세울 표지물과 문구 연구에 들어갔다. 둘레 25㎞ 면적에 높이 30m짜리 가시 모양의 대형 석조물을 세우자는 방안과 위험을 알리는 만화가 제안됐지만 석조물 안이 채택됐다.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ANDRA)도 지난해 방폐장 표지 공모를 했다. 1등에는 땅 위에 결코 치료될 수 없을 것 같은 흉터를 남기자고 제안한 작품 ‘망각된 프로메테우스’에 돌아갔다. 독일에서는 거대한 인공 달을 띄워 경고 메시지를 전하자, 방사선을 쬐면 눈 색깔이 변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구전 노래나 신화·속담에 남겨놓자, ‘원자 사제직’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br/><br/> 하지만 인류는 땅 위에 세울 표지는커녕 사용후핵연료를 땅속에 묻는 일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가장 앞선 경우가 핀란드와 스웨덴인데, 400~500m 지하동굴에 핵연료 폐기물을 쌓아두는 처분장 인허가 신청을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제출한 상태다. 일러야 2020년대 중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심지하동굴처분 방식의 처분장을 만들어 2053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지하 500m는 가장 높은 토목건축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의 높이가 830m인 것에 견주면 결코 낮은 깊이는 아니다. 최희주 책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지하 500m에는 산소가 없어 처분용기가 부식할 염려가 거의 없다</span>”고 말했다. 민기복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땅속 깊을수록 암반이 균질해지고 틈이 있더라도 물이 흐를 수 있는 투수율이 낮아진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1999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던 지하 655m의 미국 방사성폐기물심지층처분장에서 2014년 방사능이 새어 나와 사용을 중단했다. 2008년 인허가 신청을 했던 미국 유카산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하 750m의 암염을 뚫어 만든 독일 아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방사성 물질 누출로 3조~6조원을 들여 12만6천 드럼의 핵폐기물을 끄집어내기로 했다.<br/><br/> 500m는 지구 반지름 6471㎞와 견주면 사과 껍질 두께보다도 더 얕은 깊이지만 우리는 땅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용후핵연료는 땅속 깊이 묻을수록 안전하다. 민기복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을 소개했다. 석유탐사나 온천개발, 지열발전 건설에 쓰이는 시추 기술로 땅속 5㎞까지 시추공을 뚫어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방식이다. 민 교수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투수율이 훨씬 낮아져 핵폐기물을 인간 세상과 더 멀리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동굴 방식보다 10배 멀리 놓으면 100배, 1000배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땅속 처분장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은 지하수를 통해 발생한다. 400~1000m 깊이의 국내 온천수를 조사해보니 수소이온농도(pH) 9~10에 이르는 강알칼리이고 음이온이 많으며 나트륨·칼륨 등이 많은 연령이 오래된 지하수가 많았다. 이런 지하수에서는 핵종이 흡착돼 이동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br/><br/> 땅속 깊이 뚫는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러시아에서는 과학연구 목적이지만 12.22㎞까지 뚫어본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서 4.2㎞까지 시추한 바 있다. 문제는 시추공 지름이다. 현재 기술의 한계는 8.5인치(21.6㎝)이다. 핵연료폐기장으로 쓰려면 적어도 두배는 돼야 한다. 이유는 경수로에 쓰이는 핵연료 다발 크기 때문이다. 핵연료봉은 약 1㎝가 조금 넘는다. 원자로에서는 연료봉을 가로, 세로 17개씩 붙여 만든 집합체(다발)를 연료로 쓴다. 한쪽 변 길이가 22㎝로 대각선이 31㎝이다. 처분용기에 넣고 작업 여유 공간까지 고려하면 17인치(43.2㎝) 정도는 뚫어야 한다.<br/><br/> <br/><br/> “지진 고려가 최우선”<br/><br/> 깊을수록 좋다면 왜 5㎞인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1㎞당 25도 정도씩 높아진다. 핵연료폐기물도 자체 발열한다. 지하 5㎞ 정도면 지하 온도 125도와 발열량 125도를 합쳐 250도 정도 된다. 미국 에너지국 권고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깊으면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br/><br/> 지진에 안전할까? 10만년이면 지형 변동은 없을까? 빙하기가 온다면?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각 변동의 시간 스케일은 10만년보다 커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빙하기는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까지 고려한 설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지진이다. 김 교수는 “심부로 들어갈수록 단층 수가 줄어들고 지표에 있는 원전보다 안전할 수 있지만 원전 수명은 수십년인 반면 핵연료폐기장은 수천, 수만년을 견뎌야 한다.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br/><br/> 우리나라 로드맵은 부지 기본조사를 한 뒤 주민 의사를 묻고 나서 부지 심층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교수는 “지질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낸 다음 주민을 설득하고 선호도를 조사해야지 주민투표부터 하면 안 된다. 지질학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단층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br/><br/> 글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한겨레-2-272.txt

제목: [나는 역사다] 2월27일의 사람, 운디드니 점거한 러셀 민스(1939~2012)  
날짜: 2017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6203844001  
ID: 01101001.201702262038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운디드니. ‘인디언’이라 불리던 미국 원주민 수백 명을 1890년에 정부군이 학살한 장소. (지난해 12월29일에 이 사건을 다루었다.) 1973년 2월27일, 원주민운동가 수백 명이 운디드니를 점거했다.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었다. 정부를 상대로 총격전을 벌인 무장투쟁이었다. 인명피해도 있었다. 원주민 둘이 숨지고 보안관 한 명이 크게 다쳤다(현장을 찾은 흑인운동가도 실종). 이렇게 71일이나 버티며 원주민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br/><br/> <br/><br/><br/><br/> 농성을 이끌던 대변인 러셀 민스. 197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71년에 러시모어산을 점거했던 원주민운동가. 훗날 1983년에는 보수정당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선다. 그때 민스의 러닝메이트는 래리 플린트, 도색잡지 발행인으로 악명 높던 사람. 점잖은 공화당원을 놀리려던 속셈? 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퍼포먼스였을 터. 민스는 평소 자유지상주의자(리버테리언)였다니 말이다.<br/><br/> 우리에게도 낯이 익다. 틈틈이 영화배우로 활동했기 때문. 대표작은 <라스트 모히칸>.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에 목소리 출연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다 일흔둘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br/> 글 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2-273.txt

제목: “게이 운동가보다는 사회정의 옹호자로 불리고 싶어”  
날짜: 20170226  
기자: 강성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6191900002  
ID: 01101001.20170226191900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미 뉴욕 맨해튼에 본부를 둔 ‘상호 존중을 위한 안네 프랑크 센터’는 1959년 설립됐다.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1929~45)는 2차대전 말기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은신처에서 숨죽이며 일기를 썼다. 나치 비밀경찰에 체포돼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안네의 일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증거하는 강력한 자료이기도 했다. 센터는 안네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안네의 아버지 오토가 만들었다.<br/><br/> 최근 이 센터가 미국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정책과 맞서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지난해 7월 취임한 스티븐 골드스틴(55) 사무국장이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그가 취임하면서 센터 이름도 바꿨다. ‘미국 안네 프랑크 센터’에서 ‘상호 존중을 위한 안네 프랑크 센터’로 개명했다. 설립 뒤 안네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는 비교적 조용한 활동을 해왔다면, 골드스틴 체제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증오에도 적극 맞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설립자인 오토가 센터를 만들때의 취지도 “<span class='quot0'>동등한 권리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span>” 였다. 그는 취임하면서 센터에 시민권과 인권, 여성 권리, 종교 차별과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춘 5개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 역량있는 시민운동가와 전문가들이 이끌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br/><br/> 그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센터의 에스앤에스 계정과 <시엔엔> 등 방송 출연을 통해 반트럼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 뒤 처음으로 반유대주의 비판 목소리를 낸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트럼프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를 감염시킨 반유대주의라는 암에 대한 일회용 반창고</span>”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몇시간 뒤 페북에 올린 글에선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해고와 트럼프가 티브이 황금시간대 연설을 통해 반유대주의와 이슬람혐오, 인종차별과 맞서 싸울 구체적 조처의 윤곽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트럼프가 국경 장벽을 쌓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땐 “트럼프가 나라를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이 트럼프의 차별 앞에서 흐느끼고 있다”고 분개했다.<br/><br/> 뉴욕 퀸스 출신인 골드스틴은 시민운동가로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04년 뉴저지주에 성적소수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평등한 가든 스테이트’란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까지 이끌었다. 동성결혼 합법화(2013년) 등 200건 이상의 민권보호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잡지 <하버드 법·정책 리뷰>가 “골드스틴이 미국 내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어냈다”고 찬사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2013년 이 단체를 떠나 명문 럭거스 대학 조교수로 임용돼 2년 동안 시민행동과 관련된 법을 가르쳤다. 시민운동 투신 전에는 워싱턴디시 지역 방송사에서 티브이 뉴스 연출자로 일했다. 피디로 일하며 미국의 우수 텔레비전 콘텐츠에 주는 에미상을 10번이나 받았다.<br/><br/> 골드스틴은 지금은 헤어진 동성 파트너와 2002년엔 버몬트주에서 합법적인 동성 결혼식을 치렀다. <뉴욕타임스>가 이를 결혼섹션에서 다뤘는데, 섹션 최초의 게이 커플 결혼 소개였다. 골드스타인은 이때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br/><br/> 2005년 유대교 성직자 랍비 양성학교를 1년간 다니기도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랍비가 되기 위해 언젠가 다시 랍비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게이 정체성보다는 유대인 정체성이 훨씬 크다’는 골드스틴은 자신이 게이운동가라기보다는 폭넓은 사회정의의 옹호자로 불리길 원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br/><br/>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

언론사: 한겨레-2-274.txt

제목: 생활 속 화학물질의 공격, 생협 통해 소비자 권리 찾기  
날짜: 20170223  
기자: 김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3103834001  
ID: 01101001.20170223103834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안방의 세월호’로 불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0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2011년 판매 금지가 될 때까지 신종플루 등의 호재를 업고 연간 60만개가 팔렸다. 당시 동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었던 해당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국의 800만명 사용자 가운데 현재까지 1124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자가 5410명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br/><br/>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외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우리의 생활을 현재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이 넘쳐나지만, 이 중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은 극소수이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span class='quot0'>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용도, 노출 방식, 유해 정도 등에 따라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소비자가 제조 과정에서부터 원료화학물질 안전까지 모든 안전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종 제품에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고, 해당 표시를 통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br/><br/><br/><br/>수만 종 화학물질 안전성 확인 극소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능성 기업·정부 부실한 관리체계 불신 키워<br/><br/> <br/><br/> 성분 표시, 대체재 개발 생협 제품 인기 조합원이 기준 정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성분 완전표시제 등 캠페인에도 앞장서<br/><br/><br/><br/>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화학물질규제(REACH) 제도를 도입해 연간 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량, 수입량, 위해성 등에 따라 제조와 유통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있으나, 국제사회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사이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8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13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500인 기자회견’이 열려 환경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한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에 싸여 있다.<br/><br/> <br/><br/> 기업에 대한 불신, 정부의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만든 생활제품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작년 하반기 생활용품 판매액은 123억4천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5억2천만원에 비해 7.15%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생협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직접 출자해서 함께 운영하기에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조합원 스스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진다. 두레생협의 자주인증제, 아이쿱생협의 아이쿱인증시스템, 한살림의 자주인증제, 행복중심의 생활재 자체인증기준 등이 그런 예이다.<br/><br/> 먼저 생협에서는 불필요한 화학성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꼭 써야 할 경우에는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한다. 예를 들어 휴지의 경우 우유팩을 생산하고 남은 자투리를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에 좋지 않은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제, 샴푸, 치약 등의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이다. 치약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물질, 방부제, 기포제, 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br/><br/> 기존의 화학성분을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은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한다. 아이쿱생협 식품연구소는 6명의 연구원이 일하며 지속적으로 대체제품 연구·개발에 힘쓴다. 이곳에서는 암 유발 논란이 있는 캐러멜 색소를 대체하는 안심캐러멜시럽을 개발하는 등 대체 첨가물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다. 이규남 소장은 “<span class='quot1'>식품에는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인공 화학 첨가물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span>”며 화학 첨가물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이 식품 첨가물 제조회사에 다니다가 생협 식품연구소로 온 이유도 내 아이가 먹어도 괜찮은 식품을 개발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급식에서 자신이 개발한 생협 제품이 건강식으로 소개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br/><br/> 연구소만이 아니라 조합원들끼리 직접 대체재를 만들기도 한다. 면 생리대를 만드는 모임이 한 예이다. 일회용 생리대는 비닐(폴리에틸렌), 고분자흡수체, 형광증백제 등의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가려움, 따가움, 짓무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목화송이협동조합’은 한살림 조합원들의 모임이 발전해 마을기업이 된 경우이다. 2014년 가수 이효리가 블로그를 통해 알려서 화제가 된 면 생리대 역시 목화송이협동조합이 만든 제품이다.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아 이용하는 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br/><br/>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그의 저서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2013)에서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우리 몸에 축적된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특히나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천식, 아토피, 당뇨 등이 늘어난 것은 먹거리가 오염되고 유해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게 원인이다.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200종 정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2'>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만큼 나쁜 음식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span>”이라며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특히 이렇게 우리 몸에 쌓인 화학물질은 쉽사리 배출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이는 유해물질을 ‘바디 버든’(Body Burden)이라 부른다. 독일은 1985년부터, 미국은 1999년부터 바디 버든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을 벌이고 있다. <br/><br/> 물론 화학물질이 무조건 해롭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도 있고, 아직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성분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협이 소비자로서 알권리를 위해 제품 성분의 완전표시제 캠페인을 하는 이유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이란 조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협은 소비자의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유해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할수록 더 안전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다. 주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socialeco

언론사: 한겨레-2-275.txt

제목: 흙에 살리라  
날짜: 2017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2194852002  
ID: 01101001.20170222194852002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부모님은 나와 동생을 이모 집에 보내곤 했다. 산기슭 밑에 자리한 병암리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구멍가게도 없어 뭐라도 사 먹으려면 한참을 나가야 했다. 이미 성인인 사촌형과 누나는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느라 집에 없었다. 나와 동생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br/><br/> 이모와 이모부는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다른 일도 했다. 이모부는 비누 공장 경비일을 했다. 출근하는 길엔 가끔 나와 동생에게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는데, “짜장면!” 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도 이모부는 “알았어, 이모 말 잘 듣고 싸우지 말고 있어잉” 하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이모부가 출근을 하면 우리는 온종일 잠자리를 잡거나 치고 박고 싸우며 시간을 보냈다. 잠자리를 왜 그렇게 잡고 왜 그렇게 싸웠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달리 할 것이 없었다.<br/><br/> 해가 질 무렵이면 잠자리가 가득 든 비닐봉투를 쥔 채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앞 평상에 앉아 이모부를 기다렸다. 슬슬 지겨워질 즈음 멀리서 자전거를 탄 채 느릿느릿 다가오는 이모부의 모습이 보였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짜장면이었기 때문에 두 눈의 신경을 집중해 짜장면을 찾았다. 하지만 좀체 짜장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엎질러질까 가방 속에 넣은 것은 아닌가 싶어 일단은 손을 흔들며 이모부를 반겼다. 하지만 이모부가 건넨 것은 짜장맛 과자였다. 실망스러워 울고 싶었지만, 활짝 웃으며 “맛있는 거여” 하시는 바람에 울 수도 없었다.<br/><br/> 한번은 이모부가 거울 앞에 선 채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새 셔츠 차림에, 입으로는 “나는 흙에에 살리이라아~”를 반복했다. “이모부. 그 노래가 뭐예요?” 물으니 이모부는 “으응, 오늘 모임을 가는데, 거기 가서 부를 노래여”라고 했다. “흙에서 왜 살아요?” 다시 물으니 “<span class='quot0'>으응,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살겠다는 얘기여.</span>”<br/><br/> 이후로도 이모부는 한참을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거의 다 외울 수 있게 되었을 즈음 “그런데 노래 제목이 뭐예요?”라고 물으니, “응, ‘흙에 살리라’라고 하는 노래여”라고 했다. ‘흙에 살리라’라니. 이상한 제목의 그 노래는 이모부의 애창곡이었다.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모부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br/><br/> 잠시 뒤 “이모랑 이모부는 다녀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들 있어야 혀”라고 이모부는 말했고, 나와 동생은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다. 두 분이 모임을 가고 난 얼마 뒤, 우리는 언제나처럼 싸움을 벌여 통유리로 된 미닫이문을 산산조각내 버렸다. 나중에 돌아온 이모부는 “괜찮은겨? 다친 데 없는겨?”라고만 물을 뿐 혼내지 않았다.<br/><br/> 이모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주였다. 온몸에 암이 퍼져 마침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참이었다. 병상에 누운 이모부는 한손에 나무 십자가를 꼬옥 쥐고 있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을 쏙 빼닮았다는 것을 내심 좋아하던 이모부였다. 진통제에 취해 숨만 헐떡이던 손을 잡자 잠시 눈을 살짝 떴다 감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는 내게 “<span class='quot1'>이모부 이제 좋은 데로 가실 꺼여</span>”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셨다. 좋아하시던 노래가사마냥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br/><br/> 사는 건 대체로 지치는 일이다. 최선을 다해 달리는데 주변 사람들도 최선의 최선을 다하니, 더디다 못해 뒤처지는 기분이다. 그럴 때마다 이모부를 떠올린다. 자전거를 탄 채 내게 줄 짜장맛 과자를 사서 “흙에 살리라~” 흥얼거리며 느릿느릿 논두렁 사잇길을 가로지르던 그 모습. 살아오는 내내 두고두고 회상하곤 한다. 그 모습이 마치 내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br/><br/> 김보통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2-276.txt

제목: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진료비’ 지원 내년에 확대한다  
날짜: 2017022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2190818001  
ID: 01101001.2017022219081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중증 질환을 치료하다가 막대한 의료비가 나와 가계가 파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에 법률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임시 사업으로 올해까지 할 예정이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한해 평균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병원비가 나온 것을 말하며, 국가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다. <br/><br/> 22일 오제세·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주최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평가한 뒤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br/><br/> 중증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 등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120% 이하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내야 하는 병원비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2014~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이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총 3만9252명에게 총 1470억원이 지원됐으며, 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77.txt

제목: [금융상품] 보장범위↑보험료↓ ‘교보프리미어CI보험’  
날짜: 2017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2163859001  
ID: 01101001.201702221638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교보생명은 중대한 질병(CI)에 대한 보장범위를 넓히고 보험료는 낮춘 ‘교보프리미어CI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과 중증치매 등 장기 병구완 상태를 평생 보장(사망 보장 포함)하는 상품이다.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중대한 질병에 포함했고 갑상샘암 가운데 예후가 안 좋은 일부 암에 대해 중대한 갑상샘암으로 분류해 기존 상품보다 보장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중대한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해지 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10~20%가량 낮췄다. 해지 환급금은 기존 방식보다 다소 적어질 수 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 병구완상태(LTC)로 진단받을 경우 및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될 경우 주계약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만 15~60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언론사: 한겨레-2-278.txt

제목: 트럼프, 반유대주의 비난....유대인들 “생색내기일 뿐”  
날짜: 20170222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2161818002  
ID: 01101001.20170222161818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이후 점증하는 미국 내 반유대주의에 대해 처음으로 비난했다. 유대인 단체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워싱턴의 ’미국 흑인 역사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span class='quot0'>우리의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 회관을 겨냥한 반유대주의 위협들은 끔찍하고, 고통스럽다</span>”며 ”증오와 편견, 악을 뿌리뽑아야만 하는 임무를 상기시키는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미주리 유니버서티시티의 유대인 공동묘지가 훼손된 것이 발견되고, 최근까지 유대인 회관에 대한 11건의 폭탄 테러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가 반유대주의 언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 유대인 단체인 ’상호 존중을 위한 안네 프랑크 센터’의 사무국장 스티븐 골드스테인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반유대주의 인정은 우리의 행정부를 감염시킨 반유대주의라는 암에 대한 일회용 반창고”라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원이나 압력이 없어도 반유대주의에 예방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대통령이 입방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br/><br/> 대선 출마 이후 지지자들의 반유대주의 언행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던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최근 몇주 동안 유력한 유대인 단체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측근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특히 트럼프의 큰 사위인 유대인 재러드 쿠슈터에게는 큰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br/><br/> 트럼프와 그 행정부는 미국 내의 반유대주의 물결에 대해 여전히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이 문제를 아무리 애기해도 충분치않다는 것은 역설이다”며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가 법무부에게 반유대주의 언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br/><br/> 트럼프 역시 최근 기지회견에서 초정통파 유대인 복장을 한 기자의 질문을 듣지도 않고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묻느냐고 면박을 주었다.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는 트럼프가 나치 독일이 유대인 등을 학살한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의 성명에서도 유대인을 희생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br/><br/> 정의길 선임기자 Egil

언론사: 한겨레-2-279.txt

제목: 폐암 여성 10명중 9명 ‘비흡연자’…“요리 연기가 원인”  
날짜: 2017022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2121936001  
ID: 01101001.20170222121936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는 2016년 기준 2만7884명으로 2010년의 1만6806명에 견줘 1.66배로 늘었다. 또 2016년 전체 폐암 환자 7만9729명 가운데 약 35%가 여성으로, 폐암 환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4년 국립암센터 통계에서 여성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9명 꼴인 87.8%가 흡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여성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br/><br/>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명을 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폐암 발병 원인은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간접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실제 중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비흡연자 가운데 요리를 자주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견줘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8배 높았다.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올라갈 때마다 폐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병 위험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박병준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하는 남성들이 주로 편평상피세포암에 걸리는 반면 비흡연 여성은 선암에 많이 걸리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비흡연 여성의 경우 폐암을 예방하려면 우선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환풍기를 쓰는 것이 좋다. 또 생선이나 고기 등을 굽거나 볶을 때에는 뚜껑을 덮고 조리를 하는 것이 좋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80.txt

제목: “건강보험재정 201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  
날짜: 2017022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1113806001  
ID: 01101001.2017022111380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이 201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건강보험공단 쪽의 전망이 나왔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br/><br/>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중기 재정수지 전망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한해 평균 약 1조4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쓰이면서 올해 당기 흑자는 6676억원, 2018년에는 477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19년에는 당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약 1조18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지다가 2014년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커지면서 2015년에는 흑자 폭이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br/><br/>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지면서 2016년말 기준 20조656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은 2017년 20조7332억원, 2018년 21조2109억원으로 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0조211원, 2020년에는 17조175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81.txt

제목: 오피스텔·아파트·고시원 등서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날짜: 20170221  
기자: 원낙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1112848003  
ID: 01101001.20170221112848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고시원에도 내·외국인관광객을 투숙시키고 수건, 샴푸, 비누 등을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했다.<br/><br/> 이처럼 고시원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마치 호텔인 것처럼 불법 숙박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아무개(5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강남·동대문 등에서 아파트·고시원·업무시설·다세대 주택 등을 숙박 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다.<br/><br/> 합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호텔 예약 사이트에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비를 받았다. 룸서비스나 모닝콜을 제공하는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배인·프런트 직원·청소 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으로 운영했다.<br/><br/> 또 찜질방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빌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방’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신종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호텔 등 숙박업소는 일반 영업·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불법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말했다.<br/><br/> 원낙연 기자 yanni

언론사: 한겨레-2-282.txt

제목: “리정철은 서류상 직원…북에 생필품 팔려던 무역중개업자”  
날짜: 20170220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20120815002  
ID: 01101001.20170220120815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살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리정철(47)은 말레이시아서 제품을 사서 북한에 파는 ‘중개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가 회사의 정보기술(IT) 부서에 근무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무역 일꾼’으로 보인다.<br/><br/> 리정철이 근무한 ‘톰보 기업’에서 20일 <한겨레>와 만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사장 총아코우(64)는 “<span class='quot0'>리정철은 나를 통해 팜유, 설탕, 비스킷 등을 사서 북한에 팔려고 했던 ‘중개업자’였다</span>”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9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리정철이 이 회사의 정보기술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비자를 위한 ‘서류’였을 뿐이라고 했다.<br/><br/> 이 회사는 쿠알라룸푸르 반다르 툰 라자크 지역에 있으며, 항암치료보조제 등을 판매한다. 총아코우 사장은 “<span class='quot1'>리정철은 평양에서 만난 친구(문호 박사)의 조카</span>”라며 “<span class='quot1'>리정철이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2013년 채용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br/> 그는 리정철을 가리켜 “미들맨”(중개인)이라고 표현했다. 총아코우 사장은 “<span class='quot1'>(정기적으로 회사로 출근해 근무하는) 회사 스태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기적인 월급을 준 적 없고 성사된 거래가 없어 어떠한 ‘돈 거래’도 없었다</span>”고 말했다. 다만 “리정철이 서류상으로는 월급 5000링깃(한화 128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리정철을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중국 춘절 직전인 1월말께”라며 리정철과 직접 만난 건 모두 “5차례 안팎”이라고 말했다. 총아코우 사장 역시 “리정철을 통해 건강식품 제조에 필요한 북한산 버섯을 사려고 했지만 가격대가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정철이 다른 비즈니스를 했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br/><br/> 그는 “1990년대부터 10여차례 이상 평양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한 경력이 있다”며 북한 및 북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정보기술 분야와 관련해 리정철이 한 것은 정보기술 전문가를 소개시켜주는 것밖엔 없었다고 했다. 총아코우 사장은 “전자 하모니카를 개발하고 싶어서 아이티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리정철은 아이티 전문가를 소개시켜줬지만 기대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정철이 화학·약학 전공자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br/><br/> 사실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였지만 리정철이 서류상 이 회사 소속이었던 이유는 ‘취업 비자’ 때문이었다. 총아코우 사장은 “리정철은 여기서 체류하고 딸의 교육 때문에 비자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정철의 딸은 21살쯤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사장은 “리정철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만날 때마다 늘 딸이 통역을 해줬다”고도 전했다.<br/><br/> 이 사장은 리정철말고도 “지난 10년간 10여명의 북한 사람에게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가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총아코우 사장을 이용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오는 사람마다 취업 비자를 해준 건 아니고 거절한 적도 많았다”며 “(취업 비자 도움은) 선한 마음으로 해준 것”이라고 했다.<br/><br/> 총아코우 사장은 “리정철은 매우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며 “지난 토요일에 리정철 체포 뉴스를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북한대사관에도 연락했지만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라’는 얘기를 대사관쪽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사건 이후 “리정철의 딸에게도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br/><br/> 톰보 기업 누리집엔 이 회사가 1976년에 설립된 항암치료보조제 회사라고 설명돼 있다. 암환자들에게 암 치료 관련 상담 서비스와 함께 한방 약품으로 된 항암치료보조제를 판매하고, 암 치료 관련 서적들도 출간하고 있다.<br/><br/> 쿠알라룸푸르/글·사진 박수지 기자 suji

언론사: 한겨레-2-283.txt

제목: 유아인 “그동안 침묵에 반성…병역의무 이행 가능할 것”  
날짜: 20170216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16215832002  
ID: 01101001.20170216215832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배우 유아인(31)이 골종양과 이로인한 입대 지연 논란과 관련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br/><br/> 유아인은 “<span class='quot0'>건강상의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연기 사유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우로서의 생명과 직결되는 논란과 이미지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그저 진실만을 방패로 침묵을 이어 온 저의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부상 및 질환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과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골절의 부상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span>”며 병역 의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또 “개인의 욕망과 성취, 그리고 사회적 책무와 요구가 복잡하게 뒤엉킨 이번 논란을 통해 저의 일과 그것이 만드는 삶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모든 논란 마저 제가 감내해야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적었다. <br/><br/> 소속사인 유에이에이(UAA)의 관계자는 앞서 15일 유아인의 발병설이 한 매체를 통해 먼저 알려지자 "유아인이 병원에서 골종양 진단을 받았다. 2015년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때 확인했고 이후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팬들의 우려와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이 이어지자 유아인이 이날 직접 소신을 밝힌 것이다.<br/><br/> 골종양은 뼈에 생기는 종양으로, 뼈와 연결된 연골이나 관절에 생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골종양은 양성이어서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를 하지만, 악성일 때는 골욕종이라고 불리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액션신을 찍다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어 2014년 영화 <베테랑> 때 부상이 더 악화돼, 마사지 전문가가 대기한 상태에서 액션신을 찍을 정도였다. 이때 촬영 도중 사고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골종양이 발견돼 치료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r/><br/> 소속사쪽은 유아인의 군 입대와 관련, “대구지방병무청에서 2015년 12월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br/><br/> '베테랑'을 제작한 프로듀서는 15일 비공개 인스타그램에 “황정민 선배와의 격투신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도 대역없이 촬영에 임했던 투지에 고마움을 금할 수 없다"고 회상하며 “남들이 당신의 어깨에 무례하게 굴어도, 난 그럴 수 없다”고 유아인의 투지에 박수를 보냈다. <br/><br/> 소속사 관계자는 "수차례 재검을 받은 이유가 밝혀지게 됐지만, 개인의 병원기록이 유출된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br/><br/> 김경애 기자 ccandori

언론사: 한겨레-2-284.txt

제목: 찍혀야 산다, 얼음도끼는 내 생명줄  
날짜: 20170215  
기자: 김창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15081815001  
ID: 01101001.20170215081815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체력은 비슷해요. 승패는 멘털이죠.”<br/><br/>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1위 박희용(35·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은 1m70, 63㎏이다.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을 입으니 거리에서 흔히 보는 깡마른 소년 같다. 하지만 우락부락 튀어나오지 않은 매끈한 근육 속에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 “<span class='quot0'>밥만 공급해주면 절벽에 붙은 홀드를 잡고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어요.</span>” 14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근처의 ‘박희용 스파이더 인공암벽장’에서 만난 그는 ‘거미 인간’이라는 듯 태연스럽게 말했다. “<span class='quot0'>저 같은 초보자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span>”라고 묻자, “10초”라며 웃는다.<br/><br/> 박희용의 주종목인 아이스클라이밍의 난이도 종목(영어로는 리드)은 자연 상태의 얼음 위에서 하지 않는다. 참가 선수한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인공암장과 얼음을 섞어 세트장을 만든다. 키와 체력 등이 좋고, 층이 두터운 서양 선수들이 우세할 것 같은 이 종목에서 그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다. 지난 1월 청송 대회를 포함해 2016~2017 시즌 총 5차례의 월드컵에서 3번 우승했고, 이달 초 프랑스에서 열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2011, 2013년에 이어 현재 세계 1위.<br/><br/> 비결은 아이스클라이밍에 최적화된 몸과 두뇌. 박희용은 보통 하루 6시간 정도 훈련을 한다. 그런데 근육량을 늘리는 훈련보다는 순발력, 지구력, 유연성을 높이는 쪽에 중심을 둔다. 주로 암벽장에 매달려 훈련하며 악력과 허리, 다리, 팔의 힘을 키운다.<br/><br/> 아이스액스(얼음도끼)로 벽에 박힌 홀드를 찍고 올라가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다. 홀드는 돌처럼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쇠, 자연석 등으로 만들어 찍히지 않는다. 매끄러운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도끼를 잘 걸쳐놓아야 하고, 느낌으로 힘을 조절해야 한다.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한번 미끄러지면 그 지점에서 점수가 계산돼 우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br/><br/> 박희용은 “어떠 대회는 난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용 홀드의 파인 부분을 세로로 놓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옆으로 도끼를 걸어서 어깨로 버티면서 다음 홀드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타고 오를 때는 다리(30%)보다는 팔(70%)의 힘에 더 많이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천장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오버행 구간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30여m 높이의 코스를 올라가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다. “400m를 막바지에 전력질주하는 것과 비슷해요. 숨이 턱턱 막히고 손에선 힘이 쫙 빠져요. 거기서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도끼를 찍어요.”<br/><br/> 선수들은 대회 전 코스를 딱 한번, 그것도 5분만 살펴볼 수 있다. 경기 당일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대기소에 격리된 채 출전을 기다린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자신만의 코스 공략도를 그려서 기억하는데, 그것은 마치 ‘몸으로 푸는 수학 문제’와 비슷하다. 박희용은 “30~40개의 홀드 위치가 필름으로 찍은 듯 머리에 각인돼 있어야 한다. 그다음엔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좌표를 잡아낸다. 시간도 1분 단위로 계산한다. 체력보다는 머리가 50% 이상 중요하다”고 했다.<br/><br/> 대회에 나갈 땐 집중하고 집중한다. 얼음도끼의 날을 2시간씩 공들여 갈면서 싸움을 준비한다. 그런데 송곳처럼 날카롭게 갈 수도 없다. 홀드에 잘 걸리기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날카로운 부분이 뭉툭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미끄러져 대책이 없다. 몸과 손, 머리의 감각으로 밀리미터(㎜) 단위의 홀드 홈에 걸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갈고 닦는다. 그런 마음가짐이기에 빙벽에 오를 땐 주변에서 나는 일체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몰입한다고 한다.<br/><br/> 17살 때 암벽 등반으로 시작해 20대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 국가대표를 거친 박희용은 절대강자다.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가 2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가 5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우뚝하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김자인·천종원 등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제산악연맹과 대한산악연맹(김종길 회장)은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내년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쇼케이스를 준비 중이다. 30대 중반이지만 얼음도끼를 놓을 수 없는 이유다.<br/><br/> 그는 “등반의 기쁨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의 성취감이다. 늘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암벽에 오른다. 아이스클라이밍은 규정된 코스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올림픽 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다”고 했다.<br/><br/> 김창금 기자 kimck

언론사: 한겨레-2-285.txt

제목: 2월 15일 알림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14195857002  
ID: 01101001.20170214195857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 관훈클럽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br/><br/> ◇ 한국방송(KBS) 기자협회는 14일 암 투병 중인 <문화방송>(MBC) 이용마 해직기자에게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자는 해고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br/><br/>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3일 정기총회를 열어 김인국 대표(마르코 신부)를 대표로 재신임했다.<br/><br/> ◇ 푸르메재단은 14일 신임 이사로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br/><br/> ◇ 재경 충주상고 총동문회는 1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연다.<br/><br/> ◇ 성결대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공모에 우선협상대학으로 선정됐다.<br/><br/> ◇ 조영관문학창작기금 운영위원회는 14일 제7회 기금 수혜자로 최경아(필명 일곱째별)씨를 선정했다. 출품작은 르포 ‘광장의 열흘, 그리고 또 하루’와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이다.<br/><br/> ◇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14일 아이돌 소녀시대 태연의 ‘아이(I)’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br/><br/>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4일 박희주 그린피스버섯농장 대표가 아너 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모임) 농업인 경북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br/><br/>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4일 김진욱 돈마 대표가 아너 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모임) 회원으로 가입했다. 부인 박희정씨와 딸 하나씨도 기부를 약정해 가족회원이 됐다.<br/><br/>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새달 12일까지 공학을 전공한 여성 대학원생팀을 대상으로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50팀에 각 650만원을, 일반과정 100팀에 각 550만원을 지원한다. 누리집(wiset.or.kr) 참조.<br/><br/> ◇ 세피앙(유아용품 전문기업)은 1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방송>과 3자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br/><br/> ◇ 4월회는 13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6대 회장으로 곽영훈 세계실크로드시장단회의 의장을 선임했다.<br/><br/> ◇ 미래포럼은 14일 이사장으로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취임했다.<br/><br/>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15일 세계소아암의 날을 맞아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br/><br/> ◇ 흥국생명은 이달 말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 등이 담긴 핑크박스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br/><b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17일 오전 10시30분 2017년 정책연구협의회를 연다.

언론사: 한겨레-2-286.txt

제목: 벌레같은 인간 인간같은 벌레  
날짜: 20170209  
기자: 임종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9190817001  
ID: 01101001.2017020919081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벌레의 마음-예쁜꼬마선충에게 배우는 생명의 인문학 김천아·서범석·성상현·이대한·최명규 지음/바다출판사·1만5000원<br/><br/> 예쁜꼬마선충은 초파리와 함께 현대 생물학계의 스타다. 길이 1㎜의 길쭉한 벌레로 몸이 투명하여 관찰이 쉽고 생애 주기가 3주밖에 되지 않아 실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껏 알려진 인간 유전체의 70% 정도를 공유하기에 그 연구결과가 인간에게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br/> <벌레의 마음>은 예쁜꼬마선충을 ‘모델 생명체’로 하여 진행된 연구성과를 통해 인간의 성장, 노화, 마음 그리고 생명의 보편성을 들여다 보려는 시도이다. 전문어와 개념의 연속인 과학을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지극정성이다.<br/><br/> 예컨대 노화. 체세포를 영원불멸의 생식세포처럼 만든다면 수명을 늘일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과학자 션 쿠란은 2009년 장수 돌연변이 예쁜꼬마선충이 pie-1 유전자로 인해 생식세포에서 켜지는(발현) 유전자들이 체세포에서도 켜짐을 발견했다. 이 유전자들을 cct-6 유전자로써 체세포에서 켜지게 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현상을 관찰했다. 하지만 1년 뒤 초파리 연구에서 생식세포 유전자들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게 밝혀졌다. 수명 연장과 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br/><br/> 지은이는 체세포를 택배 차량, 생식세포를 택배물건에 비유하며 유전자의 성공적인 대물림을 위해 체세포를 희생하도록 진화되었다며 노화를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역할이 뒤엉키면 종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세포의 역할분담이 개체 수준에 이른 것이 개미와 벌. 여왕개미와 여왕벌은 번식만을, 일개미와 일벌은 일만 한다. 최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출현한 것을 두고 인간세계도 개미와 벌처럼 되는 건 아닐까 우울한 상상을 한다. <br/><br/>임종업 선임기자 blitz

언론사: 한겨레-2-287.txt

제목: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조사 한다  
날짜: 20170208  
기자: 최예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8174831001  
ID: 01101001.20170208174831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충남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건강영향 조사를 받는다.<br/><br/> 충남도는 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 조사와 학교 주변 대기 오염 실태 조사, 송전선로 주변 역학 연구, 빛 공해에 의한 건강 피해 예방 등 29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br/><br/> 이 계획안에 따라 내년부터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충남 4개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영향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 대상 어린이를 뽑아 생활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을 측정한다. 2단계로는 2020년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추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br/><br/> 학교 주변의 대기 오염 실태를 조사한 ‘학교 오염도 지도’도 만든다.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 등에 있는 학교를 모니터링해 오염도 지도를 만든 뒤 중점 관리 학교를 정할 방침이다.<br/><br/> 주민 건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돼,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와 암 발생의 연관성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br/><br/> 도는 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도 추진할 참이다. 이 밖에 유해중금속 노출 경로 조사와 저감 방안, 라돈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관리, 자연 발생 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 피해 예방·관리 등도 이번 계획에 담아 진행하기로 했다.<br/><br/>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대산석유화학단지, 폐석면광산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충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

언론사: 한겨레-2-288.txt

제목: 병든 세포만 찍는 ‘족집게 MRI 램프’ 개발  
날짜: 20170207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7010827001  
ID: 01101001.201702070108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질병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강한 자기공명영상(MRI) 신호를 보내는 ‘나노 MRI 램프’가 개발됐다. 기존 MRI가 대낮에 램프를 비추는 것이라면 이 장치는 밤에 램프를 비춰 병변 부위를 찾아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br/><br/>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연구단(단장 천진우 연세대 화학과 특훈교수)은 6일 “<span class='quot0'>자성물질들의 간극에 따라 MRI 신호가 변하는 자기공명튜너(MRET)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기존 MRI 신호보다 10배 밝은 신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span>”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머티리얼스> 7일치에 실렸다.<br/><br/> ‘나노 MRI 램프’는 엠레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나노자성물질과 생체인자 인식 물질, 상자성물질 등 3중 구조로 돼 있다. 상자성물질은 외부에 자기장이 있을 때만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로 MRI 신호를 증폭시켜 조영효과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이 상자성물질이 나노자성물질과 7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로 가까이 있으면 외부에 자기장이 있어도 자기적 성질을 띠지 않지만 10나노미터 정도 떨어지면 가장 밝게 빛난다. 이것이 자기공명튜너 현상이다. 연구팀은 나노자성물질과 상자성물질 사이에 생체인자 인식 물질을 끼워넣어 둘 사이가 가까이 있도록 램프를 만든 뒤 암에 걸린 실험쥐 생체에 집어넣었다. 이 램프가 쥐의 암 부위에 다가가자 그곳에 형성돼 있던 특정 생체요소에 생체인자 인식 물질이 결합해 떨어져 나가고 나노자성물질과 상자성물질 사이가 벌어지면서 MRI 신호가 강하게 나왔다. 이를 MRI 장치로 촬영하니 병변 부위만 잘 보여주는 분해능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br/><br/> 연구팀이 실험에 이용한 건 암 전이 인자인 엠엠피-2(MMP-2)와 결합하는 펩타이드이다. 나노자성물질-펩타이드-상자성물질로 이뤄진 나노 MRI 램프 조영제는 암 부위에서만 강한 MRI 신호를 내보냈다. 천진우 교수는 “기존 MRI 조영제는 생체인자와 상관없이 항상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병변 부위와 정상 조직 사이의 대조도가 낮아 판독이 어려웠다. 나노 MRI 램프는 병든 조직을 주변 조직보다 최대 10배 밝게 보이게 하는 고감도 영상을 생산해낸다”고 말했다.<br/><br/> 상자성물질이 나노자성물질과 가까이 있을 때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은 상자성물질 안에 있는 전자스핀의 움직임(전자스핀요동)이 나노자성입자의 간섭을 받아 발생한다. MRI 장치는 불안정한 상자성물질의 전자스핀 요동이 빠를수록 물 분자 안의 핵 스핀이 이완돼 MRI 신호가 켜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연구팀은 나노자성물질로 이 신호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든 것이다.<br/><br/> 천 교수는 “나노 MRI 램프를 이용하면 주사로 조직을 떼어내는 생검같은 침습적 조직검사 없이도 암 관련 질병 인자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생체인자 인식 물질만 바꿔주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다양한 염기서열의 유전자나 단백질, 화학분자, 효소, 금속, 산도(pH), 활성산소 등을 MRI 장치로 영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한겨레-2-289.txt

제목: 건보 누적흑자 20조원…시민단체 “저소득 보장 확대를”  
날짜: 201702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6194843002  
ID: 01101001.2017020619484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보험이 6년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었다. 병원비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누적 흑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험 지출이 올해부터 크게 늘고 진료비를 많이 쓰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금방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r/><br/>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누적 흑자는 20조65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55조7195억원이 들어와 이 가운데 52조6339억원이 쓰여 당기수지는 3조856억원의 흑자가 생겼다. 수입 측면에서는 전년보다 보험료 수입에서 3조2589억원이 증가했으며,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뱃세에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담배부담금도 3729억원이 늘었다. 보험료 수입과 담배부담금 증가가 주요한 수입 증가의 원인인 셈이다. <br/><br/> 지출 부분에서는 보험급여비가 51조541억원으로 2015년의 46조5009억원에 견줘 4조5532억원 증가했지만,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다른 분야 지출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br/><br/> 건강보험 수지는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매해 3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다 2014년에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폭이 줄었다.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br/><br/> 건강보험공단 쪽은 지난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류가 확대됐고 올해부터 수면내시경 검사 등이 적용 항목에 포함돼 급여비 지출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초음파 검사 등에서 크게 늘어나 지난해보다 올해 지출은 수조원 더 늘어날 전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누적흑자분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br/><br/>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흑자분은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중저소득층이 병원을 덜 찾은 결과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span class='quot1'>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초반으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아 누적 흑자분은 보장성 확대에 조속히 써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만으로는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해결에는 크게 부족하다</span>”고 지적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4대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들이 내는 돈의 비율을 대폭 낮추듯이 다른 질환에도 이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또 어린이와 노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를 무상으로 받게 하고,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90.txt

제목: [왜냐면] 벽사-블랙리스트들 / 홍일선  
날짜: 2017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6184901002  
ID: 01101001.20170206184901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홍일선 백수 농부, 시인<br/><br/> <br/><br/> 거짓이 더러운 말이 더러운 잠이 그대를 자유케 하였느리라 이제 그대는 떠도는 풍문 따위 비아그라 마약 따위 태반주사 보톡스 필러 따위 감추지 않아도 그대는 이제 자유이니라<br/><br/> <br/><br/> 누가 그대를 조롱하였느냐 소위 종북 좌파더냐 한겨울 촛불이더냐 친박 태극기더냐 친박 성조기더냐 도대체 도대체 누구더냐 그대 7시간을 물고 늘어진 자들은 그대 충성스러운 애국의 말을 왜곡한 자들은<br/><br/> <br/><br/> 그대의 노심초사 비몽사몽간에도 오매불망 국가를 위한 충정을 더러운 잠이었다는 야매주사를 맞았다는 정윤회와 놀아났다는 청와대서 굿판을 벌였다는 애비뻘 최태민과의 자식이 있다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아아 아아 그대 진심을 몰라주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끝없이 질문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 시인들 소설가들 비평가들 화가들 가수들 작곡가들 영화배우들 감독들 제작자들 전농들 민노총들 전교조들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 세월호 참사에 부화뇌동한 자들 사드를 반대한 자들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자들 박정희는 남로당원이었다고 말하는 자들 오일륙은 민주헌정을 유린한 반란이라고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블랙리스트 그런 자들은 좌경 빨갱이들… 그런 자들에게는 한푼의 지원금도 주지 말라는 발본색원하라는 뿌리째 뽑아내라는<br/><br/> <br/><br/> 그렇다 탄핵 이전에도 탄핵 이후에도 그대는 사악한 꽃 그대는 음탕한 향기 그대는 그대는 끝끝내 그대는 거짓 옹벽 거짓 성곽에 갇힌 평생 말기암 같은 유사종교 불치의 종양 거짓의 생성 거짓의 영고성쇠 그대는 그대는<br/><br/> <br/><br/>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밥을 먹는 것 형제들과 두리반에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이 정치 아니던가 그 저녁이 정녕 정치 아니었던가 아아 그런데 그대는 그대는 형제가 없다고 자매가 없다고 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는 최태민교의 성도 오로지 최태민 일가의 화목한 식구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는 최순실의 자애로운 형제 최태민의 영원한 혈육 그렇다 그대와 최순실이 한몸이었듯 박정희와 최태민은 한몸이었다 완벽한 일심동체였다 박정희는 최태민은구국의 영도자 무오류의 선지자 박과 최는 항상 옳았다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았고 내일도 옳아야 했다<br/><br/> <br/><br/> 세간에서 그대를 두고 닭이라고 하는데 닭이라니 아아 닭이라니 여주 남한강 기슭에서 닭님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수 농부가 있다는데 그자가 들으면 청천벽력 기겁하며 노할 것이로되 아서라 아서라 감히 어미닭을 비유하다니 거룩한 어미닭을 귀태와 비교하다니 어미닭이 온몸으로 알을 궁글려 한 세계를 거룩한 줄탁동시를 더럽히지 말라 생명의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닭의 울음소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천둥 번개의 시 병아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청천벽력 생명의 노래<br/><br/> <br/><br/> 그대는 거짓일 뿐 그대는 귀태일 뿐 사악한 꽃일 뿐 음탕한 향기일 뿐<br/><br/> <br/><br/> 들어라 천둥 번개의 노래를 대개벽의 외침을 벽사(闢詞)를<br/><br/> <br/><br/>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홍일선 시인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집단 소송에 참여해 소송장을 보낸 뒤 그 소회를 시로 썼다.

언론사: 한겨레-2-291.txt

제목: 로봇에 세금 물리고 기본소득 도입하자  
날짜: 20170206  
기자: 음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6092859001  
ID: 01101001.20170206092859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인공지능의 해, 2017년에 온 걸 환영합니다!<br/><br/> 테크놀로지 산업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와 기계장치(device)를 만들어내려 한다.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막대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인공지능 관련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더 용이해진다.<br/><br/> 똑똑한 기계들과 경쟁<br/><br/>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파장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는 인공지능의 장밋빛 미래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직업에서부터 사생활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우리 삶의 수많은 부분에 대한 제어권을 기업들에 넘기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선택하는 방식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br/><br/> 테크놀로지는 양날의 검이다. 예컨대, 인공지능은 의료 연구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 나은 치료법을 찾거나, 암 치료까지 하는 의미심장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엔리틱’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분석함으로써, 아주 잘 훈련된 인간 의사도 보지 못하는 종양을 ‘볼 수 있게’ 해준다.<br/><br/> 인공지능은 일상생활도 잠식하고 있다. 애플의 ‘시리’와 구글 번역이 그 사례다. 아마존 ‘에코’나 ‘구글홈’ 같은 기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기들은 날씨나 비행 스케줄을 물으면 친절히 답하고, 불을 켜고 끄라는 명령도 수행한다. 지금은 그저 ‘허울 좋은 장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마치 스마트폰처럼 일상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br/><br/>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인간 삶에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을 주게 될 분야는 바로 일자리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를 더 값싼 비용으로 더 빠르게 더 나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비록 직업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더 똑똑해진 기계들과의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br/><br/>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는 경제가 제조업에 기반해 있었고, 세계 경제는 제조업 분야의 거대 국제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지식·정보 경제로 전환하면서, (미래의 우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에 의해 지배받게 될 것이다.<br/><br/> 이런 비즈니스는 더 이상 인간이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한 가지 일에만 헌신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대신, 프로젝트 기반의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를 계약 형태로 쓰게 될 것이다. 계속 진행되는 영구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형태의 일이 늘어날 것이다. 노동자들이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br/><br/>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의 구실 또한 바뀌어야 한다. 이전의 제조업 경제에서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이었다. 반면, 새로 등장한 지식 경제에서는 정부가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술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문제 해결 능력, 인간 상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배양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br/><br/>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를 더욱 고르게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을 가진 뒤 얻게 될 봉급은 더는 적절한 수준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로봇 등의 테크놀로지에 세금을 매기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세입을 이용해 정부는 직업 유무에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장된 ‘기본소득’의 도입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업이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때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br/><br/> 정부의 기업가적 측면과 조정자로서의 측면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 경제에서는, 오직 정부만이 협력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곧 있을 프로젝트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주 정부는 빅토리아도로공사, 빅토리아교통공사(PTV), 노키아의 내비게이션 지도 업체인 히어, 지멘스,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 등 사적인 조직 및 공공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 정부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협력을 이끌 수 있다.<br/><br/> 고용의 본질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동’(labour)과 ‘일’(work)을 구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노동이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먼 과거에는 노동이 음식과 은신처를 마련하고, 사냥을 하고, 먹을거리를 수집하고 집을 짓는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노동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이 되었다. 반면 일은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과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포함되며,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봉급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경제에 속하는 일이 없다면 현대 경제는 붕괴할지도 모른다.<br/><br/>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br/><br/>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노동에 높은 가치를 매겨왔다. 시민으로서의 가치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공헌했는지에 따라 측정됐다. 우리는 ‘일의 윤리’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직업을 가지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일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br/><br/> 기술이 직업을 잃게 하고 불안정한 고용이 늘어난다.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점점 가당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일의 윤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의 윤리란, 체면과 도덕적 청렴성을 획득하는 것을 직업을 갖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소득 같은 제도는 우리가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에 대해 가치를 매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br/><br/> 인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능력이라든가, 인간 노동자를 인공지능과 통합시키는 능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뉴스일 수 있다. 운영비용을 상당히 낮추기 때문이다. 그런 기술은 기계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뉴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상품과 서비스는 훨씬 더 가격이 쌀 테니 말이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며 삶의 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다. 정치개혁이 없다면 말이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해고될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기계가 봉급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바람직하지 않다.<br/><br/> 정부가 핵심적인 구실을 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이 새롭고 똑똑한 기계가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지 이 기계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조직에만 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br/><br/> <br/><br/><br/><br/> <br/><br/> “<span class='quot0'>기본소득 도입, 되도록 빨리… 광범위하게…</span>” 팀 던롭은 누구?<br/><br/> “<span class='quot0'>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보다 더 직접적이면서도 값싼 방식인 만큼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pan>”<br/><br/> 기계화에 따른 직업의 종말. 이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지금,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칼럼니스트인 팀 던롭은 <한겨레>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하며 기고 글을 보내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블로거로 꼽히는 던롭은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천착해왔다. 그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그의 책 <노동 없는 미래>는 최근 한국에도 번역 출간됐다.<br/><br/> 던롭은 인공지능이 만드는 기계화가 오히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필수 요소는 ‘기본소득’이다. 던롭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와 1~5일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야 하며 되도록 빨리,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든 일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br/> 던롭은 기본소득이 근로의욕 감퇴를 불러온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인도에서 유니세프가 운영했던 것을 포함해 기본소득 실험은 꽤 많았다. 모든 사례에서 결과는 한결같았는데,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의욕을 높였다”고 말했다. 인도의 자영업여성연합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던롭은 “재정적인 안전망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려 했고 더욱 높은 근로의욕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음성원 기자

언론사: 한겨레-2-292.txt

제목: 독성물질 논란 팸퍼스 기저귀, 무조건 안전하니 그냥 쓰라고요?  
날짜: 20170203  
기자: 황춘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3155808001  
ID: 01101001.20170203155808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저귀입니다.<br/><br/>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인 피앤지(P&G)가 판매하는 기저귀 팸퍼스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앤지는 “<span class='quot0'>검출된 양이 극미량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span>”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어 부모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br/><br/> 유해물질 검출 소식은 국외에서 날아왔습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국립소비자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컨슈머리포트 잡지인 ‘6000만 소비자들(60 Millions de Consommateurs)’은 프랑스 내에서 유통되는 기저귀 브랜드 12종 가운데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제품에서 다이옥신·살충제 두 가지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팸퍼스는 세계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 기저귀입니다. 오랜 시간 갈아주지 않아도 ‘뽀송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엄마들 사이에선 아기들 ‘밤 기저귀’로 유명한 제품입니다.<br/><br/> 논란은 피앤지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절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앤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육아 커뮤니티 카페 ‘맘스홀릭’에는 “환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앤지는 왜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걸까요? 피앤지 소비자 상담실에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br/><br/> <br/><br/><br/><br/> 기자: 팸퍼스 기저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br/><br/> 상담원: 기사 보고 많이 놀라셨죠? 검출된 물질은 공정과정과 포장에서 사용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아주 극미량 검출된 거라 인체에 무해하고요. 안전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br/><br/> 기자: 어떤 근거로 무해하다고 하는 건가요?<br/><br/> 상담원: 프랑스 잡지는 통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닙니다. 용매제를 사용해 가혹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극미량 검출된 거죠. 소변이나 대변, 땀 등 평상시 아기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br/><br/> 기자: 피앤지에서는 그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험해 보셨나요?<br/><br/> 상담원: 그건 아니고. 프랑스의 ‘알랭 타이에브’ 의대 교수 역시 무해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br/><br/> 기자: 외국에서는 환불해 준다고 하던데요?<br/><br/> 상담원: 아닙니다. 전 세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환불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br/><br/><br/><br/> 다이옥신은 맹독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환경호르몬입니다. 적은 양도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주요 성분으로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 물질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 피앤지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극미량 검출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유해물질 검출을 최초 보도한 ‘6000만의 소비자’들 역시 “기저귀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의 경우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는 아기들에게 어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자료 자체가 없어 더욱 세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br/> 한국인들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으면서 인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업체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지요. 최근 치약에서 암 유발물질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였지만, 전량 회수하고 판매가 금지됐지요. 또 메탄올이 검출된 하기스 물티슈 역시 전량 회수됐습니다. <br/><br/> 피앤지는 프랑스 잡지의 실험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업체 스스로 검증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피앤지 관계자에게 자체 실험 여부를 물었습니다.<br/><br/> <br/><br/><br/><br/> 피앤지 관계자: 60㎜가 검출됐는데, 이 양은 EU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우유 등에 대한 기준치보다 3000배 낮은 수준의 양이에요. 공기나 음식, 옷 등에서 심지어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br/><br/> 기자: 프랑스 잡지의 실험이 가혹하게 행해졌다고 주장하던데, 그럼 따로 실험을 준비 중인가요?<br/><br/> 피앤지 관계자: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br/><br/> 기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소비자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거 같은데요. 실험을 직접 하든지 일단 회수를 하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br/><br/> 피앤지 관계자: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br/><br/><br/><br/> 미온적 대처에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 유\*우\*은 “피앤지는 안전한 물건이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피앤지는 리콜명령이 날 때까지 배짱으로 나올 태세네요. 옥시와 다를 바 없는 기업”이라며 “양심없는 기업 물건은 끝까지 물어 늘어져 불매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r/><br/>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체들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을 매장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롯데마트 역시 온·오프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습니다. 팸퍼스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br/><br/>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샘플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옥신 등 유독 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의 불안은 팸퍼스 기저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누리꾼 hk\*\*\*은 “팸퍼스 사태 참 갑갑하다”며 “일단 다른 기저귀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안심하고 쓸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br/><br/> <br/><br/> 황춘화 기자 sflower

언론사: 한겨레-2-293.txt

제목: 과로하면 아랫배 살살, 대장암 증상 같아 불안했는데…  
날짜: 201702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1210853001  
ID: 01101001.20170201210853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이모님이 지난해에 대장암을 진단받으셨거든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달라지고 복통이 있는 것이 증상이 거의 똑같아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br/><br/> 이아무개(41·여)씨는 2014년 연말부터 복통이 자주 생겼습니다. 날카롭게 아픈 통증은 아니었고, 아랫배가 살살 아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연말·연초나 상하반기가 바뀌는 6~7월에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과로를 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통이 생기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고, 다녀오면 복통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그렇다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팠던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연초가 지나니 복통 증상이 사라졌다</span>”고 말했습니다. 2015년 연초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가 회사 일이 평상시처럼 줄어들자 1월 하순부터는 복통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종종 밤에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할 때에 복통이 있었지만 누구나 다 있는 증상이라고 여기고 별다른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지도 않았고 다른 질환도 없어서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br/><br/> 2015년 6월말에도 회사 일이 많아지면서 어김없이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을 빼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여름철이라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설사라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했더니, 비슷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 있어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br/><br/> 일이 바쁜 6월말과 7월초를 보낸 뒤 한여름에는 복통 같은 증상은 잊고 지냈고, 추석 연휴에 또 복통이 나타났지만 과식이나 명절증후군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2015년 연말에도 복통과 함께 설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0'>어김없이 찾아오는 증상이라 이 또한 지나간다고 여겼지만, 2~3년째 나타나니 혹시 대장암 같은 질환은 아닐지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동안 채변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한번 받아볼까도 생각했는데, 검사 받기가 꺼려지고 갈 시간도 없는데다 그 정도로 복통이 심하지 않아서 받지는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br/><br/> 복통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는 이모가 지난해 5월쯤 대장암을 진단받은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이었던 그의 이모는 수년 전부터 종종 나타나는 복통과 변비가 있었는데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변비가 좀 심해지면 동네 병원을 찾아 변비약을 처방받아 먹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대학병원 종합검진상품을 예약해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그 결과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이씨는 “이모님은 대장암 2기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 병문안을 가보니 이모님의 증상이 복통과 변비였다고 해서 평소 비슷한 증상이 있는 나도 혹시 대장암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이모는 수술을 받은 뒤에 별도의 치료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br/><br/> 이후 이씨는 인터넷에서 대장암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잘하는 병원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50살부터 대장암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 분변잠혈검사(변에서 출혈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생기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대장암이 생겼다면 50살이 되기 전부터 검진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에 견줘 상대적으로 유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br/><br/> 이씨는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잘못 받으면 대장에 출혈이 생기거나 장에 구멍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인가를 문의했는데, “<span class='quot1'>가족력이 있는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불안감이 크니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span>”고 답해줬습니다. <br/><br/> 이씨는 얼마 뒤에 어머니와 함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복통이나 변비 등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나이도 60대 후반이고 동생이 대장암이라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이씨는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나왔습니다.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은 아니지만 일부 종류에서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암은 물론이고 염증이나 용종이 전혀 없어 안심이 됐다</span>”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용종이 2개 나와 제거했고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은 아니었습니다. 이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시티)검사까지 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더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br/><br/>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복통과 변비 등을 문의하니, 담당 의사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과로에 따른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아서 처방받지는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이후 동네 병원에서 소화기내과를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와 증상에 대해 문의하니 담당 의사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며 설사와 복통을 막을 수 있는 약 처방을 권했습니다. 이씨가 약은 싫다고 하자 그렇다면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민영일 비에비스 나무병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2'>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현대인의 10~15%가 이런 증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에서는 직장인의 결근 이유 가운데 과민성대장증후군이 감기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변비나 복통 같은 증상이 있지만, 대장암, 대장의 염증이나 담낭염, 자궁종양 등 다른 질병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당뇨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에서도 변비나 복통 등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이들 질환에 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br/><br/> <br/><br/>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복통·설사 시달리는 40대 여성혹시 대장암일까 겁났지만내시경 검사선 용종 없이 깨끗<br/><br/> <br/><br/> 현대인 10~15% ‘과민성 대장증후군’미국선 감기 이어 결근사유 2위“운동·규칙적 식사 노력에도증상 호전될뿐 사라지진 않아과로하지 않도록 사회가 도왔으면”<br/><br/> <br/><br/> 이씨는 지난해에도 업무가 바쁜 6~7월 어김없이 복통과 설사가 나타났습니다. 대장암이 아니라는 말에 불안하지는 않았지만, 복통과 설사가 다소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데 책임져야 할 일은 늘어나니 스트레스가 많아져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span>”며 가을부터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집안 살림 및 직장일을 동시에 해야 해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그는 평일에는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고, 주말에는 산의 둘레길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한 시간가량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습관도 과거에는 아침을 먹지 않았고, 점심과 저녁을 먹은 뒤에 밤에 야식을 먹곤 했는데,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챙기고 야식은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재규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환자마다 특정 음식이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식사를 급히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과식이 장관을 자극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br/><br/> 이씨는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석달가량 했지만, 지난 연말에도 과로를 피할 수는 없었으며 복통 증상은 또 나타났습니다. 다만 설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운동이나 규칙적인 식사로 다소 좋아지나 했지만 복통이 사라지지는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직장을 그만두거나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곳으로 옮기면 좋아질 것 같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상, 요가 같은 이완요법, 집 안에서 하는 스트레칭 등도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지만, 퇴근하면 일단 피곤하고,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해 편하게 이런 것들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걷기만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이씨는 “<span class='quot0'>적당한 운동이나 명상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누가 모르겠느냐</span>”며 “<span class='quot0'>직장 동료들끼리는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생이라도 좋은 곳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면서 푸념하곤 한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도 예방하지 못했는데 약도 그때뿐이겠구나’는 생각으로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암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배 아픈 것이야 참을 수 있지만 대장암은 앞으로도 생길지 모르니, 대장내시경 검사는 2~3년마다 받아볼 생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직장인 특히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사회나 정부가 도왔으면 한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294.txt

제목: 지금껏 바른 게 ‘방부제’라고요?  
날짜: 20170201  
기자: 김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201195802001  
ID: 01101001.20170201195802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학생 최은정(23)씨는 얼마 전 화장품을 구입하러 갔다가 문득 화장품의 성분이 궁금해졌다. 상자에 표기된 성분표를 봤다. 생소한 단어인 ‘파라옥시안식×××’ 등으로 표기된 성분들이 빼곡했다. 처음엔 피부 보습과 영양을 위한 화학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전혀 아니었다. 방부제(보존제)의 일종인 파라벤이었다.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개봉 전 3년, 개봉 후 1년’ 동안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건 이 파라벤 때문이었다. 파라벤 때문에 사용기한이 연 단위까지 연장됐다는 사실을 깨닫자 최씨는 찜찜한 기분을 숨길 수 없었다.<br/><br/> ‘파라히드록시벤조산 에스테르’를 일컫는 파라벤은 1930년 개발된 뒤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부제다. 화장품 성분표에 나오는 P-히드록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메틸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에틸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프로필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부틸파라벤) 등이 파라벤의 종류다. 이밖에 페녹시에탄올, 소듐벤조에이트(벤조익애시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포름알데히드 등도 방부제로 쓰인다.<br/><br/> 화장품업계는 화장품의 유통·사용 과정에서 세균과 미생물이 들어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유통기한 동안 순도와 품질을 유지하려면 방부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span class='quot0'>수십년 동안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고, 오염된 화장품보다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을 쓰는 게 낫다</span>”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파라벤 등 보존제는 오랜 기간 임상실험 등을 통해 연구·분석돼, 성분 기준과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보존제가 함유되었다고 무조건 유해하다고 보거나 천연보존제만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 문제는 파라벤이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파라벤이 호르몬을 교란해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14년 유럽연합은 화장품류에 5가지 종류의 파라벤(펜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성분은 여전히 한국에서 허용된다. 한편, 파라벤이 자외선과 반응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디엔에이(DNA)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국내에서는 파라벤 치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br/><br/>파라벤 등 방부제 암 유발 논란 유럽연합선 일부 파라벤 사용금지 화장품 고를 때 전성분 꼭 살펴 없거나 적게 넣은 것 사야 <br/><br/>사실 화장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생의 동반자’다. 그런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방부제가 꼭 들어가야 한다면, 그만큼 화장품을 똑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br/><br/> 가장 쉬운 방법은 합성방부제가 덜 첨가된 화장품을 선택하고, 가급적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상준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원장은 “<span class='quot2'>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등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용한다면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2'>그럼에도 안전성이 의심된다면 화장품의 전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span>”고 말했다. 한국에선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앞쪽에 표시되므로, 꼼꼼히 읽어보고 가급적 방부제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된다.<br/><br/> 다행인 건 최근 들어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 이런 제품도 방부제만 없을 뿐 설페이트 계열의 합성계면활성제 등 다른 유해화학성분은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전 성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러쉬는 합성방부제를 넣지 않은 ‘셀프-프리저빙’ 제품 생산에 나섰다. 벌꿀, 점토, 글리세린과 함께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혼합물을 이용한 천연방부제를 사용해 팩, 로션, 스킨을 선보였다. 닥터 브로너스, 아벤느, 아더마, 듀크레이, 피지오겔 등의 브랜드에서도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와 생협, 아토팜 등에서 파라벤 무첨가 화장품을 살 수 있다. 아이소이는 화장품에 방부제뿐만 아니라 유해화학성분을 넣지 않는 ‘노(NO)마크 캠페인’을 2009년부터 벌이고 있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span class='quot3'>성분표에 어려운 화학성분명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정제수, 라벤더수 등 천연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3'>화장품 성분분석 앱 ‘화해’를 활용해 천연재료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br/><br/> 피부가 민감하거나, 기성 화장품에 안심이 안 된다면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스킨이다. 과일이나 채소, 약초 등을 우린 물만으로도 스킨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로에스킨과 녹차스킨이다. 티백이나 찻잎을 우린 녹차스킨은 살균과 수렴 효과가 있다. 집에서 흔히 쓰는 베이킹소다, 소금, 벌꿀, 흑설탕, 올리브오일과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포도주나 소주, 청주도 스킨을 만들 때 유용한 재료다. 포도주를 희석해 만든 스킨은 주름 예방 효과가 있다. 아로마오일이나 글리세린을 약간 섞으면 보습 기능이 배가된다. <br/><br/> 미백 효과를 원한다면 레몬스킨을 만들자. 레몬 1~2개, 소주나 청주와 글리세린 각 1병만 있으면 된다. 채 썬 레몬을 술과 글리세린을 넣은 용기에 담아 밀봉한 뒤 빛이 들어오지 않게 검은 봉투나 천으로 감싸 한 달간 숙성시키면 완성된다. 오이를 갈아 만든 스킨은 모공 관리 효과가 있으며, 느릅나무 뿌리껍질(유근피)이나 수세미(사과각), 어성초, 삼백초 등으로 만든 스킨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 좋다. 홍삼 화장품의 기능을 기대한다면 홍삼 우린 물이나 홍삼엑기스를 물에 희석해 스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다.<br/><br/> 천연스킨을 만들 땐 손과 용기를 반드시 소독해 세균과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완성한 스킨은 반드시 냉장보관해야 한다. 가급적 소량을 만들어 단기간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자.<br/><br/> 김미영 기자 kimmy

언론사: 한겨레-2-295.txt

제목: [아침 햇발] ‘박근혜쇼’와 태극기, 그리고 정치공작 금지법 / 김이택  
날짜: 20170126  
기자: 김이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26163825001  
ID: 01101001.2017012616382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김이택논설위원<br/><br/> 인터뷰라기보다 코미디에 가까웠던 25일 심야의 ‘박근혜쇼’는 “모두가 거짓말”이고 “누군가 기획”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또 하나 ‘허걱’ 했던 건 태극기 시위대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시위에 가겠느냐’는 의도된 듯한 질문에 “아직”이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대목이다.<br/><br/> 박근혜 청와대는 ‘태극기’를 손에 든 극단세력을 정치공작의 행동대로 부려왔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7~9월치엔 박사모 등을 시켜 박지원 박범계 권은희 등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실제 그대로 집행됐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다이빙벨> 상영 반대 시위 등 반세월호 집회를 지시했다. 패륜적인 폭식 투쟁도 이들의 작품일 것이다.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민’ 대신 극소수 특정 국민과만 소통하며 돈까지 지원했다. 허현준 행정관은 세월호 유족 반대 집회뿐 아니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에 맞설 구상을 하라고 자유총연맹 고위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냈다.<br/><br/>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좌파’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린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돈줄을 끊고, 대신 반대편 우익단체들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자금을 지원해줬다. 폭탄주를 오른쪽으로 돌릴 땐 ‘우익보강’, 왼쪽으로 돌리면서 ‘좌익척결’을 외쳤던 공안검사 시절 다짐을 실천했다.<br/><br/>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 반대 시위대도 결집 중이다. 이들 모두 그렇지는 않겠으나 박근혜 청와대가 동원한 정치공작 행동대의 흔적이 엿보인다. 최근 집회에선 “탄핵되면 폭동”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아버지 시대 이래 수십년 쌓아온 명예와 권력까지 모두 잃고 쫓겨날 처지라면 그 앞에 나가 마지막 호소를 해보고 싶은 유혹도 느낄 법하다.<br/><br/> 우익을 동원한 정치공작은 김 실장 때만의 문제가 아니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에 문자를 보낸 시기는 2015년 10~12월로 김 실장 퇴임 이후다. 또 박근혜 청와대만의 일도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우익단체 동원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 그대로 두면 설사 정권이 바뀐다 해도 형태만 바꿔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로 자랄 것이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현수막엔 ‘종북’투성이인 조직이 보수일 수도, 시민단체일 수도 없다.<br/><b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두 재단 비리와 기밀누설 등 국정농단을 핵심 사유로 해서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와 김영한 업무일지가 돌출하면서 정치공작이 그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다. 공작이 비리보다 약한 죄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뿌리 깊은 조직범죄란 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에도 더 위협적이다. 태극기 집회의 극단적 구호에서 보듯 탄핵과 대선 등 향후 일정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암세포를 서둘러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전진하고 민주주의도 정치도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br/><br/> 그런데 특검은 검찰로 넘길 모양이다. 일정상의 제약도 고려한 것 같다. 일정을 연장하거나 별도 특검을 해서라도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br/><br/>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정치공작을 자행해도 공직자는 직권남용 정도고, 행동대는 집시법 위반이나 폭력 등 개별범죄 아니고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죄악의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정치공작 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 <br/><br/>rikim

언론사: 한겨레-2-296.txt

제목: [금융특집] AIA생명, 고액암 추가보장 ‘꼭 필요한 암보험’  
날짜: 2017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26145825001  
ID: 01101001.2017012614582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에이아이에이(AIA)생명 한국지점은 고액암에 대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꼭 필요한 암보헝(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2015년 10월 출시된 ‘(무)꼭 필요한 암보험’의 개정판이다. 개정된 보험에는 기존에 없었던 고액암 특약 보장이 가능하다. 고액암 특약 가입자는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 등 고액암에 대해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AIA생명은 “<span class='quot0'>2014년말 기준 한국 60~70대의 1인 평균 암 관련 보험금 수령액은 2800만원 정도로, 기존 가입한 보험만으로 고액암 치료비를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또 이 보험에는 간편심사가 적용된다.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제왕절개 포함),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 여부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40~75살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살까지 보장 가능하다.

언론사: 한겨레-2-297.txt

제목: 밑지는 장사로도 부자되는 곳이 있다  
날짜: 20170124  
기자: 조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24230918001  
ID: 01101001.2017012423091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1.왜 공동체인가타이 아속2.가장 ‘핫한 남자’ 포티락을 만나다 3.이윤을 포기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4.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다인도의 오로빌5.자기로 살면 누구나 천재가 된다미국 브루더호프6.돈 없이 최고급리조트에서 살아보기7.공부보다 청소와 요리에 더 열심인 아이8.뒷담화 말고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라일본 애즈원9.인간과 사회 탐구, 제로에서 시작한다10. 아무도 명령 하지않는 일터에서 일하다일본 야마기시11.못난이도 잘난이도 함께 살아가는 곳 <br/><br/> <br/><br/> 아속은 환희라는 뜻이다. 특히 ‘고통이 없는 상태’의 환희다. 몸이 아프면 배부른 돼지가 되긴 어렵다. 괴롭기에 자신을 철학하게 된다. 그런데 환자는 나만이 아니다. 세상이 아프다.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다.<br/><br/> 이 세상은 이토록 발전하고 마천루가 치솟고 물건이 넘치고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데, 정작 다수는 지하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부자유스럽고 어둡고 괴로운 것일까.<br/><br/> 마르크스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했는데, 왜 그 혁명을 했다고 외치는 곳조차 스탈린이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같은 국가주의 독재자들이 군림하는 암흑이 된 것일까.<br/><br/> 지구상에서 매일 3만7000명씩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소수 권력자와 부자의 욕망만은 암처럼 무한성장하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은 어떤 정치체제와 법으로도, 어떤 도덕과 종교, 어떤 투쟁으로도 끝내 초월할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물음엔 메아리마저 없다.<br/><br/>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 아니냐’며, 부서지고 깨어진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위해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모순을 자각하고, 암흑 속에서도 가슴속에 타오르는 등불 하나만은 결코 꺼뜨릴 수 없어 공동체를 찾고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다.<br/><br/> 공동체는 그런 ‘이상’ 없이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이상’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공동체에서도 먹고, 입고, 자야 한다. 그런데 많은 공동체가 중도에 파산한 것은 갈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식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능력이 없어서기도 하다. 그러니 공동체도 이윤 창출이 필요하다. 어른과 아이들이 어우러지는아속의 일터는 곧 놀이터누구도 일하기 싫은 내색없고두시간 내리 하면 “쉬면서 하라”만드는 것은 모두 생활필수품쓰고 남은 건 이웃과 나눠직영 마트에 멀리서 온 손님들명절엔 모든 식품이 단돈 30원“이윤 적을수록 영적 이득”적게 벌어 적게 쓰는 경제 철학원가-판매가 차이 최소화 ‘최고 덕목’공동체 밖으로 공감 늘면서금융위기땐 농민교육의 장으로<br/><br/><br/><br/> 시사아속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내려다보면 건너편엔 허브약들을 만드는 간이공장들과 그 약들을 파는 가게가 나란히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와 허브공장 도로 한켠엔 어디선가 줄기째 잘라온 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장미처럼 줄기에 가시가 달린 빨간 꽃이다. 도로엔 줄기에서 잘라 햇볕 아래 널어놓은 선홍빛 그 꽃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br/><br/> 게스트하우스 앞엔 아침이면 학생들이 대여섯명씩 와서 꽃을 자르는 작업을 했다. 아이들과 어울려 나도 꽃을 자르다 보니, 그곳이 첫 일터가 되었다. 줄기에 달린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만 하면, 일은 어려울 게 없었다. 아이들은 아침에 2시간가량 수다를 떨며 그 일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허브공장의 아주머니 몇분이 와서 대체했다. 그들도 동남아시아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이런 목가적인 일터는 아이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외부 공장들과 달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 주위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다.<br/><br/> 며칠 뒤엔 분위기를 바꿔 허브세제를 만드는 곳에서 일해보았다. 샴푸를 플라스틱병에 담고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다. 몇번 해보니, 속도가 붙어 한나절에 할 일을 두 시간 만에 끝냈다. 그러면 그들은 새 일감을 가져오지 않고, 이제 쉬어도 좋다고 했다.<br/><br/> 시사아속엔 유치원과 초등, 중고등, 기술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공동체에서 사는 집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와 기술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왔다. 학비만이 아니라 먹고 입고 자는 것 일체를 공동체에서 해결해준다. 하지만 이들이 거저 먹는 것은 아니다. 시사아속 내엔 여러 개의 작은 공장들이 있다. 공동체 안뿐 아니라, 차로 10~20여분 거리에 여러 개의 농장들까지 있다. <br/><br/> 40명 안팎의 중고등부와 기술학교 학생들도 많은 일을 했다. 공부를 위해 아예 일엔 열외인 한국의 아이들과는 너무 달랐다. 새벽이면 유치원생들까지 비를 들고나와 거리를 쓸거나, 공용 강당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br/><br/>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일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비결은 무엇보다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 데 있는 듯했다. 공동체 외곽의 논에서 볏짚을 거름으로 뿌릴 때였다. 서너명의 아이들은 볏짚을 싣고 카레이서처럼 논을 질주했다.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차로 싣고 온 볏짚이 흙과 섞이도록 곡괭이로 긁었다. 어떤 아이들은 볏짚을 친구에게 뿌리며 서로 뒤쫓고 뒹굴고, 어떤 아이들은 서서 수다를 떨고, 한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놀 자유를 만끽했다. 아이들은 대강당에서 수업도 놀이처럼 했다. 교실엔 웃음과 소음이 진동했다. 공동체 가장자리엔 드럼과 기타, 북 등을 갖춘 야외 음악실이 있었다. 아이들은 자주 그곳에 모여 ‘신기’를 발산했다. 한국의 많은 아이가 새장에 갇힌 새라면, 이들은 스스로 살아가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숲 속의 새들 같았다.<br/><br/> <br/><br/> 시시아속공동체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틈틈이 악기를 연주하며 신기를 발산하곤 하는 아속의 아이들<br/><br/> <br/><br/> 모든 공동체원들이 자유분방한 건 아니었다. 하루 한끼만 채식을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스님들과 독신 ‘수녀’들이 있었다. 한번은 학생들이 농장에 간다고 해서 20여명의 수다객과 동승해 가보니, 교장 선생님이자 ‘수녀’인 아수가 큰 밭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말 없는 실천적 삶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었다.<br/><br/> 촌장 격인 아뻠이나 아수는 출가 비구니가 아니었고 유니폼을 입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맨발로 다니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그런데도 내가 두 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아뻠은 가만히 다가와 “힘들지 않으냐”며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쉬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br/><br/> 시사아속 정문 옆엔 대형마트가 있다. 시사아속이 운영하는 곳이다. 시사아속에서 생산하지 않는 의류나 생필품들도 판매된다. 마트 옆엔 우리나라 시골 오일장 같은 장이 있다. 아속에서 생산된 채소 등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다. 시골의 읍이나 면 소재지도 아닌 곳인데도 이곳 마트엔 멀리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온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이다. 큰 마트도 가지고 있고 장사도 잘되니, 이 정도면 공동체원들이 먹고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r/><br/>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속의 경제 철학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니, 이상치고는 너무나 허황해 보였다. <br/><br/> 아속공동체는 ‘부니욤 네트워크’로도 불린다. 그들의 경제 원리가 ‘부니욤’(공덕주의)이다. 공덕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행이다. 종교조차 ‘공덕 없이도 단박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느니 ‘선행 없이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신념이 대세다. 각 종교에선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편승하는 논리다. 성인은 운명을 아는 것을 넘어 운명을 만들어간다고 한다. 이기적 욕망의 약육강식만이 지배하는 세상은 지상천국이 아닌 지상지옥이 될 게 뻔하니, 선의를 가진 자라면 서로 돕는 공덕과 선행을 확산시키는 게 당연하다.<br/><br/> 공동체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뿐 아니라 태양과 공기와 물과 농산물과 다른 존재들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깨달음, 혼자만의 구원은 공동체적 상생 원리에 반한다. 많은 공동체들도 자신들만이 뭔가를 얻겠다며, 이웃들과 단절된 폐쇄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속은 철저하게 열려 있다.<br/><br/> 아속의 경제 행위도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그래서 원가를 공개한다. 그리고 농산물은 원가 이하로 팔거나 거저 주기도 한다. 명절 때는 모든 식품 가격을 1밧에 판매한다. 1밧은 우리돈으로 30원가량으로 타이에서도 과자 하나 사 먹기 어려운 푼돈이다. 아속은 이윤을 높이려 할수록 부도덕해지고 영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반면, 자기의 탐닉을 최소화할수록 ‘영적 이득’이 증가한다고 여긴다. <br/><br/> 시사아속 입구 쪽엔 ‘의·식·주·약’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아속이 생산하는 것 가운데 소비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제품은 없다. 하나같이 삶의 필수품들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허영을 채우려 소비를 늘리며 생명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한다. 아속은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실천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아속인들은 많이 팔아 많이 남기고 많이 소비하려는 갈망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간다. 이런 모범이야말로 허브약과 다른 ‘영혼의 약’이다.<br/><br/> 이들의 가장 독특한 점은 외부의 보시(헌금)로 유지되는 대부분의 종교단체들과 달리, 보시 없이 ‘자족경제’로 스스로 벌어 스스로 살며, 오히려 그 혜택을 고을 이웃들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다.<br/><br/> 아속공동체 안엔 밖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부류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려와 수녀, 이에 동조하는 많은 공동체원들이 있다. 그래서 허황해 보이는 부니욤 경제가 실현된다. 또 이토록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봉사하면서도 공동체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 전체적으로 더 커지고, 풍요로워진다.<br/><br/>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아시아 전체가 기우뚱거릴 때조차 아속은 조금도 장애 없이 발전해 자족경제의 힘을 보여줬다. 부니욤 네트워크는 현재 30개의 공동체와 9개의 학교, 6개의 채식 레스토랑, 4개의 유기농 비료 공장, 3개의 쌀방앗간, 2개의 허브의약품 공장, 하나의 병원, 160헥타르(㏊)의 농장을 갖추고 있다.<br/><br/> 결실은 아속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90년대 푸미폰 국왕이 농업국가 타이의 자족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타이 교육부는 아속의 학교들을 모델로 지정해 서양 추종 교육이 아닌 타이다운 대안교육을 본받도록 했다. 또 포티락의 추종자인 짬롱 시므앙 전 방콕시장이 탁신 총리의 경제자문이 되면서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로 몰린 농민들을 위한 ‘빚으로부터 탈출 프로젝트’를 실시해 농민들을 5일씩 아속에 보내 교육을 시켰다. 무려 30만명이 아속에서 자연농법과 자급자족 방식 등을 터득해 고향으로 돌아갔다.<br/><br/> 많이 벌어 많이 쓰면서도 더 못 벌고 더 못 써 안달하며 괴로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아속인들은 적게 벌어 적게 쓰고 많이 베풀었다. 그러면서도 환희에 젖은 표정을 보니, 노래 ‘거위의 꿈’이 절로 흘러나왔다.<br/><br/> “<span class='quot0'>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 /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span>”<br/><br/>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

언론사: 한겨레-2-298.txt

제목: [나는 역사다] 1월25일의 사람, MBC 제작거부 참여한 이용마 기자(1969~ )  
날짜: 2017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24201806002  
ID: 01101001.20170124201806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2012년 1월25일, <뉴스데스크>가 15분 만에 끝났다. 바로 이날부터 엠비시(MBC) 기자회가 제작 거부에 들어간 것. 이명박 정부가 김재철 사장을 통해 편파보도를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1월30일에는 엠비시 전체가 총파업을 시작. 곧 케이비에스, 와이티엔, 연합뉴스도 파업. 국민일보는 이미 파업 중이었다. 2012년의 언론 총파업.<br/><br/> 이때 방송3사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한 사람이 이용마 기자다. “<span class='quot0'>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삼성과 치열하게 싸우던 기자, 언제나 가장 강한 권력과 맞서며 물러섬이 없던 사람</span>”이라는 평(엠비시 김혜성 기자). 해직 중에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 전 알려졌다.<br/><br/> <br/><br/> ‘부당해고이니 복직시키라’는 법원 판결에도 회사는 “배 째라”며 버티는 중. 올 초 엠비시 기자들은 “<span class='quot1'>엠비시 정상화를 위해 비난을 멈추지 말아 달라</span>”고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이 기자는 지난가을 “<span class='quot2'>비난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span>”는 편지를 썼다. 만화에 나오는 ‘원기옥’처럼 우리 시민이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br/><br/> 이 기자가 현장에 다시 서는 날을 바라며 방송 마이크를 쥔 건강한 모습으로 빚어보았다.<br/><br/> 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2-299.txt

제목: 국내 첫 ‘꿈의 암치료 센터’ 첫삽 뜨고 표류할 판  
날짜: 20170124  
기자: 김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24163811001  
ID: 01101001.20170124163811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2010년 4월19일 부산시청에선 의미 있는 협약식이 열렸다. 이종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최현돌 기장군수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에 함께 나서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3자는 협약서에서 2015년까지 국비 700억원, 부산시와 기장군 각 25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0억원 등 1950억원을 투자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옆에 중입자 치료센터를 완공하자고 약속했다.<br/><br/> 그로부터 6년 9개월이 흐른 지난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찾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옆에 새로 난 도로를 따라 들어가니 지상 2층 높이 건물이 나왔다. 국내 최초의 중입자 치료센터다. 건물 안엔 관리직원 몇 명만 보였다. 방사선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은 1층 치료실 3곳은 텅 비어 있었다.<br/><br/> 1층 치료실에서 60여m를 더 들어가니 가로 30m, 세로 33m, 1000㎡ 면적의 커다란 방이 나왔다. 이곳에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와야 하지만 콘크리트 기둥 2개만이 천정을 떠받치고 있을 뿐이다.<br/><br/> 중입자가속기는 탄소원소를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기다. 원형 가속기에 중입자를 넣고 빛 속도의 70%로 가속해서 살 속 깊이 25㎝까지 빔(선)을 쏜다. 일반 방사선 치료에 견줘 치료 기간은 2~3개월에서 1~4주, 치료횟수는 30~40차례에서 1~16차례로 단축된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는 두경부암(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에 발생한 암)·폐암·간암·전립선암·골육종암·자궁경부암·직장암·두개저암(두개골 아래쪽에 발생한 암) 등 8대 암 3~4기 환자는 일반 방사선 치료 대비 5년 생존율이 23%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다. 폐암 1기 환자는 5년 생존율이 15%에서 95%, 간암은 23%에서 90%, 골육종암은 33%에서 80%로 늘어난다.<br/><br/> 치료비가 몇천만원이나 하는 것이 흠이지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현재 일본 4곳, 독일과 중국 각 2곳, 이탈리아 1곳 등 4개국 9곳에서만 중입자가속기를 상업 운영하는 것에 주목했다. 현재까지 4개국 9곳에서 상용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가 싱크로트론형인데 싱크로트론형보다 작고 사용이 편리한 사이클로트론형에 눈을 돌리고 2011년 6월부터 본격 연구개발에 나섰다. 세계 최초로 사이클로트론형 중입자가속기를 개발해서 세계 중입자가속기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br/><br/> 하지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14년 5월 싱크로트론형으로 변경했다. 3년 만에 기종을 바꾼 것이다. 국내외 가속기 전문가들이 암 치료 목적으로는 임상시험조차 한 적이 없는 사이클로트론형보다는 1994년부터 실전 응용되고 있는 싱크로트론형이 더 적합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br/><br/> 기종을 바꿨지만 이번엔 싱크로트론형 중입자가속기를 살 돈이 부족했다.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250억원씩 500억원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도 500억원을 지원했지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협약에서 분담하기로 한 750억원 가운데 한 푼도 내지 않았다.<br/><br/>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12월 750억원 투자 유치를 위해 중입자 치료센터를 공동운영할 병원을 찾는 모집공고를 냈지만 응모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13일 750억원을 투자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경영을 10년 동안 맡기고 중입자가속기 소유권을 넘기는 2차 모집공고를 냈다.<br/><br/> 2차 모집공고에서 극적으로 750억원을 투자할 병원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업 치료는 애초 2016년에서 2021년으로 5년 늦어지게 됐다. 꿈의 암 치료기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희망 고문이 더 연장된 것이다.<br/><br/> 다음달 23일이 기한인 2차 모집공고에서도 투자할 병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750억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 기장군이 7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난해 5월 완공한 중입자 치료센터 건축비 600억원 등 투자비 1000억원은 허공에 날아갈 가능성이 커진다.<br/><br/> 부산시와 기장군은 난감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원자력의학원이 협약을 어긴 것인데 협약이 구속력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span>”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자치단체는 먼저 상업 치료를 요구하고 연구개발은 늦어져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span>”고 말했다.<br/><b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내 방사선 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했다. 정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위탁경영을 철회하고 대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김광수 기자 kskim

언론사: 한겨레-2-300.txt

제목: [유레카] 위대병 증후군 / 박순빈  
날짜: 20170123  
기자: 박순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23174839001  
ID: 01101001.2017012317483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우리 속담에 ‘사주에 없는 관(冠)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말이 있다.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데 벼슬을 맡으면 머리칼이 빠진다는 것으로,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맡으면 도리어 괴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요즘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있다. 그들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다.<br/><br/> 과분한 권력이나 돈을 거머쥔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심해지면 현실과 개인적 욕망이 헷갈리는 인지 부조화에 빠진다. 나아가 자신도 참과 거짓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런 환자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현실에선 다반사로 벌어진다.<br/><br/>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미국 뉴욕시립대)는 과학 세계에서 흔히 빠지는 ‘위대한 사람’의 정신병리를 차용해, ‘위대병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기업 경영과 국가 운영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위대병 증후군이 팽배해진다는 것이다. 가령 성공한 기업인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그런 기대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인이 할 일은 국가 지도자의 그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기업의 과도한 힘은 국가에 엄청난 해악이 되기도 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업은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이익 너머의 전체를 봐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br/><br/>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스스로 위대하다는 착각, 또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오만은 필연코 화를 부른다. 위대병 증후군은 국가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이다. 한 줌의 정·경 협잡꾼들이 제 분수를 모르고 설쳐댄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생생한 증거다. <br/><br/> 박순빈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sbpark

언론사: 한겨레-2-301.txt

제목: 직장 건강검진 안받으면 왜 과태료 내야 하죠?  
날짜: 2017011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8201521001  
ID: 01101001.20170118201521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직장인 이아무개(45·여)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12월 말에 마지못해 받았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건강검진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받지 않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회사 쪽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3년 전쯤 건강검진을 할 때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암인지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검사비로 150만원 가까이 들었지만, 검사 결과 암이 아니고 양성 혹이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검사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며칠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면서 혼자 울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에서 검진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span>”고 말했다.<br/><br/> 직장을 다니게 된 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김아무개(34·남)씨도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다 회사의 과태료 ‘압박’에 어쩔 수 없이 12월 말 검진을 받았다. 그는 “<span class='quot0'>아직 30대라 아픈 데도 없고 해마다 같은 검사를 받으니 바쁜 와중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받지 않고 싶지만,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진을 피하거나 미루는 직원들에게 회사는 수차례 독촉을 하곤 한다. 현행법상 규정돼있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 때문이다. “<span class='quot1'>바쁜 직장생활에서 그나마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니 안심이 된다</span>”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span class='quot1'>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사항을 정부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span>”며 반발하는 입장도 있다. <br/><br/>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 이 때문에 각 직장에서는 12월말이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씨나 김씨와 같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항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 전화가 12월부터 시작해 1월까지 이어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주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해마다 똑같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냐며 항의 전화를 해 온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금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대기업에 견줘 크게 낮은데 이런 의무화 규정마저 없으면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14년 사업장 규모별 직장 가입자의 1차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를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수검률은 각각 92.9%, 94.3%지만 1~4명, 5~9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수검률은 각각 52.9%, 68%에 그친다. <br/><br/>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3'>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은 휴가로 인정하게 하는 등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302.txt

제목: 죽다 살아온, 별들의 큰형님  
날짜: 2017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8103844001  
ID: 01101001.20170118103844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천마산 기슭 마을 주택가에 있는 ‘동국선원’ 주지 육허(54) 스님은 ‘별’들의 형님이다. 그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제집 드나들듯 한다. 올겨울 최고 한파가 몰아친 지난 13일 그를 찾았다. 현관문을 열자 온기라곤 없는 냉골이다. 객이 거실에 앉은 이후에야 난방기를 끌어다 튼다. 내핍이 몸에 밴 그지만 교도소에 갈 때만은 큰손이다. 소형차엔 막 쪄낸 떡이나 빵이 한가득 실린다. 형편이 어려운 재소자에겐 영치금도 넣어준다. 재소자들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해서 그는 ‘예스 스님’으로 통한다. 그는 ‘20년 동안 재소자들을 돌보고, 내 공부를 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지 17년이 됐다.<br/><br/> 그는 “재소자들을 보면 내 전생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스님들은 출가 전의 삶을 전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는 1970년대 인기 있던 권투를 했다. 중3 때는 소년체전에서 입상도 했다. 그런데 18살 때 빗장뼈가 나가 권투를 그만뒀다. 꿈이 좌절되면서 방황이 시작됐다. 그는 20대를 ‘반달로 보냈다’고 했다. ‘(폭력)조직’ 같은 데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반은 건달로 살았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한 시절이었다.<br/><br/> <br/><br/> 사법시험 준비생 둘과 의기투합<br/><br/>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자 그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도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던 1997년 고향 부근인 대구 팔공산 오도암 터로 숨어들어갔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폐사 터에 움막 하나 짓고 주역을 공부했다. 머리를 길게 땋아 늘인 채 3년이 되자 명망 있는 역술인들과 일합을 겨뤄볼 만한 자신감도 생겼다.<br/><br/> 그러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러 입산한 두 도반을 만났다. 출세와 출가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도반들과 스승이 될 만한 ‘큰스님’을 찾아보자고 의기투합했다.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로 간 어느 날 셋은 밤새 술을 마시고는 바람결에 들었던 한 은둔승을 찾아갔다. 비가 흩날려 질척거리던 산길을 겨우 오르자 간판도 법당도 없는 초라한 토굴이 나왔다. 스님은 라면을 끓여 왔다. 객들이 신발에 묻혀온 진흙들로 멍석도 질척거렸다. 멍석 위에 놓인 스님 앞의 라면 그릇이 엎어져버렸다. 그런데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두 손바닥으로 쓸어 모아 다시 그릇에 담았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라면을 먹었다. 불경에서 본 ‘불구부정’(不垢不淨·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본래 없음)이었다. 쇼핑하듯 큰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시비하고, 세상사나 탓하던 젊은 객들의 악취마저 은둔승은 흔쾌히 마시고는 향내를 피워냈다. 토굴을 나온 그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셋 모두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아래 삼거리에서 셋은 헤어져 모두 출가했다.<br/><br/> <br/><br/>그는 ‘별’들의 형님이다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한다 무엇이든 들어주는 ‘예스 스님’이다 그들이 출가 전 자기 모습 같단다 10대 때 권투선수 하다 뼈 다쳐 방황 20대는 반은 건달인 ‘반달’ 30대 중반에 산속 움막 짓고 주역 공부 우여곡절 끝에 출가해 포교당 맡아 조폭까지 협박하는 빚더미에 파산 스트레스로 대장암 4기 권투 하던 배짱으로 병마 물리쳐 시신도 장기도 기증 가해자-피해자 가르면 범죄 더 악랄 남의 고통이 내 고통임을 깨닫게<br/><br/><br/><br/>육허 스님이 찾아간 곳은 충남 금산 대둔산의 도인이라는 태고사의 노승 도천 스님이었다. 금강산에 출가해 평생 노동 속에서 수도해온 도천 스님을 시봉하며 2년을 지냈다. 그러다 인연 따라 광주 무등산 보현사를 거쳐 경기도 광명 도심 포교당에서 고용 스님으로 부전을 살았다. 무리하게 빚을 내 포교당을 연 주지가 구속되면서 그가 뜻하지 않게 절을 떠안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영등포교도소와 5공수부대에 나가 사회 포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연 걸리듯 걸린 빚이 그를 조여왔다. 조직폭력배들까지 협박해왔다. 그는 포교당이고 뭐고 도망치고만 싶었다. 그러나 이미 법당에 조성된 천불(1천 불상)을 두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불상들을 고물상에 팔아버리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광명의 포교당에서 빚잔치를 하고 서울 금천구의 허름한 포교당으로 천불을 옮겼다. 이사업체를 부를 돈도 없어서 1층부터 4층까지 천불을 손수 져 날랐다. 그날 밤 얼마나 힘들고 서럽던지 밤새 울었다.<br/><br/> <br/><br/> 대장과 직장 대부분과 간 30% 절제<br/><br/>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결국 몸에 사달이 났다. 그는 2007년 대장암 4기 선고를 받았다. 1차 수술에서 의사는 아기 머리통만한 암이 골반에 떡처럼 박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며 그냥 덮었다고 했다.<br/><br/> 그는 마지막만이라도 출가자답게 마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발심했던 오도암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몸을 벗을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시보다 생생한 꿈을 꿨다. 자기가 죽어 병풍 뒤에서 향내를 맡고 있는데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다. “<span class='quot0'>중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쉰도 못 돼 저런 몰골로 죽는다는 말이야</span>”라는 비아냥이었다.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선 후생조차 기약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br/><br/> 그래서 암전문병원으로 가 떼를 썼다. 의사는 암 절제에 성공한다 해도 휠체어를 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검진에서 암은 이미 직장과 간과 림프까지 번졌다고 했다. 천행으로 골반에 박힌 암 제거에 성공했다. 그러나 4번의 수술로 대부분의 대장과 직장, 간 30%와 림프까지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병행했다. 퇴원해서는 양쪽 옆구리에 장루(인공항문)와 항암제를 찼다. 허약해진 그는 겨우 일어나도 한 발을 떼기가 힘들었다. 미음을 먹어도 모두 토했다. 그런데도 교도소와 군부대 법회엔 가겠다고 우겼다. 법회를 가기 위해 한술이나마 미음을 넘겼고, 기다시피 교도소로 향했다. 학교 운동장에 나가 운동도 시작했다. 처음엔 걸어서 한 바퀴 도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그러나 권투를 하던 배짱으로 병마와 싸웠다. 결국 몇 달 뒤엔 관악산 정상까지 48분 만에 뛰어오를 수 있었다.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는 장루까지 떼어냈다. <br/><br/> <br/><br/> 최상도 최하도, 상하좌우도 없는…<br/><br/> 그가 죽음에서 기어나와 예닐곱명의 지인들과 함께 시작한 게 <금강경> 법회였다. 매달 한 번씩 열린 법회에서 승가대도 강원도 다닌 적 없던 ‘반달 스님’은 독특한 해석을 내놓곤 했다. 가령 ‘아뇩다라삼보리’(무상정등정각)는 통상 ‘최고의 깨달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br/><br/> “최상이라는 게 본래 없다. 최상이라고 하면 벌써 상(相)에 걸린 것이다. 최상도 없고, 최하도 없다. 상하가 없고, 좌우가 없고, 너와 내가 없으니 이름하여 최상이라고 하는 것이다.”<br/><br/> 그는 재소자 교화에도 ‘불이’(너와 내가 둘이 아님)법이 절실하다고 한다. 범죄자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인간말종시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려고만 들면, 범죄는 진화하고 더욱 악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span class='quot0'>도둑이 외아들 대학 등록금을 훔쳤는데, 아들이 그 돈을 소매치기 당하면 그 도둑 심정이 어떠겠는가</span>”라고 물으며,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임’을 깨닫게 했다.<br/><br/> 전국의 교도소에서 별들과 절친이 되다보니, 지난번 법회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집에 들어온 강도가 돈을 챙긴 뒤 딸을 겁탈하려다 벽에 길린 동국선원의 달력에 적힌 ‘육허 스님’이란 글씨를 보고, “육허 스님을 아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허 스님이 교도소 가신다면 떡을 해서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했더니, 훔친 돈까지 놓고 인사를 하고 도망가더라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다는 선인선과(善因善果)의 인연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br/><br/> <금강경> 한 품씩 매달 1회씩 32품을 끝내고, 그가 맨 먼저 한 것은 시신 기증과 장기 기증이었다. 함께 공부한 사람들도 따라 했다. 법회에 빠지지 않았던 조각가 현공은 오는 3월 출가하기로 했다. 불교계에선 화가로 이름이 알려진 부친 무공스님이 열반한 뒤 절까지 빼앗기고 쫓겨나 한 때 원한에 사무치기도 했던 현공은 “<span class='quot1'>스님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한 뒤 원한이 쉬어지고, 내가 그 절에서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공부를 시켜준 그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요즘은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span>”고 말했다.<br/><br/> 육허 스님은 최근 남양주시 화도읍 달매산 정상의 기증받은 땅에 약사여래불을 다음달까지 모신다. 모든 중생들의 병 치료를 기도하기 위해서다. 아픈 이들이 스님 눈치볼 필요도 없이 자기 기도만 하고 가는 기도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생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의사가 된 뒤 출가해 출가자로서 몸과 마음의 병을 동시에 치료해주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다. “왜 하필 가난한 집이냐”고 묻자 “<span class='quot0'>부잣집에 태어나면 나태해져서 출가 같은 건 생각지 않을 것 같아서</span>”란다. 몸과 마음을 비워 더욱 가벼워진 그가 날다람쥐처럼 산을 오른다. 병조차 애초 없었던 것인가.<br/><br/> 남양주/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

언론사: 한겨레-2-303.txt

제목: ‘악마의 잼’ 누텔라 팜유 발암 물질 논란…한국 라면은?  
날짜: 20170117  
기자: 황춘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7115855001  
ID: 01101001.201701171158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누텔라’가 발암 물질 논란에 휩싸였다. 누텔라는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맛 때문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의미로 국내에선 ‘악마의 잼’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콜릿 잼이다.<br/><br/> 논란은 ‘팜유가 암을 유발한다’는 유럽 식품당국의 발표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팜유가 200°C 이상으로 가열되면 발암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반 소비자가 200°C 이상의 고온으로 식품을 가열해 먹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일부 식품 제조사가 팜유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고온으로 팜유를 조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br/><br/>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가 올초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탈리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 코프가 팜유 함유 식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등의 보도를 보면, 코프는 유럽 식품안전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팜유가 든 200개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여기에 누텔라도 포함됐다. <br/><br/> 팜유가 문제가 되자, 일부 식품업체들은 팜유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누텔라의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페레로 그룹은 팜유를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페레로 구매 담당 임원인 빈센쪼 타펠라는 “<span class='quot0'>팜유에 대한 대체재를 찾는 것은 퇴보</span>”라며 레서피를 변경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닌, 다른 오일을 사용해서는 얻을 수 없는 특유의 부드러움을 얻기 위해 팜유를 사용하는 만큼 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br/> 페레로 그룹은 사용 중단 대신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식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엄격한 질적 기준을 지켜 생산한다”는 글을 올렸다. 로이터와 인터뷰에서는 “발암 물질이 유발될 정도의 온도(200°C 이상)로 제품을 조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누텔라는 페레로 그룹 연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 <br/><br/> ■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팜유 유해성 논란 <br/><br/> <br/><br/> 팜유 발암 논란은 한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불붙고 있다. 바로 라면이다. 한국은 1980년대 ‘우지 파동’ 이후 라면을 튀기는 용도로 팜유를 사용하고 있다. 라면뿐만 아니다. 저렴한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한국에선 가공식품 제조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br/><br/> 2014년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 소재 대형마트 6곳의 가공제품 8품목, 618개 제품의 팜유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판 스낵·라면·초콜릿의 10개 중 7~8개는 팜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팜유는 다른 유지에 견줘 가격이 저렴하다. 특히 초콜릿을 만들 때 주원료인 카카오버터 대신 팜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팜유가 바삭한 맛을 내는데 편리하고, 상온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식품업체가 팜유를 선호하기도 한다. (▶초콜릿 115개 제품중 절반이 팜유 함유)<br/><br/> 사실 팜유는 위해성 논란 뿐 아니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도네시아 등에선 팜유를 제거하기 위해 건기 동안 열대우림을 태우고 기름야자나무를 심는데, 이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1일 평균 2300만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열대우림을 밀어버리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의 서식지도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br/><br/> <br/><br/> <br/><br/> 어디에나 들어가는 팜유가 오랑우탄을 죽이고 동남아시아 숲을 파괴하고 있다<br/><br/> <br/><br/> 최근 20년 동안, 수만 마리의 야생 오랑우탄이 팜유 산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죽거나 팔다리가 잘리거나 부모를 잃었다. 팜유 경작으로 인한 삼림 벌채로 죽은 오랑우탄은 수천 마리에 달한다. 팜유와 관련된 서식지 파괴와 삼림 벌채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디애나폴리스 동물원의 보존과 생명과학 부회장인 로버트 슈메이커가 말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5년 안에 야생 오랑우탄이 멸종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중략)<br/><br/> 그린피스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팜유는 인도네시아에서 숲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보르네오 일부 지역에서는 삼림 벌채의 75%가 팜유 때문에 이루어졌다. 지금 속도대로 숲이 파괴된다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숲은 2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팜유 생산은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br/><br/> 인도네시아에서 숲을 없애고 플랜테이션을 만들 때는 불법 화전 농법이 널리 사용된다. 이때 막대한 양의 온실 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고, 인근 지역에 위험한 스모그 문제를 일으킨다. 이탄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몇 달, 때에 따라서는 몇 년에 걸쳐 불탄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중 60% 이상이 숲과 이탄지를 없애는 과정에서 나온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숲을 없애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br/><br/> -2015년 8월 29일 허핑턴포스트<br/><br/> <br/><br/> <br/><br/> 유럽 식품안전청은 보고서를 내면서 팜유 섭취 자체를 중단하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잠재적으로 해롭다”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누텔라의 미국 공식 트위터에는 “누텔라가 발암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누텔라를 사랑한다”는 글과 “팜유 사용을 멈춰라”는 글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다.<br/><br/> <br/><br/> 황춘화 기자 sflower

언론사: 한겨레-2-304.txt

제목: 인공지능의 ‘빅뱅’, 공상과학이 현실로  
날짜: 20170116  
기자: 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6185815001  
ID: 01101001.20170116185815001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강력한 컴퓨팅 파워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컴퓨터가 인공지능(AI)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이를 공장과 사무실, 집에서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의 힘을 대중적으로 크게 알린 계기가 됐다.<br/><br/> 이런 흐름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도 확인됐다. 대중에겐 생소한 그래픽처리장치(GPU·지피유)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모든 정보통신(IT) 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주목을 받은 젠슨 황은 가죽재킷을 입고 이번 전시회의 첫 기조연설을 맡았고, 벤츠 부스에서 한 토크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뇌’가 되는 지피유를 만들기 때문이다. <br/><br/> 사실 인공지능은 어제오늘 출현한 구상은 아니다. 이전부터 개념은 있었지만 수십년 동안 연구는 정체됐다. 그 돌파구를 찾은 게 ‘딥러닝’이다. 컴퓨터가 수천, 수만 번의 경험을 순식간에 반복하며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데, 연구자들은 컴퓨터나 비디오게임의 화려한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처리 능력을 갖춘 지피유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엔비디아의 지피유 개발 능력은 순식간에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 비서 영역으로 확대됐다.<br/><br/> 젠슨 황은 “<span class='quot0'>비교 불가의 병렬 프로세싱 역량을 가진 지피유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빅뱅을 촉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공상과학에나 등장하던 것들이 수년 내에 현실이 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변화의 ‘뇌’를 맡은 엔비디아가 내놓은 전망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다.<br/><br/> 엔비디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마이크인 스팟 출시를 예고했고, 아우디와 벤츠 등 자동차업체들과 협업 과정도 공개했다. 아우디와는 2020년까지 레벨4의 자율주행차(완전 자율주행 바로 전 단계)를 내놓을 계획이다.<br/><br/> 젠슨 황은 벤츠 부스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span class='quot0'>인공지능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진화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자동차 스스로 주행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할 것</span>”이라고도 했다. 사자드 칸 메르세데스-벤츠 디지털 차량 및 모빌리티 부문 부사장은 “<span class='quot1'>1년 뒤엔 인공지능이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할지 파악하고,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해 점심 메뉴를 제안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엔비디아 부스에서 만난 기술마케팅 매니저 숀 윅스는 더 많은 상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윅스는 “<span class='quot2'>인공지능은 의사가 암을 진단하는 데나 자율주행차에 쓰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도 있다</span>”고 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와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 정체를 막을 수 있게 돼, 도로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줄어 도시 내의 주차장과 차고를 없애 공원 등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자율주행차 옆으로 간 윅스는 “<span class='quot3'>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라스베이거스/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2-305.txt

제목: 암 환자 자살 시도 위험 일반인에 견줘 3.3배  
날짜: 2017011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6114824002  
ID: 01101001.2017011611482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살 시도 위험은 일반인에 견줘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은 3.3배나 높았고, 신부전은 4.9배, 폐결핵은 무려 12.5배나 높았다. <br/><br/> 16일 박기호·계수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암관리정책학과 교수팀이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가운데 19살 이상 1만9599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자살시도 위험과 자살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살을 행동에 옮기는 자살 시도의 위험은 일반인에 견줘 암 환자는 3.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보다 더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질환도 여럿 있었는데, 폐결핵이 가장 높아 12.5배였고, 이어 신부전은 4.9배, 협심증은 3.9배 등이었다. 골관절염도 일반인보다 2.1배였다.<br/><br/>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치료를 필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절망감이 더 크고 삶의 질이 낮아져 자살시도 위험이 일반인에 견줘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만성질환이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 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가족들은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환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지나 조사표 등을 통해 자살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등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 통합적 지지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포괄적 정신의학> 최근호에 실렸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306.txt

제목: 면역력 약한 50~60대, 예방접종 고려를  
날짜: 2017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2085839002  
ID: 01101001.2017011208583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두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심한 통증(신경통)이다. 피부 발진만 나타나는 환자도 있지만, 환자 10명 가운데 1~2명은 대상포진과 함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통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만큼 심하다. 짧게는 한달 정도 이 통증이 나타나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나, 수년에서 심지어는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주로 당뇨, 암 등을 앓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거나, 50대 이상에서는 예방접종을 챙겨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의들의 권고다.<br/><br/> <br/><br/> ■ 50대가 가장 많이 진료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2014년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자 수는 2009년 45만명에서 2014년 64만명으로 42% 증가했다. 특히 여성 환자 증가폭이 더 커 같은 기간 약 26만8천명에서 39만3천명으로 46.6%나 늘었다. 나이대별로는 2014년 기준 50대가 16만5천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11만9천명, 18.5%), 40대(10만3천명, 16%) 순서였다. 성별로 나눠 봐도 남녀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다.<br/><br/>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지만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해 있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크게 번식해 일으키는 질환이다. 중장년층에 접어들면서 암, 당뇨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 등으로 심하게 피곤한 경우 등에서 나타나며, 대상포진 뒤 신경통도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여성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다.<br/><br/> ■ 건강한 생활로 면역 높여야 어릴 적에 감염됐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 특히 특정한 신경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질 때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현재 잠복해 있는 수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몸의 면역력을 높여 이 수두 바이러스가 크게 번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대상포진 위험을 높이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체력저하, 과로, 만성피로 등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사 등이 필수다. 특히 40~50대는 스트레스가 많은 나이대이므로, 자신에게 걸맞은 취미 활동 특히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으나, 면역기능을 강화한다는 각종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포진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br/><br/> ■ 50대부터는 예방접종도 고려해볼만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은 2000년대 중반에 개발돼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50살 이상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 대상포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그동안의 임상시험 결과 특히 60대에서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60대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면 받지 않은 경우보다 대상포진 발생 위험을 64%까지 낮췄다. 하지만 예방백신의 효과는 60대보다 더 나이가 들면 점차 감소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100명 가운데 1명가량에서는 접종부위의 통증, 홍반, 가려움증 등이 생기거나 두통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접종은 한번만 맞으면 된다. 하지만 일부 항생제나 단백질의 한 성분인 젤라틴 등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 환자이거나, 후천성면역결핍상태인 환자 등은 접종 금기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도 맞으면 안 된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307.txt

제목: 물집이 허리띠 두른 듯…진통제를 먹어도 욱신욱신  
날짜: 2017011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2084819001  
ID: 01101001.2017011208481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옆구리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어서 척추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났다고 생각해, 예전에 다니던 정형외과를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비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br/><br/> 지난해 1월 조아무개(69·여)씨는 마치 칼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이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옆구리 뒤편부터 허리까지 나타났습니다. 10여년 전부터 허리가 종종 아팠고, 5년 전쯤에는 허리 디스크 질환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디스크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틀쯤 예전에 처방받았던 진통소염제 등을 챙겨 먹었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조씨는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span class='quot0'>혹시 척추의 디스크가 파열됐을 수 있다</span>”고 설명하고 몇 가지 신체 검진을 하더니 엠아르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0여년 전 100만원 가까이를 들여 엠아르아이 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크게 이상이 없었던 조씨는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예전 허리 통증과는 양상도 다르고 강도가 셌기 때문에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씨는 “<span class='quot1'>검사비가 50만원가량 들었던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사를 받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척추 디스크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파열된 디스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br/><br/> 일단 정형외과 병원에서 좀더 효과가 센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와 약을 먹었는데도 극심한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눕거나 앉는 등 자세를 바꿔도 통증의 세기나 양상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잠을 설칠 만큼 통증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구리 뒤편부터 등의 중앙선까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슨 큰 질병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조씨는 크게 놀랐고, 주변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하다가 아는 의사에게서 대상포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씨는 “옆구리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데, 피부과를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니 다소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물집이 수십개 잡혀 있는 것을 보니 피부과를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br/><br/> 놀란 마음에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그곳 피부과 전문의는 통증의 양상을 듣고 옆구리와 등에 있는 물집을 보더니 대상포진이 의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상포진은 말 그대로 물집 양상이 마치 허리띠를 옆구리에 두른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민걸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어렸을 때 감염된 뒤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활성화돼 주로 40대부터 많이 발생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심한 통증, 피부 발진과 물집이 주요 증상인데, 피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최소 사흘에서 최대 열흘 동안은 통증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 <br/><br/> 대상포진인줄 몰랐던 60대 여성 허리 통증에 디스크 의심했지만 며칠뒤 물집 보고서야 피부과 진단 약효도 없어 결국 신경치료 받아<br/><br/> <br/><br/> 어릴 때 잠복한 수두 바이러스 심한 스트레스·과로때 재번식 40대이상 여성들 특히 많이 앓아<br/><br/> <br/><br/> “<span class='quot3'>면역력 높이려고 규칙적 운동에 혹시 재발 될까봐 백신 접종도 산통처럼 아파 기억조차 하기싫어</span>”<br/><br/> <br/><br/> 조씨의 경우 과거에 디스크 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심했지만, 다른 대상포진 환자들은 물집이 잡히기 전에는 옆구리 통증 때문에 종종 요로결석이나 담석 등을 의심해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모이는 통로에 돌이 생겨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담석 역시 쓸개즙이 모이는 담낭에 돌이 생겨 마찬가지로 극심한 통증이 옆구리나 배의 위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br/><br/> 조씨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대상포진이 나타났다는 말에 다소 겁이 났지만, “<span class='quot1'>통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span>”는 피부과 의사의 설명에 안심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주변에 옮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주변에 전염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피부과 전문의에게 감염의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최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 등이 있는지 물었고, 조씨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평소 고혈압과 허리<br/><br/>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집 근처 산책길을 걷는 등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br/><br/>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소염제 등 몇 가지 약물을 처방받고 돌아온 뒤 그는 돌이켜 보니 두세달 전쯤부터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것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씨는 “<span class='quot1'>40대 초반인 아들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무척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들과도 말싸움을 심하게 하는 등 며칠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식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영향이 대상포진을 나타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대상포진은 잘 생기는데, 특히 나이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대상포진 뒤 신경통도 잘 생긴다</span>”며 “<span class='quot4'>많은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돼 있으나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스트레스에 민감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를 더 많이 겪기 때문에 대상포진도 더 많이 걸린다는 설명도 있지만, 통증에 더 예민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병원을 찾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br/><br/> 조씨는 처음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부터 피부의 물집은 딱지가 생기면서 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주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물집은 통증이 시작된 지 보통 3~5일이 지난 뒤 나타나 1~2주일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낫는다. 통증은 환자 10명 가운데 1~2명 정도는 한달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60살 이상의 환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두달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된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통증 자체를 참기도 힘들지만, 통증 때문에 만성피로, 수면장애, 식욕부진, 우울증까지 생기기도 합니다.<br/><br/> 조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생기는 양상으로 변하면서 통증의 강도도 더 심해졌습니다. 약물의 효과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다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대상포진 뒤 신경통이 의심된다며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도록 권유했습니다. 그곳 전문의는 신경치료를 권했습니다. 조씨는 “통증이 심해 무슨 치료라도 받을 생각이었지만 신경을 차단하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소 놀랐다. 하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 통증을 줄일 수 있다니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주 교수는 “<span class='quot5'>대상포진의 통증에 대하여 진통소염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대상포진이 나타난 뒤 한달가량 지나 신경통이 나타나면 진통제나 신경치료를 해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돼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수두 바이러스는 어렸을 때 수두를 일으킨 뒤 이후에는 신경다발이 모인 신경절에 침투해 이곳에서 잠복해 있다가 중장년층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번식해 대상포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해당 신경절을 차단하는 등 직접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조씨는 신경치료를 받은 뒤에는 다행히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가끔 통증이 나타날 때 진통소염제 등을 쓰면 통증이 조절되기도 했습니다.<br/><br/> 조씨의 경우 옆구리나 등 쪽에 대상포진이 나타났지만, 대상포진을 앓는 환자 가운데 10~25%는 합병증으로 얼굴에 대상포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굴에 나타난 경우 증상이 훨씬 더 심한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3명 가운데 2명에서 눈의 각막에도 염증이 생기고, 절반가량에서는 시력 감퇴를 겪기도 합니다. 또 뇌졸중 발병 위험이 얼굴 대상포진이 없는 사람에 견줘 4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행히 조씨는 얼굴에 대상포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br/><br/> 이후 지난해 말 조씨는 자녀들의 권유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나 허리 통증 그리고 비만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암이 의심될 만한 소견도 나오지 않았고, 다소 비만하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조씨는 “<span class='quot1'>젊었을 때에는 괜찮더니 40대 이후에 몸무게가 늘고 폐경 뒤로는 몸이 훨씬 피곤해지는 것 같았다</span>”며 “<span class='quot1'>폐경 시기부터는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을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span>”고 말했습니다. 이후 평소 하던 걷기나 산책 시간을 다소 늘렸습니다. 젊었을 적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에서 음악 듣는 시간도 늘렸다고 했습니다.<br/><br/> 조씨는 올해 여름에 주변 친구들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씨는 대상포진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조씨도 혹시 몰라 접종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은 한번 나타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조씨는 예방접종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씨는 “한번 당해 보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된다. 충치로 치통이 심할 때나 아이 낳을 때 통증처럼 심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싫어 몇 만원 드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308.txt

제목: 11일 알림  
날짜: 2017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0000823001  
ID: 01101001.2017011000082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는 최근 안산시에 10kg짜리 쌀 300포대를 기탁했다. 단원구 6개 동과 안산지역 아동·복지시설 8곳에 전달했다.<br/><br/> ◇ 서울시인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윤동주 100년의 해’ 선포식을 연다.<br/><br/>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0일 2016년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열어 석진건설·동우개발·피엔지건설·녹십자이엠에 우수상을 수여했다.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 관련 사례를 산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함이다.<br/><br/>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br/><br/>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신년특강을 열고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02)723-4770.<br/><br/> ◇ KB손해보험은 9일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교통사고 유자녀 15명에게 각각 장학금 15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장학금은 본사 카페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br/><br/> ◇ 현대백화점그룹은 10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지원 협약을 맺어 100억원을 지원한다.<br/><br/> ◇ 인천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해 ‘인천 손은 약손’ 사업을 벌인다. 인천의료원 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암 의심이나 확진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수술비·치료비·호스피스비 등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br/><br/>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재난재해 대응·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15일∼21일 누리집(techfair.kr)에서 접수받는다.<br/><br/> ◇ LG화학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를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주요 사업장 인근의 중학생 400여명을 초청해 ‘우리를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화학'을 주제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br/><br/> ◇ 동의과학대는 10일 중국 칭다오대와 현지학기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본교 관광중국어전공 학생들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칭다오대에서 16주간 현지학기제를 이수한다.

언론사: 한겨레-2-309.txt

제목: 빅데이터 통한 ‘정밀의료’, 생체정보 독점이 문제  
날짜: 20170110  
기자: 권오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0093837001  
ID: 01101001.20170110093837001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이는 늘 몸을 부들부들 떨고 화를 냈다. 부모는 무엇 때문인지 가능한 모든 진단을 받아봤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고통스러운 검사가 3년간 이어진 뒤에야 이유가 밝혀졌다. 유전자 변이로 눈물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사포로 각막을 긁는 듯한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미국 듀크대 연구진이 아버지 매슈 마이트와 아들 버트런드의 유전자를 대조한 뒤에야 밝혀졌다. 올해 10살이 된 버트런드는 이에 기반을 둔 맞춤 치료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유전자 분석과 데이터 처리 기술, 둘을 바탕으로 한 분석·치료법이 없었다면 아이는 여전히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았을지 모른다. 지난해 2월 미국 백악관은 마이트 가족의 예를 소개하며 기존 의료를 이렇게 재편하는 ‘정밀의료’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br/><br/> 정밀의료란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각자 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를 말한다. 우리 몸은 모두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공장식으로 대량생산된 똑같은 약을 먹는다. 미국 의료기업 ‘애벗 래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의 분석을 보면, 이런 표준적인 약물치료는 25~80%의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인다. 즉, 어떤 약의 경우 환자 4분의 3은 효과 없이 돈만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밀의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자가 가진 병을 정확히 조준하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것이 ‘스마트’(똑똑)하게 변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다.<br/><br/> 인간 유전체 분석 비용과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가격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초반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매우 닮았다. 2001년 한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1100억원 정도였는데, 2008년께부터 급락해 2015년이면 10만원 수준에 가능하다. 1기가바이트(GB)당 하드 가격을 보면 1980년에는 약 2억2000만원였는데, 2015년이면 35원 밑으로 떨어진다. 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정보를 해독하는 가격과 이를 저장하는 비용을 놀라운 속도로 떨어뜨렸고, 이 덕분에 정밀의료는 비로소 가능해졌다.<br/><br/>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정밀의료를 인공지능 등과 함께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 지원을 공식화하자 우리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br/><br/> 정밀의료 계획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코호트 구축이다. 코호트란 특정한 연구 목적 등에 따라 모집한 표본 집단을 말한다. 정밀의료를 하려면 유전자와 환경이 특정 질병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위해선 충분한 참여자들의 각종 자료를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집하는 정보에는 성별, 나이, 연락처 같은 기본정보와 유전자(DNA) 정보, 질병력, 소변, 혈액, 생체조직 등 의학정보, 그리고 라이프로그가 포함된다. 라이프로그는 손목에 찬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서 기록되는 수면, 운동량, 체온 등 ‘삶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를 위해 최초 10만명의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후 예산에 따라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보는 모였을 때 사람을 살리는 치료법을 만들어내지만, 유출되면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예컨대 가족에게 암 발병을 알리지 않은 아버지의 병력이 의도치 않게 공개된다면 그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9일 <한겨레>가 입수한 복지부의 ‘정밀의료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참여자 자신의 정보 통제에 대한 항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 대책으로는 ‘본인의 검사 결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앱 및 웹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검토한 한 생명윤리학회 이사는 “<span class='quot0'>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코호트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동의서 한 장을 받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밀의료의 경우 이렇게 하기엔 수집하는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는 정밀의료 성공의 핵심”이라며 백악관이 별도의 보고서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정보의 수집부터 통제, 활용 등 데이터 흐름 전반에서 참여자가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1500억원가량을 투자해 시범 구축에 나서겠다고 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1300억원가량을 투자해 당장 10만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계획한 것도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체자원은행 등 기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전체 80만명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세계 최대 생체정보 수집국가이기도 하다.<br/><br/>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가도 새롭게 대두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 주인은 수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한 통념으로 여겨왔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이다. 이를 지불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저장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이를 이용해 창출되는 부는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런 통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br/><br/> 정밀의료 데이터는 산업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활용하면 희귀병을 검출하거나 맞춤 약을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강 관리를 조언하는 가입형 의료 서비스도 창출 가능하다. 정부는 정밀의료의 연관 산업으로 2025년까지 1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코호트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땡전 한 푼 돌아가지 않는다. 통념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없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동의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br/><br/> ‘가상현실’ 개념의 창시자이자 실리콘밸리 사상가 가운데 한 명인 재런 러니어는 저서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이런 데이터 구조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수집자는 막대한 부를 쌓는 동안 제공자는 한 푼의 이득도 챙기지 못하는 구조가 너무 심해져서 정보경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해 수십조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빅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온갖 서비스들에 적용되는 미래에 이런 데이터 빈부 격차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 데이터 산업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br/><br/> 이는 기업들이 내놓을 혁신적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대가 아닐까. 의료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지급 비용 말이다. 반면 과연 이런 데이터 기반 의료가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span class='quot1'>정밀의료는 가장 적극적인 ‘개인화’를 추구하는 보건의료로…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문제가 강조되고 개인별 접근이 강화된다</span>”고 지적했다. 개인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사회경제적·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서 비롯되는 주거 환경의 차이 등 말이다. 정밀의료의 접근법에선 이런 맥락이 모두 거세되고 현재의 데이터만 남는다. 데이터에 따른 대책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이런 의료가 주류가 되는 사회에서 공공의료 강화 같은 공적인 접근법은 지지를 잃기 쉽다.<br/><br/>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밀의료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은 사회 곳곳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내 눈에 들어오는 광고에서부터 들려오는 뉴스, 위험 대비를 위한 보험, 안전을 위한 범죄 예측 등이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이다. 데이터 주인인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br/><br/> 권오성 기자 sage5th

언론사: 한겨레-2-310.txt

제목: 박 대통령 단골 차움의원은 ‘의료영리화’의 미래  
날짜: 201701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10050835001  
ID: 01101001.201701100508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근처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세청의 고시를 보면 피엔폴루스의 기준시가는 1㎡당 517만2천원으로 전국 1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에 구속수감되기 전까지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 이 건물의 2~7층(4층 제외 5개층)에는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움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찾은 곳으로 최근 알려졌다. 병상이 30개 이하여서 ‘의원’이긴 하지만 규모로는 병원 못지않다.<br/><br/> 2~3층에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일반외래 진료실이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을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의원·병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2층 ‘메디컬존’에는 일반 외래 진료실과 함께 피부성형센터, 디톡스슬리밍센터, 면역증강센터, 헤어스파 등이 자리잡고 있다. 3층 ‘안티에이징존’에는 스킨케어센터, 안티에이징센터, 푸드테라피센터, 브이아이피(VIP)스파 등이 있다. 5층은 운동시설이 있는 ‘피트니스존’, 6층은 사우나시설이 있는 ‘릴랙스존’, 7층은 수영장이 있는 ‘어번 오아시스’다. 이런 시설들은 주로 회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회원권 가격이 1억5천만~1억7천만원이다. 회원들은 이런 시설들에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등 각종 고가의 영상촬영검사 등이 포함된 값비싼 건강검진 서비스, 음식치료나 차치료 같은 영양치료,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등 운동치료, 피부미용치료, 온천치료, 탈모치료 등 각종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의학적인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신의료기술이라 할 수 있는 면역세포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br/><br/> 차움의원은 홈페이지에서 “<span class='quot0'>서양의학, 동양의학, 통합의학, 줄기세포 의학뿐 아니라 메디컬스파, 운동처방, 식품치료, 바이오 인슈어런스 등의 지혜와 기술력을 총동원해 즐기면서 건강을 찾아주는 미래형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span>”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래형 라이프센터’ 차움은 의료자본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의 모델이기도 하다.<br/><br/> ■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소득층 위한 서비스! 지난해 차움의원에서 영양치료 등을 몇 차례 받았다는 50대 남성 이아무개씨는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 만성피로에 시달렸다”며 “주변 지인이 만성피로와 간 기능 개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건강검진도 필요하다고 여겨 엠아르아이 등 고가의 영상검사가 포함된 몇 가지 검사만 받았는데 200만원 넘게 들었다. 이씨는 “차움의원을 이용하다가 회원 가입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문의해봤는데 일단 비용이 너무 비쌌다. 영양치료는 받다 보니 계속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 운동도 평소 회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온천치료나 각종 도수치료를 비롯해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 솔깃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br/><br/> 차병원그룹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차움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기존의 의료기관에서는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고급화된 것은 맞다</span>”며 “<span class='quot1'>기존의 현대 의학이 각 개인의 특수성에 기반하지 않고 통계에 따른 의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차움은 각종 고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암 등 여러 질병을 조기 검진하고 각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기능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 및 운동 치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span>”고 말했다.<br/><br/> 차움의원이 2010년 6월 문을 연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최순실씨 자매는 지난해 6월까지 이용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회원들은 주로 서울 강남의 부자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다.<br/><br/> ■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이자 미래, 차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차움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온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br/><br/>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수익을 남겨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행법상 법인 형태 병·의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외국자본이 절반 이상 투입된 경우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각종 고가의 서비스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영리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각종 고가의 치료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부대사업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파는 것도 의료 영리화</span>”라며 “<span class='quot2'>병원이 부대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탓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 실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고,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여정부는 또 이전까지 학교법인이나 복지법인 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병·의원은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06년 통과시켰다.<br/><br/>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함께 추진했으나, 2008년 촛불시위 등 거센 여론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또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재무, 직원 교육, 의료재료·검사장비 구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추가하거나 병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료 영리화 정책은 대폭 확대됐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4년 6월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의 부대사업은 2014년 9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도 가능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span class='quot3'>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span>”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을 2015년 12월 승인하기도 했다.<br/><br/>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4'>차움의원 개원 때인 2010년 6월은 부대사업 확대가 되기 전인데도, 차움의원은 차바이오텍을 통해 편법으로 목욕장업, 체육단련장업, 수영장업 등을 하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4'>고가의 차움의원을 이용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의료 영리화 정책의 모델을 차움의원에서 보고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했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현재는 차움의원에 그치고 있지만, 이런 고가의 부대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을 위한 각종 치료가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311.txt

제목: 1월 6일 문학 새책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5185918001  
ID: 01101001.20170105185918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실향의 노래 조동일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가 7개 언어(한·중·일·영·불·독·한문)로 된 세계의 명시를 주제별로 분류해 번역하고 해설했다. 1권 ‘실향의 노래’를 비롯해 ‘이별의 노래’ ‘유랑의 노래’ ‘위안의 노래’ ‘자성의 노래’ ‘항변의 노래’ 등 6권으로 이루어졌다. “<span class='quot0'>서정시는 동서고금 모두 하나</span>”라고 엮은이는 썼다. /지식산업사·각 권 1만5000원.<br/><br/><br/><br/> 2번가에서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를 비판한 활동가이자 작가 에스키아 음파렐레(1919~2008)의 1959년 자전소설. 세계대공황과 인종차별 정책 속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헤쳐 나갔는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렸다. 배미영 옮김/문학과지성사·1만4000원.<br/><br/>100일 동안의 행복 1, 2 이탈리아 영화감독 파우스토 브리치의 2013년 데뷔 소설. 말기 암으로 살아갈 날이 100일밖에 남지 않은 남자의 하루하루를 유쾌한 시선으로 그렸다. 헬스클럽 강사 루치오가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난 뒤 조력 자살을 택해 100일 뒤에 죽기로 결심한 뒤 벌어진 일들. 이승수 옮김/민음사·각 권 1만2000원.<br/><br/> 마광수 시선 ‘성적 욕망’ 혹은 ‘사회적 일탈’에 대한 꿈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 논란을 낳기도 한, 시력(詩歷) 40년 마광수의 자선 시선집. “<span class='quot0'>그래그래, 빨가벗으면 확실히 본능이 꿈틀거려/ 부자연스럽지 않아, 신비스럽게 자유로워/ 내 빈약한 육체조차도 대견스러워 보여,/ 날아갈 것 같아</span>”(‘빨가벗기’ 부분) /페이퍼로드·1만2000원. <br/><br/> 천국에서 돌아오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회자의 길을 가려다가 신과 종교에 대한 근원적 회의에 빠진 주인공. 미국 유학에서도 답을 얻지 못한 그는 인도 북단 델리에서 남단 마두라에 이르는 여행길에 발견한 마법서 <라마할디>를 읽은 뒤 스리랑카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어떤 각성 상태에 도달한다…. 하창수 소설. /북인·1만1000원.

언론사: 한겨레-2-312.txt

제목: 음주 경험 있는 암 환자 60%는 투병 중에도 술 마셔  
날짜: 2017010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5110811001  
ID: 01101001.2017010511081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에 걸리기 전 술을 마신 암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암 투병 중에도 술을 계속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5일 고현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강사팀이 2007~2013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을 받은 20살 이상 성인 1269명의 음주습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에 걸리기 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906명 가운데 60.3%에 해당되는 546명은 암 진단 이후에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술을 끊었다는 암 환자는 360명(39.7%)이었다. 연구대상 1269명 가운데 평생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없는 환자는 307명, 암 진단 이후 처음 술을 마셔 본 환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br/><br/> 연구 결과 또 암으로 진단된 뒤에도 술을 마시는 환자 가운데 27.1%에 해당되는 148명은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 음주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알코올량을 기준으로 남성은 60g, 여성은 40g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팀은 “암 환자들도 1~2잔 정도의 술은 괜찮다고 여기거나 사회생활로 어쩔 수 없이 음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암에 걸린 이후에도 폭음을 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암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금주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약물과 알코올 의존> 최근호에 실렸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2-313.txt

제목: “매일 출근하는 즐거운 100살…잘 살아야 잘 죽는다”  
날짜: 20170104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4185836001  
ID: 01101001.2017010418583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자판을 두드리는 손길이 경쾌하다. 마치 10대 소녀 피아니스트의 소나타 연주를 떠올리게 한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컴퓨터 화면 앞에 이동식 대형 돋보기가 있다는 점이다. 필요할 때 이 돋보기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화면 속 자세한 숫자나 사진을 관찰한다. 지난해 이 자판을 두드려 책을 한 권 썼다. 올해도 쓰고 있다. 1918년생. 한국 나이로는 100살이다.<br/><br/> 이제 살아 있는 친구들도 거의 없다. 다른 노인들이 이 나이까지 살아 있다면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불편한 몸을 원망하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사무실에 출근해 하루 7시간씩 근무한다. 보청기는 3년 전에 꼈다. 몸은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 하루 1시간 정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늘 남보다 몇 발 앞서 살았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에너지였다. <br/><br/> <br/><br/> 자원봉사 개념 생소하던 시절 재단 세워 봉사자 1만2천명 배출 ‘걸스카우트’ 만들어 간사장 15년<br/><br/> <br/><br/> 26년전 남편 잃고 웰다잉 모색 죽음준비 전문교육가도 배출 “사람은 살아온 것처럼 죽어”<br/><br/> <br/><br/>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 이 땅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많다. 걸스카우트를 처음 조직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로 황폐했던 1950~60년대에 ‘대한소녀단 걸스카우트’를 창단해 간사장을 15년간 맡았다. 한국 여성 가운데 처음 국제기구(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수장으로 유엔에서 공식 활동한 여성 엔지오 활동가이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 자원봉사자를 키웠고 잘 죽는 방법(웰다잉)을 공개적으로 처음 모색했다. 호스피스 봉사를 처음 시작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시작했다.<br/><br/> 지난 2일 서울 종로의 각당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한복을 입고 컴퓨터를 다루고 있었다. 새해 첫날이라 한복을 입었다고 했다. 곱다. 아무리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한 세기를 살아온 이를 만나기 쉽지 않다. 출근해 일하는 이를 보기는 더욱 어렵다. 지난해 한국의 100살 이상 인구는 3000명을 조금 웃돈다. 그가 1986년에 만든 각당복지재단은 한국 최초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기관으로 그동안 1만2천여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12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br/><br/> 당시의 숨기고픈 이야기이다.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공무원에게 설명하며 어렵게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를 만들고, 처음 생각한 대상자가 퇴직한 교수들이었어요. 고학력자 자원봉사자로 제격이었어요. 전국 주요 대학에 지난 3년간 은퇴한 교수 명단을 부탁했어요. 200여명의 은퇴 교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이제 자원봉사자가 돼 사회에 기여하자고….’ 그런데 답변이 딱 한명에게만 왔어요. 그마저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낙향해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실망을 넘어서 충격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리 자원봉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지.”<br/><br/> 죽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만든 인연도 각별하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간경화로 26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는 반년 이상 눈물로 지샜다고 한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리 슬프고 애달파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어느 날 눈을 감고 상념에 빠져들고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에 부치라’는 소리였어요.”<br/><br/> 그는 배우자를 잃고 아파하던 지인들과 91년 4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출범시켰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슬픔을 치유하자는 목적이었다. 죽음준비교육 전문가도 배출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살아온 것처럼 죽어가요. 삶과 죽음 사이에 돌연변이는 없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아름답게 죽을 수 있죠.”<br/><br/> 건강 비결이 궁금했다. 하루 7시간 자고, 세끼 챙겨 먹는다. 간식은 안 한다. 40대와 50대에 심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으로 고생했다. 업무 스트레스 탓이었다. 80대 초반 신장암에 걸렸다. 한쪽 콩팥을 떼어냈다. 그 후 특별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다.<br/><br/> “암에 걸렸을 때 남들은 슬퍼하고 울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암환자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수술 뒤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저보다 수술한 의사가 더 기뻐했어요.”<br/><br/> 그의 긍정적인 사고는 일상에 묻어난다. “공기와 물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만든 부모와 가족,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마당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치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바깥세상을 모르고 살았듯이, 죽어서도 지금은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br/><br/> 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

언론사: 한겨레-2-314.txt

제목: “선거혁명의 해, 촛불보다 투표가 더 중요합니다”  
날짜: 20170104  
기자: 윤형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4050818001  
ID: 01101001.20170104050818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인 2013년 말, <한겨레> 토요일판에 인터뷰를 연재하는 이진순씨가 당시 필자 관리를 맡고 있던 기자에게 고민을 토로했다. “아침에 신문 펼쳐보기가 싫을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다. 나이만 많은 어른 말고, 진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고 싶다.” <br/><br/> 마침 그 시기에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했으며, 파업을 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했다. 국정원 댓글로 선거부정 논란을 한 해 내내 겪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비판세력들을 각개격파하던 시점이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정부 요직엔 김기춘처럼 유신 시절에 활약하던 노회한 정치인들이 중용됐고, ‘가스통 할배’로 대변되는 어버이연합은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을 엄호했다. ‘어르신들은 왜 저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까’라는 의문을 품던 시기에 이진순씨가 세상에 알려진 원로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시대의 어른’을 찾아냈다. 바로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까딱하면 모두 저 꼴 되니 봐주면 안 된다”던 채현국(82) 효암학원 이사장이었다.<br/><br/> 그가 현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린 촛불세대와 ‘여의도의 노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다. 2013년 인터뷰 자리에 동석했던 인연으로 오랜만에 채 이사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암에 걸려 요양차 제주도에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섭외 요청에도 간간이 강연에만 나설 뿐 인터뷰에 거의 응하지 않았던 채 이사장은 하고 싶은 말도 있다며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했다.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의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채 이사장은 제법 따뜻한 제주도의 날씨답게 비교적 단출한 차림이었다. 회색 상의에는 가슴에 단 작은 노란 리본이 눈에 띄었다. <br/><br/> <br/><br/> “<span class='quot0'>촛불은 날조·조작의 현대사 끝내는 시작</span>”<br/><br/>-건강은 어떠십니까.<br/><br/> “일주일 전부터 제주에 와서 많이 걷고 좋은 공기 마시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암 걸린 놈 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늙으면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인데, 이거 걸린 늙은이들이 (전이가 느려서) 이 병이 아니라 감기 등 다른 병으로 죽는다더라구요. 나는 그동안 운이 좋아서 그리 비관이 안 됩니다. 이미 살아서 제삿밥 먹은 지가 10년 넘었어요. 이미 떠나야 할 놈이 지금까지 산 거지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계획한 게 있어도 그거 그냥 하다가 가는 것이지요.”<br/><br/>-몸이 편찮으신데, 촛불집회에 다녀오셨는지요.<br/><br/> “자주 갔어요. 치료 받으려고 서울에 병원 다니기도 했으니, 그때마다 데모하러 갔습니다. 거동이 편치 않으니까, 아주 중심부로는 진입하지 못했어도 주변에 앉아있기도 하고, 같이 걸어다니기도 하며 여러 번 참여했지요.”<br/><br/>-촛불집회에서 눈여겨 본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br/><br/> “이번 집회에 젊은 학생들도 많이 보였고, 어린 아이들 데려온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촛불집회에서 보고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것이고, 어린 아이들 데려온 부모도 교육이라 생각했을 거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들이 혹시 다치는 돌발사태가 발생할까봐 마음이 쓰였어요. 돌발사태가 벌어지면, 또 날조하는 자들이 판을 칠 테니까요. 맞불 집회하는 극우 노인네들이 돌발사태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br/><br/> -촛불집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br/><br/> “촛불은 날조와 조작·은폐의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시작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세월호처럼 계속 날조의 시대였어요. 이 제주에서 민간인들에게 총·대포를 쏘라고 했던 이승만은 죗값 안 치르고 해외로 도망갔고, 박정희 독재의 냉혹한 범죄들도 아직 다 안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의 나쁜 짓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가 집권하면서 묻혔고요. 김영삼은 군사독재를 굴복시키려 야합했다지만, 결국엔 그저 야합에 그쳤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 하던 놈들이 고스란히 잘 산 거지요. 정치가들은 약삭빠르고 악랄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선거의 해인 2017년이 중요해요. 어쩌면 촛불보다도 투표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미련하고 극우적인 저 박근혜 도당(새누리당)보다 정치적 생명을 잇기 위해 탄핵에 가담한 저 약아빠진 보수(개혁보수신당)가 우리 정치의 물을 흐릴까 더 걱정스러워요.”<br/><br/> <br/><br/> “반기문, 대체 뭘 했나”<br/><br/>-어떤 점이 우려스러우신가요.<br/><br/> “우리 사회가 아직은 껍데기만 민주주의입니다. 남북 분단체제라서 본질은 무엇이든 비밀로 하려는 군사체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해먹던 놈들이 계속 합니다. 북은 3대 세습에 원자탄까지 만들어 자랑하는데, 그런 저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조작과 날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저들과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3대 세습 인정하는 종북주의자로 몰아 버리잖아요. 조작의 시대를 이어가려고 그런 날조를 하며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br/><br/> -유엔에서 임기가 끝난 반기문(73) 전 사무총장이 보수 쪽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외교에 능한 국제 지도자라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br/><br/> “남북 분단국가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반도·중동·아프리카는 물론 국제인권과 무기 문제 등 어느 하나 옳게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영세중립국들의 비동맹 연맹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갈등하는 곳에 평화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 늙은이의 생각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받아들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강대국들이 갈등 조장하며 무기 팔아먹는 것에 눈치나 보며 아무 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나쁘게 살아남으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보수가)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쁘게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br/><br/>-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br/> “그건 완전 헛소리입니다. 개헌할 건 해야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그 탓으로 돌리는 그 주장만은 완전히 헛소리에요. 언론도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최가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예요.”<br/><br/> <br/><br/> <br/><br/> “<span class='quot0'>비정규직 양산, 학교 이사장인 나도 책임</span>”<br/><br/>-이번 촛불집회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바꾸기 원하는 여러 세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br/><br/> “우리 사회 19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900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은데, 학교 이사장인 나도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하청업체 노동자 중의 소득 하위층은 지난 20년간 명목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도 우연히 들었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 20년 동안 이걸 모르고 지낸 것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러고도 잘 사는 나라 만들었다고 생 거짓말을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폭동이 안 난 것이 기적입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정말 행색이 남루하고 절망적인 인상이 박혀있는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가난하면 절망해서 촛불집회도 안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온갖 조작하고 날조하는 자들이 굶주린 나라에서 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민중이 한 거지 저들이 한 것인가요? 저들은 민중에게 빨대 꽂아 피 빨아먹은 박쥐에 지나지 않습니다.”<br/><br/>-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말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엘리트 관료들이나 학계·재계 지도층이 서로 봐주고 권력에 맹종한 민낯이 드러난 점입니다. <br/><br/> “우선 탄핵 재판 담당하는 저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온갖 짓 다 해서 헌법재판관까지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악한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해요. 특히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 박근혜의 범죄를 입증하도록 각계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탄핵심판부터 이기고 나서, 선거에서 점점 야바위치는 놈들이 설자리를 잃도록 하나하나 바꿔야 해요. 특히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패거리들이 변화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들이 연극에서 제 역할이 끝났는데도 무대에서 안 내려올 텐데,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가라고 야유하고, 직접 무대에서 끌어내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선거에서 서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혁명적 개혁을 위해 누가 (대통령을) 하든간에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br/><br/> <br/><br/> “<span class='quot0'>정치권 노추한 인간들 말 듣지 말아야</span>”<br/><br/>-이번 촛불집회를 계기로 선거 연령을 만18살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br/><br/> “당연히 (연령 기준을) 내려야 해요. 18살에 병역 의무 지우며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는 나이에 선거권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br/><br/>-‘노인들을 봐주지 마라’는 말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크게 회자됐습니다. 다시 젊은 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br/><br/> “우리네 희망이 당신네 젊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노추한 인간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이 어디다 대고 미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시작한 양자역학을 나이 들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세상이 빨리 변해요. 컴퓨터랑 휴대폰이 이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살 넘은 양반들은 이제 입은 그만 열고 주머니나 열어야 합니다. 주머니가 없거든 귀라도 열어야 해요. 입은 그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br/><br/>-그래도 정치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경륜과 지혜를 가진 세대의 인물을 호출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인명진(71) 목사는 친박 핵심인사들을 청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종인(77)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줄곧 주창하고 있고, 오는 15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는 박지원(75) 의원이 출마합니다. <br/><br/> “인 위원장은 그 안에서 더 친박인 사람들 솎아낸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거기 전체가 친박입니다. 누가 누굴 내쫓는단 얘기인가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굴 내쫓는 건 인기나 끌려는 행동이에요. 김종인 의원은 ‘가인’(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라고 해서 일찍이 만났는데 (경제민주화 얘기하지만) 공부가 깊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시국에 반기문 끌어들이고 개헌 얘기로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br/><br/>-촛불 정국에서 이재명(53) 성남시장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민심을 잘 읽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br/><br/> “민심 잘 읽은 게 아니라 자기 할 말을 한 것이겠지요. 만일 민심 잘 읽어 인기 얻은 그런 약아빠진 인물이라면 도리어 위험합니다.”<br/><br/>-가슴에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위해 단 것인가요.<br/><br/>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달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는 조작과 날조로 희생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특혜나 보상을 바란다고 날조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도 그 날조와 조작에 앞장섰어요. 그런 이 사회의 병폐를 묵인하지 않고 저항해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게끔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리본을 달았습니다.” <br/><br/> <br/><br/> <br/><br/> 채현국 이사장은 누구?<br/><br/> ‘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인 1961년 <중앙방송>(현 한국방송) 피디로 입사했지만 방송이 군사정권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한 뒤 3개월 만에 그만둔다. 이후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강원도 삼척군 도계의 흥국탄광을 맡아 부도 직전의 회사를 살려내고 굴지의 광산업자가 된다. 이후 24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한때 납세 순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의 앞잡이가 돼야 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해 1973년 모든 사업을 접고 재산을 처분해 동업하던 친구들, 광부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무일푼이 됐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도피 생활을 하는 이들을 숨겨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독재에 저항하는 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도 했다. 1988년 효암고등학교와 개운중학교를 거느린 재단법인 효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줄곧 ‘무급’으로 일해왔다. 돈과 명예,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꼿꼿이 살아온 그의 삶은 2014년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는 그의 말은 ‘수구 꼰대’들을 향한 촌철살인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br/><br/> 제주/윤형중 기자 hjyoon

언론사: 한겨레-2-315.txt

제목: 1월 4일 인사  
날짜: 2017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3192835001  
ID: 01101001.2017010319283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정경희 ◇센터장 △글로벌사회정책연구 노대명 △연금연구 우해봉 △인구영향평가 원종욱 ◇팀장 △사회보장교육 이상영 △국제동향 류정희 △빅데이터 오미애 △사회보장운영 정홍원 △국제사회정책 이소영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실장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 장선영 △〃 기술개발 정승호 △경영관리부 홍보협력 이영욱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연구개발팀장 △제조 홍성호 △필드 김효곤 △해양 조건래 ⊙ 중앙미디어그룹 중앙일보·JTBC ◇부장대우 △대전총국 김방현 △대구총국장 김윤호(직무대행) 메가박스 △영업마케팅본부장 김현수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정희석 중앙일보플러스 △부장 이선정 ◇부문장 △콘텐트 이거산 △사업 한정희 △단행본 이정아 △교육기획(경영지원실장 겸) 권능오 ◇팀장 △헬스사업(사업부문 광고사업담당 겸) 김병규 △사업부문 신문섹션·IMC 이정환 △교육기획〃 기획사업 이승관 △경영지원실 디지털콘텐트 유지환 △CP제작(라이프 겸) 전유선 △편집디자인(디자인에디터 겸) 이선정 △헬스콘텐트 류장훈 ⊙ 매일신문 △편집국 대기자 박노익 △〃 선임기자 석민 김교영 ◇부장 △편집1 이종민 △〃2 배범권 △정치 김병구 △서울정경(편집위원 겸) 최경철 △사회 이상헌 △경제 최창희 △경북 김수용 △문화 조두진 △체육 이호준 △특집 배성훈 △뉴미디어정보관리 김태형 △광고국 관리 오영호 ⊙ BBS청주불교방송 △총괄국장 박시하 ⊙ 고려대 △ 사무처 부처장(총무팀장 겸) 이종균 △세종학사지원본부 본부장 박대영 ⊙ 대구보건대 ◇팀장 △운영관리 권영석 △취업지원 이석재 △학생복지 표창우 ◇센터장 △산학현장실습지원 전병규 △창업보육 박정식 △헬스매니지먼트 이현영 ◇학과장 △치기공 박광식 △보건행정 서수교 △안경광학 이정영 △보건의료전산 양승복 △소방안전관리 전흥균 △사회복지 이기량 △호텔외식산업학부 강석우 △스포츠재활 김우철 △유아교육 박영신 ⊙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김시범 △자연과학대학부속농장장(농학특성화지원센터장 겸) 권기석 △기획과장 오영택 △학생지원〃 김태흥 △제1행정실장 정동렬 △〃2〃 소광섭 ⊙ 한밭대 ◇4급 △교무처 교무과장 박상석 ⊙ 우석대 △우석대의료원장(전주한방병원장 겸) 장인수 ⊙ 건국대병원 △기획관리실장 김영준 ⊙ 가천대길병원 △행정원장 이선훈 ⊙ 인제대부산백병원 △진료부원장 이연재 △연구〃(인당생명의학연구원장 겸) 정재일 △교육수련부장 정해웅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장 이순희 ◇실장 △기획 이가영△홍보 정대훈 △응급 김양원 △QI 이근무 △중환자실장 이현경 ◇센터소장 △암 이원식 △진료협력 김상진 △건강증진 박태진 ⊙ KTB금융그룹 KTB투자증권 ◇부사장 △비서실 최희용 ◇상무보 △경영지원본부 전수광 △영업추진팀 현재욱 ◇이사대우 △자산운용센터 정호영 △SF사업팀 이호림 △프로젝트금융2팀 이상균 △경영혁신팀 김성우 △강남금융센터1지점 오진승 ◇부장 △기업금융1팀 전신웅 △부동산금융팀 김영기 △구조화금융팀 전진우 △자산운용팀 김지만 △강남금융센터3지점 정현민 △채권영업1팀 신준호 김봉철 △재무팀 이은주 △영업추진팀 정용석 ◇팀장 △기업분석1 이혜린 △〃2 이충재 △매크로 채현기 KTB네트워크 △전무 Amy Yeh △상무 고병철 정도 △상무보 신태광 KTB신용정보 ◇전무 △경영관리본부 박정완 ◇상무 △KR&C채권본부 나종옥 △기획부장 박재표 △IT지원실장 박상국 △경남지사장 최강용 △광주〃 김현 △〃지사 사무소장 김제복 나라대부금융 ◇부장 △대부사업1 이형식 △〃2 이경훈 △경영관리부장 전광호(직무대행) 더줌자산관리 △최고마케팅책임자(CMO) 하순봉 ⊙ NH농협카드 △대표 이인기 ⊙알리안츠생명 ◇지역단장 △중부 이용산 △인천 이강수 △대구 임명기 △창원 이영락 △울산 윤문도 △AA영업관리부장 김완일 ◇지역단장 △부산 전종한 △동부 황재선 △수원 장동기 △광주 김영석 ⊙ IBK투자증권 ◇부사장 △캐피털마켓 사업부문장 이영준 ⊙ 유한양행 ◇부사장 △R&D 본부장 서상훈 ◇전무 △개발실장 사철기 ◇상무 △ETC마케팅 1부장 정동균 ⊙ 대웅제약 △연구본부장 한용해 △임상센터장 김희선 △글로벌생산관리〃 박영호 ⊙ 르노삼성자동차 △제조본부 부사장 이기인 △R&D본부 시스템엔지니어링담당 상무 최성규 ◇이사 △R&D본부 파워트레인담당 임석원 △〃 프로젝트〃 송상명 △구매 구매담당 김종훈 △제조 생산〃 강준호 △영업 비즈니스채널〃 김근회 ⊙ 동부하이텍 ◇상무 △미국법인장 신용철 △구매물류팀 구매파트장 이일호 △상우공장 공정관리 김기용 △〃 제조기술1 송재관 △제품기술 전종빈 △PI 강순경 △Command 권종혁 ⊙ 조아제약 ◇상무 △품질관리부 안철수 △약국영업부 김창식 ◇부장 △비서실 신승룡 △광주영업소 김중섭 ⊙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품질 오명근 △생산 윤정원 △연구개발 장신재 ◇상무 △재무관리본부 신민철 △상업기술물류〃 이상윤 △ENG 구윤모 △경영지원 권기성 △신약 이수영 ◇이사 △DS 1 강석환 △지식재산 신경하 △재무관리 양현주 △제약개발 이태운 △연구운영담당 임병필 셀트리온헬스케어 ◇상무 △전략운영본부 김호웅 ◇이사 △마케팅담당 최병서 △재무〃 이한기 셀트리온제약 ◇이사 △영업본부 양지석 ⊙ 지멘스 헬시니어스 ◇전무 △초음파사업본부 권혁근 ◇상무 △인사관리본부 문동균 △진단시약사업〃 박윤미 ◇이사 △초음파 연구위원 김석민 △〃 김대영 김승훈 김지영 박성식 장호식 정수경 한준환 △진단시약 김명석 박영배 △서비스 김윤준 송영우 여동근 이석우 이향준 ⊙ 요진건설산업 ◇상무 △해외영업본부 배복희 ◇이사대우 △해외영업본부 미얀마사업부 손종우 ◇부장 △자재부 이달헌 △재무회계본부 회계부 배기호 △건축부 김주회 △안전·환경부 김태연 △기술영업부 천상필

언론사: 한겨레-2-316.txt

제목: [한겨레 사설] ‘진흙탕 싸움’ 대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  
날짜: 2017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3175829002  
ID: 01101001.20170103175829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 청산 요구에 친박계 인사들이 결사항전으로 맞서면서 새누리당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친박계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인 위원장이 애초 인적 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3일 친박 핵심 인사들을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거듭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막장 드라마’는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세력이 모여서 “고장 난 보수의 열차를 다시 달리게 하자”고 외치는 것부터 한편의 코미디다. 친박 핵심 인사들이 순순히 탈당할 리도 만무하지만, 설사 탈당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다시 살아날 길은 없다. ‘고장 난 보수의 열차’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미 오래전에 폐기장에 보냈어야 할 고철 덩어리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역겹고 어이없다. 친박계의 끝없는 탐욕과 집착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나라를 망친 일등공신인 친박 세력들은 탈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도 시원치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그들이 보여온 조폭 수준의 행태를 떠올리면, ‘보스’가 탄핵당하게 된 상황에서 ‘의리’ 차원에서라도 함께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인명진 위원장의 행태도 별로 칭찬받을 형편이 못 된다. 이미 수명이 다한 정당을 되살리겠다며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적 청산에 대한 말바꾸기 의혹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서청원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인적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감언이설로 비대위원장 감투를 차지한 뒤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광장의 촛불이 ‘박근혜 탄핵’ 다음으로 소리 높이 외친 것은 ‘새누리당 해체’였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고 역사의 필연이다. 요행과 꼼수로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과 망상이다. 그러니 무의미한 진흙탕 싸움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하루빨리 해체의 길을 밟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이 추악한 싸움을 계속할수록 ‘마지막 모습’만 더욱 지저분해질 뿐이다.

언론사: 한겨레-2-317.txt

제목: 재벌 승계 공식이 바뀐다  
날짜: 20170103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3170808003  
ID: 01101001.20170103170808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효성그룹과 동아쏘시오그룹이 총수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잇달아 단행하면서, 총수 사후에 승계가 이뤄져온 한국 재벌의 ‘승계 공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12월29일 조석래 회장이 물러나고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동아쏘시오그룹도 2일 강신호 회장이 물러나고 4남인 강정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두 그룹 모두 창업 2세에서 3세 체제로의 전환이다. 효성과 동아쏘시오의 경영 승계는 재벌 총수가 수명을 다해야 승계가 이뤄져온 기존 승계 공식과는 다른 ‘파격’이라는 점에서 한국 재벌체제에서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주요 재벌 중에서 총수가 살아있을 때 경영권을 물려주는 전통이 확고히 자리잡은 곳은 재계 4위 그룹인 엘지(LG)가 거의 유일하다. 재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지난해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의 교훈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재계 20위권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span class='quot0'>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90살을 넘겨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데도 계속 승계를 늦추다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자초하고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느냐</span>”고 말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공백 이후 경영권 승계 리스크와 휴대폰사업의 고전 등 비즈니스 리스크가 겹치며 위기를 맞는 것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조석래 회장과 강신호 회장은 슬하에 각각 아들 세 명과 네 명을 두고 있는데, 아들과 심한 갈등을 겪은 공통점을 안고 있다. 조 회장은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과 경영철학과 경영방식의 차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갈라선 뒤 2013년부터 사실상 의절한 상태다. 강 회장도 후계자를 둘째 아들인 강문석 부회장에서 넷째 아들 강정석 부회장으로 교체하면서 2004년 이후 차남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조석래 회장은 82살로 고령인 데다 건강 악화와 형사재판의 부담도 작용했다. 조 회장은 2010년 발견된 암의 치료가 6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심 재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효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조 회장이 치료와 재판 때문에 정상적인 출근을 거의 못 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경영 승계 문제가 제기됐다</span>”고 귀띔했다. 강신호 회장은 90살이다. 재벌 총수 중에서는 롯데 신격호(95) 총괄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이다. 그룹 안에서는 지난해말 사장단 인사 때 세대교체가 단행될 때부터 경영 승계가 예견됐다. 재계의 관심은 다음번 경영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 어느 곳인지에 쏠리고 있다. 재계 2위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1938년생으로 내년에 팔순이다. 지난달 최순실씨 국정 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47살로 2005년 기아차 사장을 거쳐 2009년부터 현대차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 현대차그룹 전직 임원은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를 세계 자동차업계 5위로 끌어올린 주역이지만 최근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 현대차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과감히 시도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것처럼 비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span class='quot2'>재벌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단순한 총수 집안 문제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왕의 사후에야 세자가 즉위하는 봉건왕조식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후계자가 최고경영자에 오르기 전에 경영 비전과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받는 경영 능력 검증 과정까지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3세의 성공은 물론 회사 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span>”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

언론사: 한겨레-2-318.txt

제목: [왜냐면] 교정 시설의 의료 처우 문제 있다 / 이주현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102182841002  
ID: 01101001.2017010218284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주현인천광역시 매소홀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이다. 남편은 심한 척추질환을 앓고 있어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인천구치소는 휠체어에만 의존하게 한 채 방치하고 있다. 인천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선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인데도 남편이 수용자로서 수술을 받고 입원할 경우 여러 명의 교도관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외면하며 남편의 병을 더 키우고 있다. 아무리 죄를 짓고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남편이 소위 말하는 권력자나 재벌이라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처우를 받을까 의문이다. 물론 죄를 짓고 구속된 사람에게 일정한 신상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권까지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치소에선 남편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과에 갔더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엑스레이 기사가 혈압 체크만 하고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병실이나 치료거실에도 배방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 등 지병으로 앓고 있는 이들만을 위한 의료 행정을 하는 곳이 교정 시설의 현실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매일 구치소로 접견을 다니면서 휠체어에 앉아 제발 통증만이라도 줄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호소를 듣고 있으면 힘없는 이의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구치소의 의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매번 들려오는 소리가 ‘열악한 교정당국의 의료 처우의 어려움’이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범죄자도 그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만 하는 이들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정 기관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